630
L2937

GOVP1200103754

최 종
연구보고서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Program Development for Supporting U-turn Farmers in Rural Settlement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농선회

농 림 부

대한민국
기증등록
2001. 3. 20
861819
국립도서관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0년 12월 13일

주관연구기관명 : 서 울 대 학 교
총괄연구책임자 : 정 지 웅 (서울대학교 교수)
〃 : 김 성 수 (서울대학교 교수)
연 구 자 : 이 채 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 구 자 : 고 운 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 구 자 : 김 정 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 구 자 : 강 정 옥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 구 자 : 이 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 구 자 : 임 형 백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연구기관명 : 한 국 농 선 회
협동연구책임자 : 정 영 진

편집순서 3

요 약 문

Ⅰ. 귀농자 영농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귀농자들의 귀농동기, 귀농준비정도와 과정 중에 필요로 하는 교육과 정보와 귀농자들이 귀농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제도상의 문제점 및 귀농자들의 성공여부와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귀농자들이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귀농자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예비귀농자들과 귀농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영농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정착과정에서 생겨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지역농업개발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검토를 통하여 조사도구를 작성한 후 전문가의 안면타당도를 거쳐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에 참가한 귀농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이 조사도구를 가지고 1,200부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하여 이 중 수거된 526매 중 응답자의 실수와 기타 이유로 분석이 불가능한 32매를 제외한 494매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조사대상 귀농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1) 귀농이전에 직장인이 38.1%, 자영업이 35.6%였고, (2) 교육수준은 고졸이 46.0%, 전문대 이상 학력이 25.1%였다. (3) 또 59.4%가 영농경험이 없었으며, (4) 귀농동기는 보다 나은 삶은 삶을 위한 것이 19.1%, 도시에서 실직으로 인한 귀농이 17.5%였다.

2) 귀농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1) 귀농자금마련이 30.5%, (2) 토지와 가축마련이 16.3%, (3) 영농기술과 경험부족이 15.3%였다.

3) 귀농자들이 영농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곳은; (1) 농업기술센터가 23.8%, 이웃농민이 22.0%였고, (2) 귀농교육프로그램이 19.3%, 서적이 13.8%였다.

4) 귀농의 성공여부에 대한 귀농자의 자체 평가에 의하면 11.8%가 성공적이었다고 답변한 반면, 56.%는 실패했다고 답변했으며, 32.0%는 아직 답변하기 이르다고 했다.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귀농의 성공요인은, (1) 적정한 작목선택이 13.4%, 영농기술이 7.9%, 유통기술이 3.5%였다. 귀농자들이 적정한 작목이라고 답변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의 폭락이 적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작목을 의미했다. 즉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이 귀농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귀농에 실패했다고 답변한 경우, (1)영농자금 부족이 28.5%,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이 15.3%, 영농기술과 경험부족이 14.7%, 농지부족이 13.0%, 노동력부족이 12.8%였다.

6) 귀농교육프로그램의 강사, 내용, 기간과 시간 등에 대하여는 교육에 참가한 귀농자들의 46.3%가 강사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으며, 시간과 기간에 대하여는 33.2%,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28.3%가 만족하고 있었다.

7) 귀농자들이 영농을 늘이고 싶은 분야는 특용작물이 21.0%, 환경농업이 17.3%였다. 또 귀농교육을 맡아주었으면 하는 귀농교육강사로서는 담당분야의 전문가가 46.5%, 현장전문가가 33.2%, 성공한 귀농자가 10.4%였다.

위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기초로, 귀농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한다.

1) 귀농자들의 동기, 준비, 교육과 정보수집에 대하여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귀농 이후에도 지역내의 귀농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귀농자들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귀농자들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 요구하는 교육내용과 정보에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귀농 이후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 할 수 있는 정책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3) 귀농교육에 있어서도 귀농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기간과 내용 등에 대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선정작목에 따라 농한기와 관심분야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교육내용을 가지고 같은 기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4) 귀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이 좀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그 분야의 전문가나 정책을 담당하는 강사의 교육 이외에 귀농에 성공한 선진농가의 교육을 통하여 귀농자들이 동질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대화창구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한 귀농자의 경험을 통한 교육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5) 귀농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귀농을 증진시키기 위한 좀 더 많은 조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 단위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자료의 관리와 현황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의 연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귀농자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의 관리와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보다 효율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편집순서 4

SUMMARY

Program Development for supporting U-turn Farmers in Rural Settlement

The purposes for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problems of U-turn farmers and to suggest needs for developing short and long term educational programs. Specific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1) to survey the motives, preparation, education and information for U-turn farmers, 2) to investigate difficulties and problems in the system, 3) to identify the reasons for success and failure in U-turn farming, and 4) to explore more effective program for U-turn farmers.

To identify status, problems and educational needs of U-turn farmers a survey form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and distributed to a panel of judges that examined the content validity of the instrument. The instrument contained seven demographic items, 16 items on economic, technical and socio-cultural implementations of U-turn farmers in getting established in farming.

Data were collected from 526 U-turn farmers through out the country. After data cleaning, 494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SPSSWIN program was used in analyzing the data, and a series of statistical tests were conducted including frequency percentile and paired t-te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05.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U-turn farmers surveyed were; (1) previous job before U-turn farming as salaried employees (38.1%) and self employed (35.6%), (2) educational level of high school graduation(46.0%) and four-year college/university graduation(25.1%), (3) no previous farming experience (59.4%), and (4) the major motives for U-turn farming as for the sake of better life (19.1%) and as failure of urban entrepreneurship(17.5%).

2) Difficulties and problems of U-turn farmers surveyed were; (1) securing fund for farming (30.5%) (2) securing the land and animal(16.3%), and inadequate farming skills and experience(15.3%).

3) Major knowledge and skill source for U-turn farming were; (1) agricultural technology extension center (23.8%), nearby farmers (22.0%), (3) education for U-turn farming (19.3%), and specialized books(13.8%).

4) The results of self evaluation by the U-turn farmers surveyed 11.8% responded as successful, while 56.3% reported not successful and 32.0% responded as 'do not know yet'/ 'too early to tell'. Major reasons for success in U-turn farming were; (1) selecting an appropriate crops or animals(13.4%), farming skills (7.9%), and marketing techniques (3.5%). According to the U-turn farmers surveyed, selecting an appropriate crops or animals meant the kinds of crops or animals relatively less affected by price fluctuations, thus stabilized agricultural price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successful U-turn farming.

5) Major reasons for failure in U-turn farming were; (1) inadequate fund for farming (28.5%), unstable price of agricultural products(15.3%), inadequate farming skills and experiences (14.7%), inadequate farm land (13.0%) and Inadequate farming hands(12.8%).

6) Selection of educators, institution, curricular, timing and duration, contents of educational programs for U-turn farming were surveyed, and general tendency for satisfaction levels were about 46.3% for the educators, 33.2% for timing and duration, and 28.3% for contents of educational programs, thus meaning that there were room for further improvement.

7) The areas of additional educational needs of U-turn farmers were; (1) specialty crops including mushrooms (21.0%)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17.3%) and pomology (10.4%). Desirable educators for U-turn farming education were (1) Experts in theory & practice (46.5%), subject matter specialists (33.2%) and successful U-turn farmers (10.4%)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recommend to further development of U-turn farming programs;

1) To facilitate and expand continually survey the motives, preparation, education and information for U-turn farmers,

2) To strengthening the sense of investigation to find difficulties and problems in U-turn farming to develop appropriate policies and educational programs.

3) To establish and reinforce a policy that insures to identify the reasons for success and failure in U-turn farming,

4) For more effective education for U-turn farming, selection of educators, institution, curricular, timing and duration, practical contents should be considered.

5) To improve further development of U-turn farming to explore more effective program for U-turn farmers more research activities should be encouraged.

편집순서 5

CONTENTS

List of Tables
List of Figures

Chapter 1. Introduction
1. The Problem & Significance of the Study
2. Objectives of the Study
3. Methods of the Study
4. The Survey Instrument
5. Data Analysis

Chapter 2 Review of the Literature
1. Definition of U-turn Farmer
2. Process of Farm Settlement
3. Stage of Preparation for U-turn Farming

Chapter 3.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U-turn Farming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U-turn Farmers
2. Preparation for U-turn Farming

Chapter 4. Analysis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for U-turn Farmers
1. General Status of U-turn Farmers
2. Education and Information for U-turn Farmers
3. Financial Support for U-turn Farmers

Chapter 5. Program Development for U-turn Farmers

1. Analysis of Survey and Review
2. Analysis of Government Supporting Policy
3. Alternatives For Government Policy and Education & Information
4. Program Development for U-turn Farmers

Chapter 6. Summary and Conclusions
1. Summary
2. Conclusions & Recommendations

Bibliography
Appendix

<목 차>

제 1 장 서 론 14
제 1 절 문제의 제기 14
제 2 절 연구의 목적 16
제 3 절 연구방법 17
제 4 절 조사도구 및 내용 17
제 5 절 자료의 분석 및 통계처리 18
제 6 절 용어 정의 18
제 2 장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19
제 1 절 귀농인의 정의 19
제 2 절 영농정착 과정 21
제 3 절 귀농 준비 단계 25
제 4 절 귀농 적응 단계 30
제 5 절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34
제 6 절 일본의 귀농 지원책 48
제 3 장 귀농실태 분석 53
제 1 절 조사대상 귀농자의 일반적 특성 53
제 2 절 조사대상 귀농자의 귀농준비 56
제 4 장 귀농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분석 88
제 1 절 귀농에 대한 일반적 현황 88
제 2 절 귀농자들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실태 91
제 3 절 귀농자들에 대한 재정지원실태 92
제 5 장 귀농자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94
제 1 절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정보 94
제 2 절 귀농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따른 113
제 4절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122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25
제 1 절 요 약 125
제 2 절 제 언 126
참 고 문 헌 128
부 록 131

<표 차 례>

<표1-1>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 17
<표2-1> 귀농경로 19
<표2-2> 이은죽이 사용한 변인 35
<표2-3> 최진호가 사용한 변인 36
<표2-4> 변용찬 외 3인이 사용한 변인 37
<표2-5> 민상기가 사용한 변인 38
<표2-6> 이동하가 사용한 변인 39
<표2-7> 이정관, 배성의 외 2인이 사용한 변인 40
<표2-8>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 방안 42
<표2-9> 귀농단계별 지식적·기술적 교육요구 47
<표2-10> 귀농자가 가장 어려웠던 일 48
<표2-11> 일본의 신규귀농 지원자금 51
<표3-1> 귀농이전 직업 53
<표3-2> 귀농자의 교육수준 54
<표3-3> 귀농전 영농경험 유무 54
<표3-4> 귀농동기 55
<표3-5> 가족구성원의 부업종사 여부 55
<표3-6> 부업종사 이유 56
<표3-7> 영농기술의 준비 56
<표3-8> 영농자금의 준비 57
<표3-9> 경영마인드 정도 58
<표3-10> 영농정보 파악 정도 58
<표3-11> 귀농교육 정도 59
<표3-12> 작목선정의 신중성 59
<표3-13> 농촌생활 적응 가능성 60
<표3-14> 노동력 문제 해결 61
<표3-15> 농지 확보 61
<표3-16> 농기계 수리 능력 62
<표3-17> 농산물 가격 안정성에 대한 신뢰감 62
<표3-18> 귀농 주택확보의 용이함 63
<표3-19> 농기계 확보 63
<표3-20> 영농계획 수립 정도 64
<표3-21> 경영성과 분석 65

<표3-22> 지속적인 농업 종사 의사 65
<표3-23> 귀농 초기 애로사항 66
<표3-24> 귀농 이후 애로사항 67
<표3-25> 귀농 목표 달성에 대한 귀농자 자체 평가 68
<표3-26> 귀농 목표를 달성하게 한 요인 68
<표3-27> 귀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한 요인 69
<표3-28>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69
<표3-29>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유 70
<표3-30> 귀농자금 출처 72
<표3-31> 귀농정책자금 신청여부 72
<표3-32> 귀농정책자금 수령 여부 72
<표3-33> 귀농정책자금 사용처 73
<표3-34> 귀농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이유 74
<표3-35> 자금의 사용내역 74
<표3-36>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 방법 75
<표3-37> 농산물을 주로 출하하는 곳 76
<표3-38> 영농 지식과 기술을 주로 획득하는 곳 76
<표3-39>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분야 77
<표3-40> 귀농교육을 받은 기관 77
<표3-41> 귀농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 78
<표3-42> 귀농교육 강사 선정의 적절성 78
<표3-43> 강사는 이해하기 쉽게 강의한다 79
<표3-44> 강사는 강의를 성의껏 준비해 온다 79
<표3-45> 교육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다 80
<표3-46> 교육시기 및 기간은 적절하다 80
<표3-47> 교육내용이 실용적이다 81
<표3-48> 교육내용은 매우 적절하다 81
<표3-49> 추가로 영농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분야 82
<표3-50> 귀농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바라는 기관 83
<표3-51> 귀농교육을 받고 싶은 대상 83
<표3-52> 귀농 당시 작목 선정 기준 84
<표3-53> 현재 재배하는 작목 선정기준 84
<표3-54> 현재 재배하는 작목의 계속 재배 여부 85
<표3-55> 현재 영농규모 85
<표3-56> 영농 규모를 늘리고 싶은 분야 86

<표3-57> 귀농자의 영농정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87
<표4-1> 1990-1996년도 전국 귀농 가구수 88
<표4-2> 1990-1996년도 지역별 귀농가구수 88
<표4-3> 1990-1996 전국귀농자의 귀농전 직업별 현황 89
<표4-4> 1990-1996 전국 귀농자들의 귀농후 종사분야 89
<표4-5> 1997-1999 귀농인의 종사분야와 연령층 90
<표4-6> 전라북도 귀농인의 귀농동기 91
<표4-7> 시·도별 귀농대책 추진실적(1999.1.1- 12.31)(단위 : 명, 백만원)91
<표4-8> 농촌진흥청이 분석한 귀농상담내용(1998.1-1998.9) 92
<표4-9> 시·군별 귀농영농창업자금 집행실적(1999. 12월 31일 기준) 93
<표5-1>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행 프로그램 및 정보94
<표5-2> 귀농자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따른 113
<표5-3> 귀농자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116

<그 림 차 례>

<그림2-1> 귀농과정 22
<그림2-2> 귀농 적응의 2단계 과정 24
<그림2-3> 일본의 귀농자에 대한 각 기관의 단계별 지원 현황 49
<그림5-1>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절차도 104
<그림5-2>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12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외환위기시대를 맞이하여 경기 불황 등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실업의 위기에 처한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유(U)턴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귀농을 희망하는 잠재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90년 이후 '98년 4월 말까지 귀농가구수는 모두 9,881가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천가구 정도가 귀농하고 있다. 특히 IMF의 영향으로 불황의 찬바람이 몰아친 '97년 하반기부터는 젊은 청장년을 비롯한 도시인들의 귀농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98년에는 1월에서 4월까지 2,713 농가가 귀농하여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인구는 점점 더 가속화되리라고 본다. 연령층을 보면 40세 미만이 전체의 49.9%가 되고 있어 이는 농업분야에 창의적인 경영능력을 제공하는 인적자원으로 큰 활력소를 불어넣은 결과가 되기도 한다(박영일, 1998).

이러한 귀농인구의 급증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은 3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실업자가 급증하게 될 전망이므로 도시의 실직자들이 귀농을 할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둘째는 영농의 규모화·전업화를 위하여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기존의 농업인들과 경쟁관계가 될 귀농인구를 환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셋째는 교육수준이 높고 젊고 유능한 귀농인구의 정착지원은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노령화, 부녀화 추세가 지속되어온 농업인력의 질적 향상과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기여한다는 절충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서규선·박덕병, 1997). 어느 입장이 옳은지는 논외로 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귀농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귀농자들이 빨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하여서는 귀농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귀농자들은 대부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설계없이 무작정 귀농한 경우여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데는 영농기반과 영농자본금 부족, 경영, 기술능력 부족 등 많은 애로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 귀농자 특별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경상남도, 1998), 이 지원은 귀농자가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귀농자가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 영농기술, 노동

력 등 영농능력이 고려되고 동시에 이에 대한 농업소득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 영농창업 투자자금의 규모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따라 어느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고 또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그 영농유형의 모델은 각기 여러 가지 대안이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가상적인 투자모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귀농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박영일, 1998).

또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정보를 파악하고 요구에 맞는 정보와 교육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귀농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귀농자들의 요구가 다양하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저마다 필요성에 의해 여러 형태의 귀농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귀농자들의 교육요구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단기 귀농자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귀농하겠다는 결정을 한 귀농자들이 농촌에 잘 적응하고 농촌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젊은 활력소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귀농자들이 겪게 되는 즉 귀농 전, 귀농 시, 귀농 후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후에 귀농을 결심하는 귀농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교육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는 데에도 필요한 것이므로 귀농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은 누구에게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적성, 영농종사 여건, 그리고 농업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환상적이고 무모한 귀농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귀농교육은 귀농의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 생활에 익숙해왔던 사람이 농촌·농촌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므로 이왕에 귀농한 경우라면 적응능력을 가급적 조기에 배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서규선·박덕병, 1997).

그러나, 귀농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귀농자들을 위한 영농지원 프로그램이 일부기관 및 단체들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귀농자들의 실태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귀농과정에 대한 분석 및 농촌정착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며,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이미 귀농한 영농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성공적인 영농을 위한 지원 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귀농이 생계수단으로서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농산업(agribusiness)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투입자금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투입되는 자원 즉, 자기자본이나 부채는 얼마만큼의 생산의 효과를 나타내 농업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가가 주요 경영지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일정규모의 영농창업 투자금액에 따라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고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농업경영모델을 제시하여, 귀농자로 하여금 귀농경영모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귀농정착비용 산출과 농업소득을 부각시켜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박영일, 1998).

따라서 귀농자들의 귀농동기와 귀농준비정도, 원하는 정보와 교육수준, 귀농정착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교육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귀농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영농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정착과정에서 생겨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타 산업 종사경험을 농업분야에 활용하여 지역농업개발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최근에 귀농한 농업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귀농단계별로 가장 어려웠던 사항을 알아보고, 귀농시에 참고해야 할 일반적인 절차, 필요한 영농창업비용, 예상지참금액에 따른 영농설계모델, 귀농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귀농이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한 어려움의 해소에 필요로 했던 정보나 교육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귀농자의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귀농자들의 귀농동기, 귀농준비정도, 필요로 하는 교육과 정보를 파악하고,
2. 귀농자들이 귀농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제도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3. 귀농자들의 성공여부와 그 원인을 파악하여,
4. 귀농자들이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색하였다.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귀농현황 관련자료 및 문헌을 고찰하였다. 문헌고찰과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조사도구를 작성하고 이 조사도구로 전국에 있는 귀농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200장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된 526부 중에서 응답자의 실수 및 기타 이유로 분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설문지 32부를 제외한 494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각 도별로 5인을 선정하여 총 45명을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귀농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1>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

배포매수	회 수		분 석	
	회수매수	회수율	분석매수	분석율
1200	526	44.0 %	494	94.0 %

제 4 절 조사도구 및 내용

관련 문헌 고찰과 선행연구의 조사도구를 참조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조사도구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조사도구를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귀농자 교육시 참석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귀농자들은 일부 문항은 조사도구에 표시하게 하였으며 보다 심층적인 자료의 수집이 요구되는 경제적 특성 등은 서술식 기술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귀농자의 영농현황 및 실태 분석은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는 3개 영역 5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영역은 귀농자의 일반적 현황에 관한 것으로 문항은 7개이다.

2영역은 귀농 단계를 귀농 준비단계, 귀농 실행단계 현재(영농 시행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였고, 각 단계로 이들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측면에 관한 문항으로 16개이다. 세부문항으로는 먼저, 귀농자들의 경제적 측면

에 있어서는 단계별 귀농 자금원 및 확보 정도, 농지확보여부, 농기계 구입 및 수리의 용이성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귀농자들의 경영·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는 영농 기술적인 준비도, 경영마인드정도, 영농정보 파악정도, 충분한 귀농교육, 농산물가격의 안정성 등을 파악하였다. 셋째, 귀농자들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농촌생활에의 적응 정도, 노동력 문제 해결, 농촌생활 적응 가능성, 지속적 영농 종사의 의사 등을 조사하였다.

제 5 절 자료의 분석 및 통계처리

이 연구에서는 귀농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귀농동기 및 배경, 귀농자의 영농정착 유형, 귀농자들의 영농실태, 귀농자들의 영농정착 과정 및 문제점들의 각 항목을 연령별, 학력별, 귀농 시기별, 영농규모별, 주 영농종사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적 기법으로 SPSSWIN을 활용하여 빈도수,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제 6 절 용어 정의

귀농자(歸農者): 도시생활을 하다가 실직이나, 조기퇴직, 가족구성원의 건강문제 또는 도시로부터의 추출요인(pushers)에 의하여 농촌으로 귀농하는 자

제 2 장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귀농인의 정의

박영일(1998)은 농촌출신으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자를 U-Turn 귀농자로 정의하였고, 도시출신 또는 재촌(在村) 비농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자를 취농자(取農者)라 하였다.

김형용(1998)은 귀농자를 과거에 농업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출했다가 다시 농촌에 돌아와 영농을 하는 자 또는 과거 영농경험이 없는 도시인이 농촌으로 가서 영농을 새로이 시작한 자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도시는 농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써, 과거에 도시에 살면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다가 이를 그만두고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겨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박영일(1998)은 정부지원 대상자로서의 귀농인을 개념상 구분하는 것보다는 "귀농단계별로 귀농의지, 준비상태, 영농능력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였다.

농촌진흥청(1998)은 <표2-1>과와 같이 귀농의 경로를 거친다고 하였다.

<표2-1> 귀농경로

구분	농촌→도시→고향농촌	농촌→도시→타향농촌	도시→농촌	이동없음	기타	합계
가구수(호)	205	50	99	6	6	366
구성비(%)	56.0	13.7	27.0	1.6	1.6	100.0

출처: 농촌진흥청, 1998.

귀농자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은 U턴 귀농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향인 농촌에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에 다시 고향농촌으로 되돌아 온 귀농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도 부모와 뜻이 맞지 않거나, 농촌총각 결혼곤란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시 취업생활을 하다가 부모의 농업은퇴 또는 결혼에 성공한 후에 고향으로 귀농하는 계획적인 U턴 귀농자가 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고향농촌을 떠나 도시 생활에 정착한 후에 실직이나 조

기퇴직, 가족 구성원의 건강문제 또는 도시로부터의 추출요인(pushers)에 의하여 고향농촌으로 귀농하는 추출된 U턴 귀농자도 있을 수 있다(서규선·박덕병, 1997).

일본에서도 U-턴 청년이 1993년까지 매년 3만명이내였으나, 1995년과 1996년은 각각 46천명, 49천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일본은 신규취농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1997년부터 전국 6개 지구에 취농준비학교를 설립하여 장래 농업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원하고 있다(농림통계협회, 1997).

그리고 U턴 귀농자와 비교되는 귀농자 유형으로 I턴 귀농자와 J턴 귀농자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I턴 귀농자는 처음부터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취업생활을 영위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자를 말하고, J턴 귀농자는 U턴 귀농자와는 달리 고향인 농촌으로 귀농하지 않고 연고가 없는 타지역의 농촌으로 귀농하는 귀농자를 말한다. 이러한 귀농지역과 귀농자의 연고성에 의한 3가지의 귀농자 유형을 가지고는 귀농동기와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육요구를 유추하거나 도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도시로부터의 추출요인(pusher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이농인구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농촌의 잠재실업, 영농의 영세구조, 과중한 농업노동과 낮은 노동생산성 등을 농촌으로부터의 추출요인으로 개념화한 것과 같이 도시에서의 소음, 탁한 공기, 오염된 식수, 높은 범죄율, 학교내의 폭력, 물가고, 주택난, 조직생활의 스트레스 등을 도시인구를 농촌으로 이주케 하는 추출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농촌에서의 향도이촌인구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도시의 흡인요인(attractive elements)으로 다양한 취업기회, 편리한 주거시설, 대학·병원 등의 교육 의료혜택의 양과 질 향상 등이 지적되었듯이 도시인구의 향농이도(向農移都)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농촌의 흡인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도시로부터 추출요인과 대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데 맑은 공기, 낮은 범죄율, 조용한 전원생활, 좋아진 생활여건, 영농의 기계화·과학화 등이 농촌의 흡인용인이 되는 것이다(서규선·박덕병, 1997).

이러한 추출요인 및 흡인요인에 연계시켜서 Roseman(1981)은 도시인구의 농촌이주자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 바 있는데, 첫째로 쾌적환경 추구 이주자(amenity mover)를 들고 있다. 이러한 이주자는 농업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쾌적하고 경치가 수려한 곳에 저택을 마련하여 도시를 너나들면서 전원생활을 즐기거나 필요로 하는 호화 생활가능자, 문필가, 예술가 등이 주로 해당된다고 하였다. 기리고 두 번째로는 조기 퇴직 이주자(early retire mover)를 들고 있는데, 이들은 부호도 저소득층도 아닌 40~50대 화이트 칼라(white collar) 계층으로 퇴직금의 재투자나 연금에 의한 합리적인 노후 생활 등을 목적으로 이

주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로 유형은 실지 이주자(job seeker)인데, 이들은 조기 퇴직자와는 달리 재투자할 만큼 재정적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실직이 되어 농장 인부 등의 취업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라고 보았으며, 네 번째 유형인 대안문화 추구자(counter cultureres)는 일종의 도시문화에 대한 대항운동이나, 환경운동, 집시(hippie)생활 차원에서 소집단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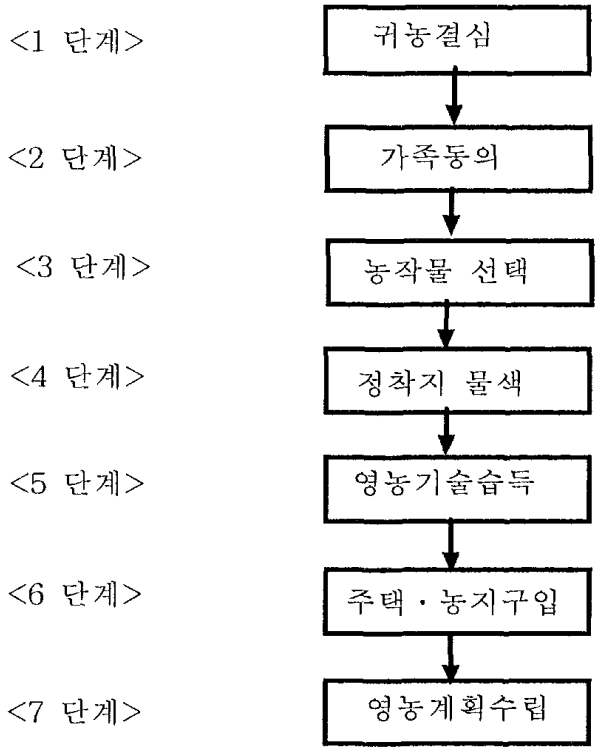
정하석 외 4인(1998)은 40세 이하 청·장년층의 귀농현상이 현저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규모화와 전문화에 상반된다는 기존 농업인들의 시각이 있는 반면 귀농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에서는 환경보전측면 등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 속에서도 귀농자의 정착을 위하여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귀농자 유형은 교육프로그램개발에 매우 시사하는바가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귀농자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러한 유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록환(1998)은 귀농가구의 생활실태조사 연구를 통하여 귀농자의 귀농동기를 파악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첫째, 농촌생활이 좋아서, 둘째, 자신·가족 건강을 위해서, 셋째, 농업에 대한 전망을 가진 경우, 넷째, 도시에서의 저소득을 피해서, 다섯째, 정년 및 퇴직 후 전원생활을 위해서로 나타났으며, 이밖에도, 부모의 영농승계와 사업실패 또는 실직을 당해서와 같은 것도 귀농동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영농정착 과정

영농정착은 영농인이 농장운영에서 전적인 혹은 부분적인 책임을 갖고 있을 때를 일컫는다. 그 형태로서는 ① 농장을 운영하여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② 농장을 관리 운영하는 소작인, ③ 농장경영관리인, ④ 이상의 모든 형태에 속한다(박영일, 1998).

영농정착 과정이란 도시인 등으로서 농업의 특성을 알고 검토·분석·탐색을 하여 본 후 계속적인 관심속에서 영농정착을 위하여 준비하고 토지, 자본 등을 투자, 영농에 정착하여 자립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연속된 과정을 말한다. 신규창업을 위한 귀농자들이 귀농할 경우에는 <그림 2-1>과 같은 7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2-1> 귀농과정
출처: 매일경제신문 '98. 2. 21.

경제적 불경기로 인해 실업자의 돌파구로 농촌으로 돌아갈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귀농이 제2의 직업선택인만큼 영농에 정착하려고 하는 것은 잠재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 직업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적성, 직업에 대한 흥미, 성격상의 특성, 부모부양, 경제적 상황, 신체적 장애 여부 등과 직업만족도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Tolbert, 1974; 박영일, 1998 재인용).

이밖에도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환경과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가정환경에서는 1)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성장한 사람,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학교를 다닌 사람, 3) 농장에나 농가에서 성장한 사람, 4)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소작을 하지 않는 사람, 5) 소농보다는 중・대농가의 자녀인 사람, 6) 농장경영을 잘하는 가정의 자녀인 사람, 7) 형제수가 적은 사람, 8) 장남인 사람, 9) 부모가 자녀의 영농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등이 유리하고, 이와 같이 농촌을 기반으로 한 생활자나 혹은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자들이 영농에 정착하거나 혹은 귀농을 하게 되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서는 1) 농업인으로서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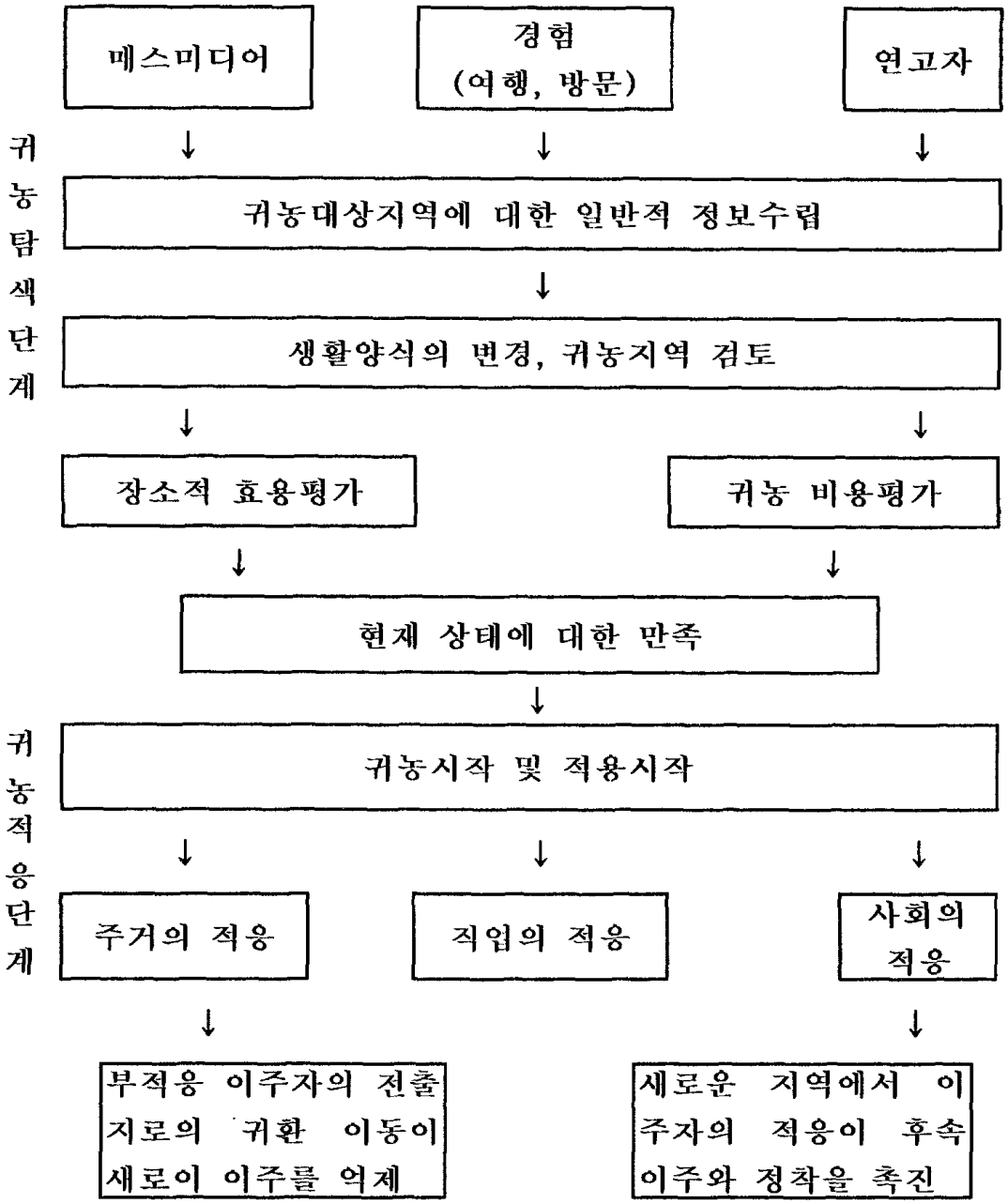
적 바탕이 된 사람, 2) 영농정착에 신념을 가진 사람, 3) 영농유경험자, 4) 기본적인 농업교육을 이수한 사람, 5) 영농과제를 평균 이상(성공적으로) 이수하여 돈을 번 경험이 있는 사람, 6) 농업과 관련된 단체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 7) 가정의 영농을 많이 도와 준 사람, 8) 고등학교 재학시 이미 영농에서 상당한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 등이 유리하다. 귀농자도 농업이 과학산업인 만큼 농업에 대한 적성이나 취미 흥미를 가져야만 영농생활을 원만히 할 것이다.

또한 귀농은 일종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과정이다. 여기에도 귀농탐색, 귀농의사결정, 귀농준비, 귀농시행, 귀농적응 및 유지발전 등의 직업발달과정을 겪을 것으로 믿어진다. 직업발달과정에 관한 이론에는 Ginzberg이론, Super이론, Tideman과 O'Hara 이론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서규선·이무근, 1984).

직업선택이론은 개인의 적성, 취미, 개인차 등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고, 직업마다 요구되는 제요인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의 직업을 선택하여 진출하여야 잘 적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사 결정과정을 중시한 이론이라면 직업 발달이론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과 마찬가지로, 직업에 대한 적응과정도 환상적 단계, 탐색적 단계, 현실적 선택 및 준비단계, 시행 및 유지발전단계, 쇠퇴 또는 은퇴단계 등으로 발전과정을 밟는다는 것을 전체로 하여 각 단계별로 적합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직업사회의 적응이 원만해진다는 이론이다.

또한 이주자들은 이입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 즉, 지식, 기술, 정보, 농촌경험, 재산 등이 부족할수록 이주과정에서부터 이입지 정착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은 크게 이주과정에서의 노력과 이주 후 정착과정에서의 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배성의 외 2인, 1998)

귀농은 또한 인구의 이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Moore(1971)는 인구이동과정을 잠재적 이동성, 탐색과 평가, 적응 등 3단계 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고, Fielding(1974)은 이주 과정을 이주 동기의 형성, 이주 의사결정, 이주 실행까지의 이주 탐색단계와 이입지에서의 정착 및 적응이라는 이주 적응단계로 나누면서, 특히 이주자가 이입지에서의 주거, 직업, 사회적 욕구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귀환 이동을 하거나 재이주를 할 수도 있으며, 만일 적응이 성공적이면 다른 사람들의 이주를 돕거나 자극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림 2-2>는 Fielding(1974)의 자료를 귀농탐색의 단계와 귀농 적응단계로 수정한 것이다.



<그림2-2> 귀농 적응의 2단계 과정

출처: Fielding, C.J., 1974, Geography as Social Sc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p. 215.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보면, 귀농자의 귀농과정은 귀농 탐색단계, 귀농 준비단계, 귀농시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보다 복잡한 귀농과정으로는 귀농탐색, 귀농의사결정, 귀농준비, 귀농시행 및 적응 등 4단계 이상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귀농단계 마다 필요로 하는 정보의 종류와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서규선 · 박덕병, 1997).

제 3 절 귀농 준비 단계

1. 귀농 탐색

예전의 귀농취지는 도시 생활자 중 은퇴 직업인으로써 노후대책과 전원생활을 동경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그 취지를 두고 있었으나, 1996년 이후부터는 귀농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투자 정책으로 농업환경이 개선되면서, 농업의 성장 가능성이 가시화되었고, 특히 IMF관리 체제하에서 도시인들이 겪고 있는 실업문제를 귀농으로 그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도가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다(박영일, 1998).

도시를 떠나 시골로 되돌아가는 귀농인구가 IMF 한파속에서 급증하였으나, 철저한 귀농 준비없는 현실도피성 귀농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철저한 사전조사나 치밀한 준비가 귀농을 성공으로 이끄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농의 열풍이 강하게 불면서 '시골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농촌을 제2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 내려갈 계획을 세우며, 귀농관련 정보를 찾게된다.

이에 대해 귀농관련 단체는 귀농은 단순히 직업을 바꾼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삶의 양시글 바꾼다는 사고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강좌를 듣거나 귀농에 앞서 농촌에 일시 정착, 농촌의 실상을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www.kukninilbo.co.kr, 1998-09-17).

이러한 정보의 양과 출처는 개인 또는 기구가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형태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Findley, 1977), 정보의 수집은 주로 과거의 거주지 이동의 경험이나 가족 관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며, 교육 수준 또한 중요하다. 교육 수준은 이주 대상지역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비용에 대한 인지 능력과 관계되며, 정보 전달 매체에 대한 접근도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김정연, 1987).

귀농자들은 귀농에 앞서 농지구입, 농작물 선정, 투자자본 확보, 귀농대상

지 선정,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농작물의 특성이나 판매전망, 선택 시 위험 등에 따른 판단에 도움을 줄만한 정보등을 찾게된다. 그러므로 귀농인에게 좀더 도움을 줄만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영농은 과거처럼 단순 작업이 아닌 오랜 영농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과학 영농방식으로 경영되고, 작물에 따라서는 상당한 자본투입이 요구되는 기업형 농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귀농자들은 확고한 목적의식과 영농기술 습득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Graves(1974)는 많은 사람들이 이입지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그 지역에 연구자(가까운 친척, 친구, 이웃 등)가 있는가의 여부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주자가 이입지 생활에 필요한 물리적, 정신적 도움을 이들 연고자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유리성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 이주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먼저 이주하여 이입지에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김창석(1986)은 장소 효용 접근 방법의 이론 체계 하에서 이주 대상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의 객관적인 매력도 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인지된 매력도'를 검증한 결과 인구 이동 의사 결정은 주관적인 매력도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 후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자인 경우에는 이미 거주지 이동을 한번 이상 경험한 관계로 이주와 관계된 제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도착지가 출생지인 관계로 그 지역에 과거의 거주경험과 아울러, 그 지역에 계속 남아 거주하고 있는 친척, 친구 등과의 접촉에서 출생지에 대한 정보가 타지역보다 월등히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출생지역으로 이동하는 귀농자에게는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적응력 문제와 아울러 이러한 정보의 영향을 받아 귀농 이동을 하게 되며, 이 때 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기대감의 충족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정연, 1987).

한편, 출생지에 계속해서 부모나 친척, 친구 등이 거주하고 있으면, 그 출생지는 도시 거주자에게 있어서 거주지 자산(location specific capital)을 보유하게 된다(Davanzo, 1981). 여기서 말하는 거주지 자산이란 개인을 그 지역에 묶어 둘 수 있는 요인들을 지칭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그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비하면 보다 가치 있는 무형 혹은 유형

의 자산을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지역사회와의 관계, 친구, 친척 등과 관계, 그 지역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명망, 사업상 이득 등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이 이동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지역에 투자한 자산을 포기해야 됨을 의미하며 새로운 지역에서 이러한 자산을 형성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적응정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출생지로 귀농하는 경우 본인 뿐 아니라 부모나 조상이 이루어 놓은 무형, 유형의 자산을 귀농함으로써 다시 획득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 생활에서 겪었던 적응 문제를 농촌에 귀농하게 되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쉽게 적응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도시로 이주한 농촌 지역 출생자는 재이주를 결심한 후 이주 지역을 고려할 때 출생지를 이주지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산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도시에서의 적응에 문제가 있는 계층은 거주지를 변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새로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출생지에 남겨져 있던 유형·무형의 자산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도시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면 길수록 도시 지역에 상기한 유형, 무형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므로 농촌으로의 귀농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를 두고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를 두고 막연한 기대감만을 가진 채 이동하는 경우보다 기대 충족에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도착지에서의 적응성을 높이게 된다.

타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는 계속 이주자의 경우는 경제학적인 요인인 취업, 임금 등에서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또는 행태학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의 상대적 저하에서 출발하여 만족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귀농 이동과 계속 이동은 전(前)거주지에서의 적응 정도는 낮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이동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도착지의 선정에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 방향으로서의 차이를 이동자의 특성, 이유 및 과정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귀농 결정

인구 이동의 요인과 배경으로는 경제적 요인(소득, 비용, 농경지 소유), 인구학적 요인(연령, 성, 결혼, 지위, 가족 구조), 생활 양식적 요인(교육수준,

교육기회, 교통, 통신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쾌적성, 이주 기회), 전입지와 전출지의 특성(사회적, 경제적, 토지이용 구조)등이 있으며, 인구 이동은 이러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다(Findley, 1977).

귀농을 결심한 귀농자들은 귀농단체들로부터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을 소개받고, 수시로 찾아가 대화를 하고 농사일을 배우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작물을 추천받아 휴경지 및 땅을 빌려 1년 정도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택이나 농지는 귀농하려는 지역의 주민들과 친해진 후 매입하는 것이 좋다(www.dongailbo.co.kr, 1998-01-22).

귀농자는 귀농 기회에 대한 인식, 그러한 기회에 대한 평가, 평가에 대한 반응으로 귀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귀농에 관련된 정보와 귀농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귀농 의사 결정의 중요한 개입변수가 된다(이동하, 1998).

잠재적 귀농자들은 귀농 정보의 흐름을 현재의 거주지와 대안적 장소에 대한 효용을 비교·평가함으로써 환경으로부터 오는 긴장(stress)을 해소하기 위해 귀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개인의 인구학적, 교육적, 사회경제적 성격과 심리적 상태가 정보를 평가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며 이동할 것인가 또는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특정의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3. 귀농 실행

귀농자들은 귀농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이주비용[1]과 불확실성에 의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귀농 방식의 선택을 고려하게 되다. 귀농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주 방식은 다음과 같다(Graves, 1974).

가. 연결이주(chain migration)와 단독 이주(independent migration)

이주할 경우 이동 비용에서부터 주거지 확보, 구직에 드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고향을 떠나 낯선 지역으로 이주하게 됨으로 심리적 불안이 생긴다. 이러한 비용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귀농자들은 연결 이주의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연결이주란 이주 과정에서 귀농자가 혼자서 이주를 결정하고 실행하기보다 이미 이입지(destination)에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등과의 접촉을

1) 이주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실제의 이주 비용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 비용(direct money costs)이며, 둘째는 전출지로부터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정규적인 소득을 나타내는 간접적 또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이다. 셋째는 집, 가족, 친구들을 떠남으로써 생기는 불안감,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및 새로운 일상 생활을 설계해야 되는 필요성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비용(psychological costs)이다.

통해서 그 지역의 정보 및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Graves, 1974).

개인적 접촉에 의한 연결 이주가 지배적이게 되는 이유는 친척이나 친구로부터의 정보가 공식적 통로를 통해 획득하는 정보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으니, 귀농자들은 고향에 대한 강한 귀속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향과 도시 사이에 방문, 물품, 편지, 화폐 등의 빈번한 흐름이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향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게 된다.

연결 이주를 탐색함으로써 귀농자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Choldine(1973)은 연결 이주에 의해서 귀농자들이 얻게 될 이익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물질적 도움(material assistances)이다. 이는 귀농자들이 귀농지에 정착해서부터 독립생활을 하기까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도움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도움에는 거주지 제공, 일자리 알선, 생활필수품 제공 등이 있다.

둘째는 매개적 도움(intermediatory help)이다. 여기에서는 귀농자들로 하여금 관습, 지리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정보 제공 활동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접촉의 도움(help in making new social connection)을 들 수 있다. 이는 귀농자들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단독 이주는 연결 이주와 대립되는 현상으로서 귀농자가 이입하려는 지역에 친척, 이웃, 가족 등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없거나 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접촉을 갖지 않은 채 귀농자 단독으로 귀농하는 이주 유형을 말한다.

Graves(1974)에 따르면, 대체로 단독 귀농자는 초기의 귀농 상황에서나 또는 귀농자들이 고의로 아는 사람을 회피하고 혼자서 귀농하려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또한 단독 귀농자들은 '전진하려는 욕구', '위험한 일을 수행하려는 의지', '자기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이성'등의 성향이 강한 적극적 이주자들이기는 하나 연결 이주자들보다는 초기 농촌 생활의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나. 단계 이주(step or stage migration)와 직접 이주(direct migration)

단계 이주란 유사한 환경으로 이주할수록 이입지에서 이주자가 겪게 될 긴장(불안)이 그 만큼 적어진다는 이점 때문에 이주자들은 이출지보다 환경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주 과정을 의미한다 (Graves, 1974).

이주자들은 처음부터 최종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단계 이주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단계이주자들은 이출지에서 하던 일이 좀 호전되거나 부진하다고 느낄 때 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 이주한다. 이러한 반복된 이주로 이주자들은 다른 장소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이입지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초기 농촌 생활에서 오는 긴장을 잘 극복할 수 있다. 단계 이주를 하는 일반적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이주가 편리한 인접 지역으로 이주하는 성향, 둘째, 농촌생활에 필요한 토지나 다른 자원이 부족한 경우, 마지막으로 농촌에 친척, 친구, 이웃 등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단계 이동과 대립되는 현상으로 직접 이주가 있다. 직접 이주란 이주자가 도시로부터 도시 근교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농촌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단계 이주보다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Graves, 1974).

제 4 절 귀농 적응 단계

적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며, 그 요구가 과연 그 환경 속에서 만족되느냐, 만족되지 않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이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부적응 상태에 있게 된다.

귀농지에서의 적응은 궁극적으로 귀농 원인의 해결책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귀농자가 귀농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신적 불안의 극복, 새로운 직업 및 기술의 습득, 주거지의 확보, 농촌의 생활 양식 및 문화 가치의 습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귀농자들은 이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귀농에 따른 적응의 문제는 귀농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이동하, 1998).

Lee & Kim(1980)은 귀농자가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새로 거주지를 옮긴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적응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새로운 지역에서의 적응 정도가 귀농 인구이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귀농은 생활환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기 때문에 귀 농지에서 상당 기간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의 원인에 대해 Elsenstadt(양종회, 1983; 재인용)는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귀농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둘째, 귀농자의 결과가 귀농자의 일시적 사회 참여의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불안정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귀농자의 역할 기대와 귀농지의 제도화된 규범을 상호 적응시킴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데, 이는 귀농자의 행동 및 사회 관계의 전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초래한다. 한편 이와 같은 변화과정에서의 여러 형태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귀농자의 현지 적응과정은 이러한 긴장의 해결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귀농 후 귀농지에서의 적응 정도는 귀농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 귀농 의사결정 당시의 과정, 실제 귀농 과정 그리고 귀농 후의 생활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때 귀농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능력, 친척, 친구 등의 일차 집단과의 인간관계, 과거의 이주 경험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약 귀농지에서 적응을 잘하게 되면 구태여 다시 이주를 하려고 결심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귀농자는 도시 지역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했던 계층 중에서 높을 것이 예상되며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고, 경제기반이 취약한 계층에서 적응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귀농자들은 귀농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귀농 후 귀농지에서의 정착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적응 노력을 한다. 이러한 적응 노력에도 거주 지역의 선택, 다양한 소득 원천의 추구, 소비 욕구의 축소, 비공식 조직에의 참여 등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유지, 농촌 생활에 실패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재이동도 포함된다.

1. 생태적 적응

귀농자의 주거 확보 및 주거 이동은 직업이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농촌 생활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귀농자들의 거주지역의 선택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귀농자들은 농촌생활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수록 생활비의 절약을 위해 땅값 및 집값이 싼 지역을 주거지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Turner, 1977).

Turner(1977)는 이주자의 정착 과정을 생활거점 확보단계(bridgeheads), 기반구축(consolidator),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단계(middle income status seeker)로 구분하고 있다. 생활거점 확보단계에서는 최근에 농촌으로 이주한 무기술, 저소득의 이주자들에게 있어 주택은 참여 거점으로써의 기능이 중시된다. 기반 구축단계에서 이주자들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우라도 합법적인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단계에서 주택은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확보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어 주택의 물리적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임희섭(1979)은 이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정을 생계 문제와 주거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즉, 처음 이주한 단계에서는 판자집, 무허가 주택, 월세 등 주거비용을 최소로 하는 일시적 주거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이후 단순노동 등의 불안정하고 영세한 생업으로 일시적 생계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영업을 하거나 가구주 또는 자녀가 안정된 직장을 구함으로써 영구적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영구적 주택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주자들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동안 친척집에 거주하며, 또한 주택을 구입하는데도 친척이나 친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다(박재규, 1985).

이주자들이 친구나 친척의 주변에 자리를 잡는 것은 직업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절박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상기(1995)는 농촌 정착 상태를 생업 및 주거문제 해결, 생업 문제만 해결, 주거 문제만 해결, 생업 및 주거문제 미해결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빈곤한 이주자들을 위한 주택 개발은 미진한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은 주택의 구매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나친 과잉인구로 인하여 주택개발이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있다. 그래서 이주자들은 남의 땅에 불법으로 집을 짓거나,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친척, 친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이주자들은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빈터나 판자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이들 주변에 주거지를 잡는다.

2. 직업적 적응

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있어 농업은 사양산업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일터이며, 농촌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희망의 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 수입개방화 시대에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독특한 우리 농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도시민 중 젊은 층의 귀농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Todaro(1969)는 농촌 노동력이 도시의 비공식 부문에 먼저이동하고 그곳에서 도시체계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근대적인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함으로써 취업기회를 포착하여 공식부문에 취업할 수 있으며, 비공식부문은 공식부문으로의 진입을 기다리는 일시적인 유계지(holding ground)이며, 이농인구는 여기서 낮은 비용으로 직업 훈련을 받게 됨으로써 소득창출과 직업탐색, 기술습득을 동시에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귀농자들의 경우에는 비공식부문에 있다가 공식부문으로 진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바로 농업을 시작함으로 인해

직업훈련 및 기술습득에 지불되는 비용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귀농 초기에는 직업과 수익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들은 가구원들 중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약간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소득 극대화 방안에 의해 가구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또 점차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득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Salih, 1981). 또한 초기에 일반적인 귀농자들은 주거비, 음식료비, 의료비 절감을 통한 소비 극소화 생활방안을 유지한다. 처음에는 그들의 저소득 수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매량을 줄이고, 소비욕구를 축소시키며, 낮은 영양 수준과 빈약한 보건 상황을 극복해 내게 된다(McGee, 1984).

귀농자들이 도시에서 가졌던 직업과 귀농지에서 하게 되는 농업은 일의 방법이나 형태, 기술 등 많은 부분이 과거 직업과 다른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은 전혀 새로운 직업의 형태이다. 이와 같은 경우 직업적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부적응의 강도가 심해지면 귀환이동을 결정하게 된다. 반면에 과거 농촌 거주 경험이 있거나 농업 종사 경험이 있는 경우, 혹은 농업교육을 받고 귀농한 경우에는 직업적 적응이 훨씬 용이하리라 기대된다(배성의 외 2인, 1998).

McGee(1984)에 따르면, 귀농지에서 귀농자의 직업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귀농자의 교육수준, 재산, 농촌경험뿐만 아니라 먼저 귀농지에서 살고 있는 친척, 친구, 이웃 등 연고자의 도움 등을 들고 있다.

3. 사회적 적응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적응은 인구이동을 촉진하고 방향지워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영구적 주거확보, 취업기회 포착, 기술습득 고용 과정 등에 작용하며, 사회적·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Sjoberg(1969)에 따르면 귀농자들은 그의 귀농을 도와 준 매개자들과 더불어 비공식적 연결망을 형성하며, 귀농자들은 이들로부터 농촌의 생활 방식에 관한 정보를 얻고, 농업에 관한 지식을 제공받으며, 나아가 공식조직에의 접근에 도움을 받게 된다.

Moore(1971)는 귀농자의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귀농자들이 귀농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정신적 불안과 직업 및 기술의 습득, 주거지의 확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귀농자의 경우 가족원들 중에서 누가 병이라도 들거나 또는 경제적(금전적)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 이웃,

친구 등과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귀농자의 귀농지에서의 긴장 발생의 원천은 확대 가족, 친척, 이웃, 문화적 환경과의 괴리에서 오는 고독(loneliness)으로 지적하면서, 이러한 긴장의 극복은 이출지와의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킴과 동시에 귀농지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이 효과적임을 지적하고 있다(Melville, 1978).

이처럼 친척의 존재나 도움이 갓 귀농한 사람들의 긴급한 기본 필요(basic needs)를 충족시킴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도와주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귀농자는 영농과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동하, 1998).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적응은 귀농인구의 이동을 촉진하고, 귀농방향을 제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주거확보, 취업기회제공, 노동력 확보, 기술습득, 고용과정 등에 작용하며, 사회적,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제 5 절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1. Lee의 비교연구

Lee(1980)는 도시(서울, 광주, 순천)에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동자와 농촌(전남 보성군)에서 농촌 거주 비이동자,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귀환 이동자(return migrants)등을 조사하여 이들 세 그룹을 상호비교하는 방식으로 귀농 인구 이동현상에 대해 접근하였다. 이온죽이 사용한 변인은 <표2-2>와 같다.

<표2-2> 이온죽이 사용한 변인

분류		조사내용
객관적 적응	생태적 적응	① 최초 이주시 이웃의 형태 ② 최초 정착한 이웃에 대한 친숙도 ③ 최초 정착지를 소개해 준 사람 ④ 주거 정착에 소요된 시간 ⑤ 최초 주거의 가옥 소유 형태 ⑥ 이사경력
	직업적 적응	① 안정적 수이불 얻기까지의 시간 ② 농업 정착에 도움을 준 사람 ③ 최초 농업 조사의 형태 ④ 최초 농업의 종류 ⑤ 농업 종류의 전환 횟수
	경제적 적응	① 저축이나 가계수입 ② 부채 ③ 가정용품 소유 ④ 연간 수입
	사회적 적응	① 이주전 주거지 방문 횟수 ② 친척의 수와 접촉 횟수 ③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 정도 ④ 자발적 참여 조직의 수 ⑤ 미디어 접촉 정도
주관적(심리적) 적응		① 이주 추기에 머물고자 하는 계획 ② 농촌으로 이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③ 도시와 농촌 이주지의 친구들에 대한 상대적 친근감 ④ 현재 살고 있는 농촌을 자기 고장이라고 느끼는 정도 ⑤ 농촌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살의 만족 정도 ⑥ 도시 생활과 비교하여 인지되는 생활수준: 경제적/사회적 ⑦ 과거 도시에 살았을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생활환경 ⑧ 장기적으로 농촌을 떠날 계획

2. 최진호의 귀농이동연구

최진호(1984)는 센서스의 원자료 등 광범위한 자료를 이용하여 귀농인구 이동에 대해서 폭넓은 연구를 하였다는 장점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귀농자와 비이농자의 여러 특성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귀농 이동의 내용 파악, 귀농 이동에 결정요인을 분석, 귀농 이동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진호가 사용한 변인을 보면 <표2-3>과 같다.

<표2-3> 최진호가 사용한 변인

구 분			분 석 변 인
배경적 특성			현재 나이, 현재 결혼상태, 학력, 전 직업, 성
이동관련 변인			출발지, 이전의 농업 경험
이동과정			이동시의 나이, 이동 단위(가족/개인), 이동 사유
이동시 도움			친족, 친구, 이입의 채널, 도움의 종류, 이주후 거주
적응변수	물질적 적응	소득	개인 소득, 가구 소득, 소비품 소득
		고용	근대적 부문의 비율, 직업적 지위 및 산업 분포
		주거	주거의 질적 지표, 이웃의 질적 지표, 밀도
	사회적 적응		소속 집단, 방문 대상의 선호, 도움의 원천
	태도 및 만족		전통적 행동과 기회 지표, 이동 희망, 개인적 만족

3. 변용찬 외 3인의 사례분석

변용찬 외 3인(1991)은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촌에서 출생한 후 도시로 거주지를 옮긴 이주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최종 이동 방향이 출생지인 경우에는 농촌 귀환 이동자, 기타 지역인 경우에는 계속 이동자로 분류한 후 이동 형태별로 최초 이동 및 최종 이동 당시의 사회 경제적 특성, 이동 이유, 이동의 과정, 그리고 이주 후 생활을 비교하여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변용찬 외 3인이 사용한 변인을 보면 <표2-4>와 같다.

<표2-4> 변용찬 외 3인이 사용한 변인

구 분	분 석 변 인
이주 전·후 이력	연령, 거주지, 학력, 농업형태, 주거, 주택, 소득액, 결혼
생태적 정착	주소, 지역의 형태, 이주 이유, 지역선택, 이웃 친숙도
농업에의 정착	연소득, 주 영농분야, 영농 애로 사항
사회적 정착	가족, 친척, 친구의 도움, 참여하는 모임, 지역 차별 경험
심리적 정착	농촌 영주 의사, 귀농 만족도, 농촌과 도시친구에 대한 비교, 현재 지역에 대한 애착심, 생활에 대한 만족감
농촌 정착에 가장 어려웠던 사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과제	

4. 민상기의 농촌정착 과정 사례연구

민상기(1995)는 귀농자의 농촌 정착에 관한 사례 연구에서 현재의 농촌 정착 상태를 생업 및 주거 문제해결, 생업 문제만 해결, 주거 문제만 해결, 생업 및 주거 문제 미해결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가족 배경, 이주 배경과 과정, 주거상의 정착 과정, 직업적 정착 과정, 자녀 교육으로 한정하였다. 민상기가 사용한 변인을 보면 <표2-5>과 같다.

<표2-5> 민상기가 사용한 변인

분류		조사내용
배경 특성		출생배경, 결혼, 개인적 변수(나이, 학력, 종교, 건강 등 SES)
귀농전 도시생활		직업상황(직종, 종사 기간, 경력, 영농 경험) 경제 상황(소득, 저축, 부채) 생활 상황(주택 소유, 부동산, 생활 정도) 사회적 관계(친족, 친척, 이웃 관계, 사회적 갈등, 사회 참여 활동)
귀농 결정과 이주		이주 시기, 이주 동기, 이주 결정 방법, 이주의 단위와 형태 이주시 도움, 재산 처분, 이주 경로, 최초 이주지와 선택 이유
농촌 정착	생태적 정착	현재까지의 이주내용(지역, 지역형태, 이주 이유, 소개한 사람), 주거의 질적 지표(소유 형태, 규모, 사용방수, 거주기간 등), 현재의 주거정착(주거의 질적 지표, 현재 가격)
	직업적 정착	현재까지의 직업사(영농 실패 경험, 영농형태, 도움을 준 사람)
	사회적 정착	현재까지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가족, 친척, 친구, 주위의 도움), 모임 조직체의 가입 및 참여

5. 이동하의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 연구

이동하(1998)는 귀농자의 농촌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으로는 개인적 배경 변인과 귀농 준비과정을 선정하였고 종속변인으로는 농촌적응의 각 적응 영역별 주관적 만족정도를 선정하였다. 귀농자의 농촌적응, 영역별 적응 정도는 구체적으로 생태적 적응, 직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관적 적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종속변인을 설정하였다. 이동하가 사용한 변인을 보면 <표2-6>과 같다.

<표2-6> 이동하가 사용한 변인

변인의 분류		분 석 변 인
독립변인	개인 배경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소득변화, 직업, 거주지, 귀농연도
	귀농 탐색	정보 획득원, 귀농지의 친척 여부, 친척 접촉 횟수
	귀농결정	도시거주기간, 귀농이유, 귀농지 선택동기, 귀농반대자
	귀농실행	귀농준비기간, 농업기간, 최초농업종류, 농토확보방법, 주택마련기간, 귀농경로, 귀농단위, 도시가족, 귀농도움
종속변인	생태적 적응	주거만족정도, 농촌영주의사, 농촌에 대한 친밀감 귀농만족정도, 자연환경 만족정도 도시생활과 비교하여 인지되는 생활수준
	직업적 적응	작목선택, 자금조달, 농기계 구입 및 수리 농업종류전환 여부, 영농기술습득
	사회적 적응	이웃에 대한 친숙도, 주위의 평가, 지역차별 정도 미디어 접촉정도, 주위와의 접촉정도, 문화생활 만족도 조직참여정도, 조직의 도움, 자녀교육 만족도

6. 이정관의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변인 연구와 배성의 외 2인의 귀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관(1998)은 농촌을 떠났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변인을 분석하고자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게 된 동기와 배경, 영농정착 과정 및 유형, 그리고 영농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 분석에 필요한 변인을 설정하였다. 배성의 외 2인(1998)은 연구대상지를 충남(보령시, 청양군, 당진군)으로 하였고,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농촌에서 태어나 성장했거나 영농에 종사하다가 도시로 거주지를 옮겨 타 산업에 종사하다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자들 이었다.

이정관(1998)과 배성의 외 2인(1998)이 사용한 변인은 <표2-7>과 같다.

<표2-7> 이정관, 배성의 외 2인이 사용한 변인

분 류	관 련 변 인
개인적 특성	연령, 학력, 귀농년도, 귀농지역, 귀농전 도시 생활 년수
귀농동기 및 배경	귀농이유, 귀농전 직업, 귀농권유 또는 영향을 준 사람, 귀농전 농촌사정 이해정도
영농정착 과정 및 유형	귀농정착 당시 어려웠던 점, 농촌의 불편한 사항, 영농시 애로사항, 영농정착 자금 규모 및 자금마련 방법
영농실태	영농규모, 주 영농분야, 소득수준, 경영성과 분석 형태, 영농기반 마련방법, 부채규모, 부채용도, 향후 진로

7. 정부지원정책 개선방향

'97년 6월 농림부의 귀농인력 영농정착 지원지침을 보면 영농정착 지원 기본방향은 1단계로 체계적인 농업경영, 기술상담 및 교육실시, 2단계는 각종 농림사업지원 실시로써 2단계 내용은 후계자 선정기회부여, 전업농, 각종 경쟁력 제고사업 등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지원, 간척지 분양 등이다. 그러나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U턴 농가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선정 심사 점수에 영농경력 5년 미만의 경우 50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 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따라서 이들이 기존 농가들과의 경쟁에서 대상자로 선정될 기회는 매우 희박하다(농림부, 1998).

다행히도 정부가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특별지원 정책으로 귀농가의 정착을 촉진하고 있는데 정책추진에 있어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농림사업 인력육성 부분에 U-턴(귀)농가의 지원사업 신설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귀농가 경영주들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30-40대의 젊은 층이 대부분이고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다. 또한 영농을 목표로 한 귀농동기가 매우 높으며, 정착에 대한 의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후계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어도 1년 전에 사업신청을 함으로써 그동안 영농현황 파악, 영농기술 습득, 교육 등 영농탐색단계(박정기, 1998)를 거치는 것이 사업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며, 각종 농림사업과 함께 자치

단체 선정심의 위원회를 거침으로서 공정성을 기하고 보다 많은 귀농가들에게 홍보될 수 있으며, 행정력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연령에 따른 차등화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며 학력에 있어서도 농과계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농업을 목적으로 진학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정부 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귀농기간의 고려이다. 현재, 정부 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97년 1월 1일 이후 귀농한 자로 한정되어 있다(농림부, 1998). 그러나 귀농후 정착 최소소요기간을 4-5년으로 본다면 '98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95년 귀농자에게도 기회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향후 귀농지원사업 신청자격은 귀농후 4년 이내로 제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자금지원에 있어 상환기간의 고려다. 현재, 자금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써(농림부, 1998), 귀농가들의 정착 최소소요기간을 4-5년으로 볼 때 이 기간내에 상환은 매우 힘이 들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대출기간 중 거치기간을 최소 4년 정도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북도농촌진흥원(1997)은 전북지역 U턴 농가의 영농정착에 관한 연구에서, U턴 농가에게 자금지원책으로 U턴 농가 영농정착지원 자금 신설하였고, 기술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술교육은 귀농 전, 귀농 시, 귀농 후로 나누어 3단계로 실시하고 있고 귀농 전에는 영농기초교육을 농업진흥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며, 귀농 시에는 영농설계교육을 농업진흥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후에는 사후 지도교육을 실시하며 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는 <표2-8>과 같다.

<표2-8>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 방안

항 목		대 책	주 요 내 용
자금지원		- U턴 농가 영농정착지원 자금 신설	- 연간 자금지원 소요액 400명×35,000천원=14,000백만원 - 자격조건, 재원 등에 따라 지원책 조정 필요 <지원 조건> - 신청자격: 40세미만 귀농자 U턴 농가 교육 이수자 - 지원금액: 1인당 20-50백만원 - 융자조건: 국고융자 100%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기술교육	1단계 (귀농전)	- 영농기초교육실시(진흥원, 지도소)	- 영농기초지식 및 농촌적응 소양교육 - 영농체험, 영농탐색, 현장실습 - 선진농가 견학, 작목별 입문교육
	2단계 (귀농시)	- 영농설계교육실시(진흥원, 지도소)	-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 - 농업경영, 영농설계, 농기계 훈련 - 농업자금관리 및 투자 - 귀농 연수 실습
	3단계 (귀농후)	- 사후 지도교육실시(농촌지도소)	- 방문 및 통신 지도 - 영농설계 실천상담 및 점검 - 생산물 유통정보 제공 - 현장애로 해결 협조 지원 - 정착 영농사례

출처: 전라북도농촌진흥원, 1997, 전북지역 U턴 농가의 영농정착에 관한 연구.

김형용(1998)은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귀농자가 농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할 수 있는 정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귀농대책은 귀농자의 영농경험 부족에 따른 영농실패를 최소화하고, 그들이 단시일내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됨으로써 귀농자의 농촌정착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귀농자에 대한 지원은 올바른 농업관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을 비롯하여 영농기술 습득, 농촌생활의 적응과 영농정보 제공, 그리고 귀농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만을 기대하고 영농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이 무작정 귀농하는 인력에게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재원의 낭비가

됨은 물론 기존 영농인들과의 갈등을 초래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 영농교육 기회의 대폭적인 확대

대다수 귀농자들은 의욕만 가지고 영농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영농기술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이 귀농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작목선택을 단순하게 이웃 농민의 말을 듣고 결정한다던가, 의욕만으로 일시에 많은 투자를 하여 영농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귀농자의 잘못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귀농전 후에 체계적인 귀농안내와 영농교육을 통해서 귀농자가 오늘의 우리 농촌실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영농기술과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2)]를 가급적 많이 열어주어야 한다.

귀농자에 대한 교육은 귀농전·후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되, 귀농전 단계는 올바른 농업관을 심어주는 교육과 농촌과 영농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와 기술, 작목 선정 및 영농설계 요령, 선도농가의 알선 등 농업의 이해와 영농의 기초지식의 이수를 통해서 귀농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귀농후 단계의 교육은 각 작목별 전문 기술교육, 경영관리교육, 현장실습교육 등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후단계의 교육에서보다 중요한일은 앞으로 전문 품목별로 교육과정을 보다 체계화하여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이지 않고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도화하는 일이다.

아울러 귀농자가 영농의 애로사항을 용이하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현재의 귀농 상담창구와는 다른 체제로 개편하여 귀농자 편에서 아무 불편 없이 영농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칭, 귀농지원센터)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 지역별 영농모델의 설정

귀농자가 단시일 내에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적정한 영농모델을 개발하여 영농모델에 따라 기술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일이다. 이것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귀농자교육을 동일한 패턴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영농모델을 개발하여 영농이 지역적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각 지역의 영농모델은 반드시 한가지로만 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유형을 만들어 귀농

2) 현재, 주요 귀농자 교육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도드람양돈연수원(농사문화재단 부설), 경기도 귀농자영농현장교육 등이 있다(자료: 인터넷 농림부 귀농안내 자료)

자가 자율적 의사로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귀농지원센터의 설립

영농생활의 준비에서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귀농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영농기술, 자금지원 등 사항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상담·관리체계로서 "귀농지원센터(가칭)"을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제도적으로 설립할 것을 제의한다. 귀농지원센터를 통해서 귀농자에 대한 자금, 농지, 주택확보 등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귀농자의 월별 실태를 파악하고, 귀농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영농활동 상황, 영농애로 사항, 추가교육 시기 등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영농자금지원 확대

현재 정부에서 귀농자에 대한 창업자금으로 가구당 2천만원 한도(전체 2,000가구)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지원대상 귀농자 수에 비해 지원규모가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이 귀농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영농교육의 이수와 영농기반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귀농자가 실제 창업자금을 지원받는데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고 있어서 귀농자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에 심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의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총액을 보다 확대하여 지원대상자를 증가시키는 한편, 지원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모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자금지원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융자기간을 중장기로 확대하는 문제, 귀농자 영농여건에 따라 융자한도(2,000만원)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문제, 융자수속과 융자조건을 보다 완화하는 문제 등은 자금지원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마. TV, PC통신, 인터넷 등에 의한 영농정보의 개발

바. 경지임대차 및 휴경지 알선

휴경지의 소유자가 부재지주이든 또는 재촌지주를 불문하고 지방정부에서 이 같은 휴경지를 귀농자가 대리경작의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면 귀농촉진과 경지이용도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우리 농촌에는 빈집이나 고령자 농가나 일손이 부족한 농가소유의 과수원, 축사, 하우스시설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영농시설이 적지 않은데, 이 같은 시설물을 귀농자에게 임대로 알선하여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농업생산력 증진과 귀농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업무를 보다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귀농

지원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사. 귀농자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 강화

젊고 유능한 도시인력의 귀농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서 우수 귀농 성공사례를 발굴·수집하여 매스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귀농희망자의 귀농동기 부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올바른 농업관의 확립을 위한 교육내용을 넣어서 어릴때부터 농업에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더 바랄 것이 없다.

아. 귀농정착 특별법 제정

앞서의 여러 정책방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귀농정착 특별법의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귀농지원을 전담할 기구의 설립이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창업자금지원, 홍보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귀농자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농지원시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 생산자조직 가입 알선

귀농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귀농자에게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협 등 농업생산자조직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들 생산자조직에 가입은 귀농자들이 최신 영농기술이나 영농경험 또는 영농정보에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조직에 귀농인들의 가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알선·지도하는 한편, 귀농자를 받아드린 조직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차. 농촌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

1) 문화생활 환경의 개선이다. 우리의 농촌환경은 도시에 비해 문화생활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물론 이런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어촌개발 차원에서 앞으로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항이다.

2) 자녀교육문제의 해결이다. 농민들의 도시이주의 중요한 요인이 자녀의 교육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귀농자의 농촌으로의 회귀 역시 자녀교육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농촌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에 획기적인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농촌출신 학생

에게 장학금 혜택의 폭을 좀 더 넓히고, 대학진학에 특혜의 폭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주거환경의 개선이다. 귀농자의 부인들이 귀농을 반대하거나 농촌정착에 큰 불만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주거환경의 열악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식부엌, 옥내 수세식 화장실, 목욕탕 등을 구비한 주택환경의 개선은 젊은이들의 농촌정착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도시생활자 가운데 각박한 도시생활, 도시 환경오염의 심화, 불안한 봉급생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문제 등 도시 생활환경에 대해 불만이 늘어나면서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업을 직업의 하나로 새로이 인식하고 농촌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특히 농촌출신이 농촌으로 돌아가 농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을 U-턴, 그리고 도시출신이 농촌으로 들어가 농업을 시작하는 것을 J-턴이라고도 함)현상이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배민식, 1997).

문제점

-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으로 돌아가 농업을 시작하는 도시생활자들이 적은 숫자이나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귀농자 또는 귀농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젊은 농업노동력이 줄어듦에 따라 젊은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 후계자 육성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후계자 육성대상자로 선발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 농협중앙회가 1995년부터 세계화농업지도자교육원(안성)에 3박 4일의 '돌아오는 농촌'과정을 개설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귀농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996년 9월에는 민간기구인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창립되어 귀농운동 캠페인 실시, 귀농희망자 조직, 귀농학교 개설 등 각종 귀농자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귀농자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완전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서규선・박덕병(1997)은 연구결과에서 귀농단계별 지식적·기술적 교육요구와 귀농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2-9> 귀농단계별 지식적・기술적 교육요구

귀농단계	지식적 교육요구	기술적 교육요구
귀농탐색 및 준비단계에서 필요로 한 교육요구	① 기농자 지원정책 정보 ② 농경지 구입 및 임차방법・절차 ③ 농경지 구입정보(제공기관・단체) ④ 농촌주민의 인성 및 농민조직 ⑤ 농장취업정보(제공기관・단체) ⑥ 작목별 평균소득 분석 정보	① 작목별 생력재배 및 유기농업 기술 ② 농기계기구 구입 및 운전조작 기술 ③ 토양개량・과원조성 영농시설물 설치 개량기술
기농적응단계에서 필요로 한 교육요구	① 농산물 가격 동향과 가격정보 서비스 체제 ② 농장경영 기록과 진단요령 ③ 농민단체・조직의 역할과 참여요령	① 적지 적품종 선정기술 ② 재배・사육기술 ③ 생리장애 진단기술 ④ 수확 및 출하시기 조정기술 ⑤ 건조・저온저장 기술 ⑥ 자가 농산물 이용기술 ⑦ 농기계 자가 정비 기술

출처: 서규선·박덕병, 1997,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산논총, 제5권.

<표2-10> 귀농자가 가장 어려웠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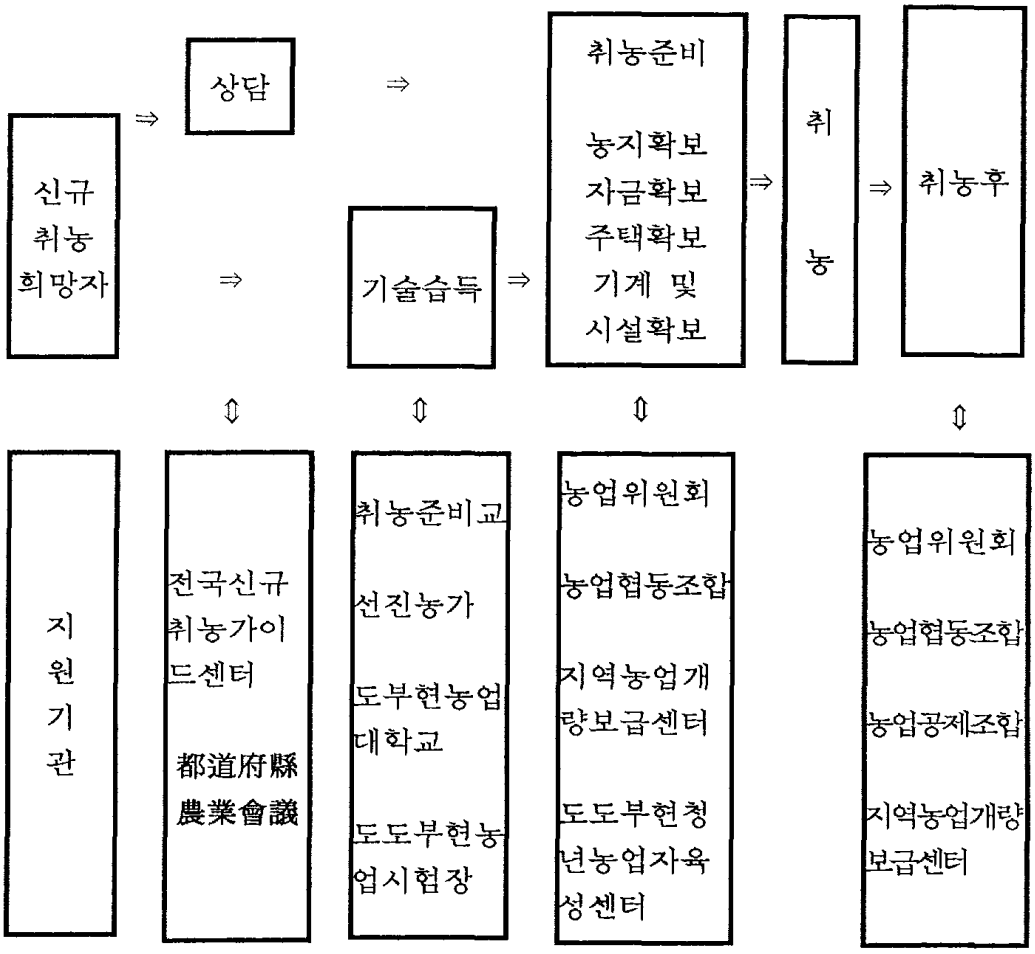
어려운 일	필요로 한 교육요구
자금부족 및 영농기반 조성곤란	① 귀농자 지원 제도 및 정책정보 ② 농협 영농자금 대출정보 ③ 생력재배기술, 유기농업기술 ④ 작목별 평균생산비나 경영비에 대한 정보 ⑤ 저렴한 농경지 구입정보 ⑥ 장기 취농가능한 농장에 관한 정보
영농기술 부족	① 수지맞는 작목선정기술 ② 적지적품종 선정기술 ③ 토양개량기술 ④ 농기계 기구 사용기술 ⑤ 재배 및 사육기술 ⑥ 영농시설 관리 운영기술 ⑦ 수확판매기술 ⑧ 농산가공기술 ⑨ 농장경영기록진단 기술
농산물 판매곤란	① 농산물 가격 정보 서비스에 관한 것 ② 저온저장 기술 ③ 농산물가공(전통식품제조)기술 ④ 농업회사, 법인이나 출하단체 가입 방법
주위사람의 시선 및 일손부족	① 농민들의 특별한 관습이나 성격에 관한 것 ② 농촌지역의 단체회원이 되는 방법 ③ 농촌 노임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

출처: 서규선·박덕병, 1997,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산논총, 제5권.

제 6 절 일본의 귀농 지원책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농업인구의 감소, 농업노동력의 고령화·부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젊은 농업경영인을 확보, 육성하여 원만한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 커다란 과제로 대두되어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을 비롯한 행정기관 및 각종 농업단체 등이 다각적인 신규취농(新規就農-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취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함)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는 농촌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귀농(歸農)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취농(就農)이라고 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

며, 취농희망자가 취농할 때까지의 각 기관의 단계별 지원을 간략하게 <그림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2-3> 일본의 귀농자에 대한 각 기관의 단계별 지원 현황

출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7, 농민과 사회, 11권, p. 131.

일본의 경우 신규취농에 대한 영농자금지원정책은 신규취농자에 대해 장기지원 자금으로는 농지구입을 위한 농지 등 취득자금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을 위한 토지이용형 농업경영체질강화자금이 있다. 그리고 단기상환자금으로 비교적 이용수속이 간단하고 농업시설 전반에 이용할 수 있는 농업근대화 자금, 무이자(담보 또는 보증인은 필요)로 빌릴 수 있는 농개량자금 등이 있다.

특히 UR 농업합의 관련대책으로서 「청년의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대부 등에 관한 특별배치법」이 1995년 2월에 성립하여 새로이 취농하려는 취농희망자에 대한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 취농장소의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무이자로 대부하는 취농지원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95년도 대부한도액 21억엔).

그 외에도 都道府縣 및 市町村에서 다양한 융자, 보조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福岡縣豊前市: 현의 보조를 받아 신규취농자에 대해 취농부터 2년간 월 15만엔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그 후 시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경우 상환을 면제한다.

· 岩手縣: 취농지원자금을 빌린 사람이 제도자금을 활용하여 자본장비를 하거나 경영규모의 확대, 신규부문의 도입 등을 실시할 경우에 취농계획에 의거하여 5년간 경영을 지속하면 취농지원자금 중 취농연수자금 상환액의 일부(月 환산으로 최대 5만엔)를 면제한다.

농지구입, 임차 지원

都道府縣은 매입한 농지를 취농자에게 5년간 대여한 다음 매각하는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농지알선, 중개 및 농지취득에 따른 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다.

· 秋田縣岩城町: 농지보유합리화사업에 의한 임차료에 대해 町과 縣이 3분의 1씩 보조

· 北海道浜中町: 농지보유합리화사업에 대해 농용지와 농업용 시설의 임차료의 50%와 고정자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3년간 지급. 또한 농용지나 시설취득을 위해 제도자금을 빌릴 경우에 3.5%를 초과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5년간 지원.

자금은 취농연수자금과 취농준비자금 2종류가 있는데, 현(縣) 농업대학교 등에서 연수할 경우 월5만엔 이내, 국내외의 선진농가 등에서 연수할 경우 월 15만엔 내외를, 그리고 취농준비자금은 최고 150만엔을 대부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12년(거치기간 4년)으로 정하고 있다. 단 조건불리지역의 취농에 대해서는 9년거치 20년 상환이다.

<표2-11> 일본의 신규귀농 지원자금

구 분	한도액	금리, 이율	상환기간
농지 등 취득자금	400~5,000만엔	3.5% 또는 3.8%	25년 이내
토지이용형 농업경영 체질강화자금	사업비의 80% 이내		25년 이내
농업근대화자금 신규취농원활화자금	400만엔	3.9%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농업개량자금	1,800만엔 (2,300만엔)	무이자	거치기간 3~5년 상환기간 7~12년
농업경영기반 강화 자금	1억엔	2.0%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25년
농업경영개선촉진 자금	500~2,000만엔	3.3%(변동금리)	1년 이내

출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7, 농민과 사회, 11권, p. 30.

일본의 경우 영농기술지도는 농림수산성의 조성사업으로서 (사)전국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는 도시의 취농희망자들이 현재의 직업에 근무하면서 농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취농준비교」를 설치하였다. 취농준비교는 장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강신청할 수 있고, 수강은 직장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평일의 야간, 토·일요일이나 여름휴가철을 중심으로 실시하는데 교실강의와 실습을 통한 실천적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각 도부현(道府縣)의 농업자대학교, 시험연구기관, 각종연수시설 등에서는 취농희망청년을 대상으로 단기 기술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도부현(道府縣) 청년농업자 육성센터에서는 취농희망청년에 대한 취농상담을 비롯한 각종 취농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공사는 이농 후 남겨진 농지에 대해 생산시설(설비), 농업기계 등을 정비하여 신규취농자에게 리스방식으로 일정기간 대부한 후 판매하는 「경종형 리스농장방식(농업생산시스템 확립지원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농지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다음 매각하는 농지보유합리화사업과 더불어 이농농가 등의 농장을 리스방식으

로 신규취농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취농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농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창구로 전국신규취농 가이드센터(전국농업회의소)가 설치되어 신규취농세미나(연2회), 신규취농상담회(이동상담회, 연 2~3회) 등이 실시되고, 1997년부터는 종업원 모집을 희망하는 농업법인과 취직취농희망자가 참가하는 합동취직설명회도 개최한다는 것이다. 도도부현(都道府縣)에 농지이용상담센터, 청년농업자 육성센터 등이 설치되어 농지임대차정보 제공, 농업실습농가의 소개, 취농상담, 신규취농세미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 3 장 귀농실태 분석

제 1 절 조사대상 귀농자의 일반적 특성

1. 귀농자의 귀농이전 직업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된 491명의 귀농 이전 직업은 다음의 <표3-1>과 같았다. 회사원이 187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영업이 175명(35.6%)이었다. 그 외 에 노무자, 공무원, 무직 등으로 나타났다.

<표3-1> 귀농이전 직업

구분	빈도	백분율
회사원	**187**	**38.1**
자영업	**175**	**35.6**
공무원	23	4.7
노무자(노동)	36	7.3
무직	6	1.2
기타	64	13.0

2. 귀농자의 교육수준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3-2>와 같았다. 고졸이 226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졸이 123명(25.1%)으로 나타났다.

<표3-2> 귀농자의 교육수준

구분	빈도	백분율
국졸	27	5.5
중졸	71	14.5
고졸	**226**	**46.0**
전문대졸	44	9.0
대졸	123	25.1

3. 귀농전 영농경험 유무

조사대상자의 귀농 전 영농경험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3-3>과 같다. 영농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99명(40.5%), 영농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92명(59.4%)으로 나타났다.

<표3-3> 귀농전 영농경험 유무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199	40.5
없다	292	59.4

4. 귀농동기

조사에 응답한 귀농자들의 귀농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의 <표3-4>와 같았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94명(19.1%)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에 실패해서 귀농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86명(17.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귀농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8명(15.9%)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농업에 대한 전망이 밝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53명(10.8%), 전원생활 및 건강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8명(9.8%) 등으로 나타났다.

<표3-4> 귀농동기

구분	빈도	백분율
농업에 대한 전망이 밝아서	53	10.8
영농승계를 위하여	46	9.4
노후대비로	51	10.4
사업실패	**86**	**17.5**
도시생활의 회의를 느껴서	78	15.9
전원생활 및 건강	48	9.8
인간다운 삶을 위해	**94**	**19.1**
기타	35	7.1

5. 가족구성원의 부업 종사여부

조사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중 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표3-5>와 같았다. 배우자가 부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108명(22%)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부업을 하는 경우가 60명(12.2%)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응답자가 296명(60.2%)로 부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표3-5> 가족구성원의 부업종사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본인	60	12.2
배우자	108	22.0
그 외 가족구성원	27	5.5
없다	296	60.2

6. 부업종사 이유

부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표3-6>과 같았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하는 경우가 148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있는 기술을 활용하

게 위해 부업을 하는 경우가 21명(4.3%) 여유시간 활용을 위해서가 14명(2.9%) 등으로 나타났다.

〈표3-6〉 부업종사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당장의 생계를 위해	**148**	**30.1**
여유시간 활용을 위해	14	2.9
있는 기술 활용 위해	21	4.3
기타	16	3.3
무응답	192	59.5

제 2 절 조사대상 귀농자의 귀농준비

1. 영농기술의 준비

영농기술의 준비 정도에 대한 귀농 전과 귀농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3-7〉과 같았다. 귀농 전 영농기술의 충분성 평균은 2.35, 귀농 후 영농기술의 충분성 평균은 2.49로 둘 다 이론적 평균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귀농 후 영농기술의 향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따라서 높은 기술 수준은 아니지만 귀농 전 보다 귀농 후의 영농기술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귀농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얻는 새로운 기술의 향상을 보여 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3-7〉 영농기술의 준비

영농기술준비의 충분성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2.35	1.05	-2.31	.02
귀농 후	2.49	1.04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2. 영농자금의 준비

영농자금의 준비 정도에 대한 귀농 전과 귀농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3-8>과 같았다. 귀농 전 영농자금 충분성 평균 2.18, 귀농 후의 영농자금 충분성 평균은 1.82로 둘 다 이론적 평균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귀농 후 영농자금 충분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따라서 자금에 대한 충분성에 대해 귀농 전 보다 귀농 후의 영농자금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귀농 전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해 가면서 생기는 부대 비용과 물가의 상승 등으로 인한 계획 외의 지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3-8> 영농자금의 준비

영농자금 충분성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2.18	1.05	6.52	.00
귀농 후	1.82	0.82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3. 경영마인드 정도

경영마인드의 정도에 대한 귀농 전과 귀농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3-9>와 같았다. 귀농 전의 경영마인드 정도의 평균 2.65, 귀농 후의 경영마인드의 정도의 평균은 2.59로 귀농 후 경영마인드의 정도의 하락을 보였지만 이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표3-9> 경영마인드 정도

경영마인드의 정도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2.65	1.09	1.03	.30
귀농 후	2.59	1.05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4. 영농정보 파악 정도

영농정보 파악 정도에 대한 귀농 전과 귀농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3-10>과 같았다. 귀농 전의 영농정보 파악 정도 평균 2.43, 귀농 후의 영농 정보 파악 정보의 평균은 2.71로 둘 다 이론적 평균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귀농 후 영농정보 파악정도의 향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따라서 영농 정보 파악 정도는 귀농 전 보다 귀농 후에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정보와 교육을 통해 파악했던 정보가 영농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습득하는 과정에서 영농정보 파악정도가 상승하는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3-10> 영농정보 파악 정도

영농정보 파악 정도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2.43	1.12	-4.76	.00
귀농 후	2.71	1.05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5. 귀농교육 정도

충분한 귀농 교육에 대한 귀농 전과 귀농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3-11>과 같았다. 충분한 귀농 교육에

대하여 귀농 전 평균 2.27, 귀농 후 평균 2.64로 둘 다 이론적 평균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귀농 후 충분한 귀농교육에 대한 향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따라서 귀농교육 수준에 대해 귀농 전 보다 귀농 후에 충분한 귀농교육에 대한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3-11> 귀농교육 정도

충분한 귀농교육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2.27	1.15	-4.38	.00
귀농 후	2.64	1.81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6. 작목선정의 신중성

작목선정의 신중성에 대한 귀농 전과 귀농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3-12>와 같았다. 귀농 전의 작목선정의 신중성의 평균 2.76, 귀농 후의 작목선정의 신중성의 평균은 3.02로 귀농 후 작목선정 신중성이 향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그러므로 귀농 전 보다 귀농 후의 작목선정 신중성의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귀농 후 작목선정 과정에서 영농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와 기술의 한계, 생업으로서의 신중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3-12> 작목선정의 신중성

작목선정의 신중성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2.76	1.23	-4.28	.00
귀농 후	3.02	1.15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7. 농촌생활 적응 가능성

농촌생활 적응 가능성에 대한 귀농 전과 귀농 후의 귀농자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3-13>과 같았다. 귀농 전의 농촌생활 적응 가능성의 평균 3.35, 귀농 후의 농촌생활 적응 가능성의 평균은 3.41로 귀농 후 농촌생활 적응 가능성에 대한 귀농자의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보였으나 이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표3-13> 농촌생활 적응 가능성

농촌생활 적응 가능성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3.35	1.12	-.99	.32
귀농 후	3.41	1.07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8. 노동력 문제 해결

노동력 문제 해결에 대한 귀농 전과 귀농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3-14>와 같았다. 귀농 전의 노동력 문제 해결의 평균 2.66, 귀농 후의 노동력 문제 해결의 평균은 2.45로 둘 다 이론적 평균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귀농 후 노동력 문제 해결 수준이 낮아 졌음을 보였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따라서 노동력 문제 해결 수준은 귀농 전 보다 귀농 후에 더욱 낮아짐을 보이고 있었다.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인이 택하는 것은 영농기계의 확보에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가의 농기계를 초기에 구입하는 것은 자금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게 되어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농촌 인구의 감소로 적시에 노동력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3-14> 노동력 문제 해결

노동력 문제 해결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2.66	1.15	4.04	.00
귀농 후	2.45	1.10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9. 농지 확보

농지의 충분한 확보에 대한 귀농 전과 귀농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3-15>와 같았다. 귀농 전 농지의 충분한 확보의 평균 2.52, 귀농 후의 농지의 충분한 확보의 평균은 2.48로 둘 다 이론적 평균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귀농 후 농지의 충분한 확보에 대한 수준이 낮아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표3-15> 농지 확보

농지의 충분한 확보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2.52	1.23	.80	.42
귀농 후	2.48	1.23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10. 농기계 수리 능력

농기계 수리 능력에 대한 귀농 전과 귀농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3-16>과 같았다. 귀농 전의 농기계 수리의 평균 2.12, 귀농 후의 농기계 수리의 평균은 2.25로 둘 다 이론적 평균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귀농 후 농기계 수리 능력이 향상되었음 알 수 있다. 한 편 이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따라서 농

기계 수리 수준은 귀농 전 보다 귀농 후에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촌 노동인력의 노령화로 인력확보의 차원에서 농기계 구입을 하는 귀농인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표3-16> 농기계 수리 능력

농기계 수리 능력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2.12	1.06	-2.59	.01
귀농 후	2.25	1.10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11. 농산물 가격 안정성에 대한 신뢰감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감의 귀농 전과 귀농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3-17>과 같았다. 귀농 전의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의 평균 2.09, 귀농 후의 농산물 가격 안정성의 평균은 1.75로 둘 다 이론적 평균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귀농 후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이 낮아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수준은 귀농 전보다 귀농 후에 낮아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귀농이전에 농산물 가격에 대하여 소비자로서 느끼는 불안정성보다 귀농후 생산자로서 느끼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에 대한 체감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표3-17> 농산물 가격 안정성에 대한 신뢰감

농산물 가격의 안전성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2.09	1.01	7.21	.00
귀농 후	1.75	.88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12. 귀농 주택확보의 용이함

귀농 주택확보 용이함에 대한 귀농 전과 귀농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18>과 같았다. 귀농 전의 주택확보의 용이함의 평균 2.73, 귀농 후의 귀농 주택확보 용이함의 평균은 2.73으로 같게 나타났으나 이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표3-18> 귀농 주택확보의 용이함

귀농 주택확보 용이함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2.73	1.24	-.05	.96
귀농 후	2.73	1.25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13. 필요한 농기계 확보

농기계 확보에 대한 귀농 전과 귀농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3-19>와 같았다. 귀농 전의 필요한 농기계의 확보 수준의 평균 2.18, 귀농 후의 필요한 농기계의 평균은 2.29로 둘 다 이론적 평균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따라서 귀농 이후 농기계 확보율은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각 마을별로 필요이상의 농기계가 구비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농기계 확보율이 높아진 이유의 상당수가 필요한 경우 바로 사용하기 위한 편리성 추구 때문이었으며 농기계의 감가상각비나 활용의 효용성에 대한 인지는 낮은 편이었다.

<표3-19> 농기계 확보

필요한 농기계 확보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2.18	1.07	-2.01	.05
귀농 후	2.29	1.08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14. 영농계획 수립 정도

영농계획 수립에 대한 귀농 전과 귀농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3-20>과 같았다. 영농계획 수립에 대한 귀농 전의 평균은 2.94, 귀농 후의 평균은 3.09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 후에 영농계획 수립 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이는 것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인 유의차가 있다. 이는 귀농 후 영농계획 수립에 있어서 좀더 현실적인 문제를 참고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3-20> 영농계획 수립 정도

귀농 영농계획 수립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2.94	1.20	-2.63	.01
귀농 후	3.09	1.08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15. 경영성과 분석

경영성과에 대한 귀농자들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귀농 이후 경영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전 경영성과 분석 실시에 대한 평균은 2.53, 귀농 후는 2.76으로 이론적 평균 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귀농 후 영농기술의 향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따라서 높은 기술 수준은 아니지만 귀농 전 보다 귀농 후의 영농기술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경영성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농을 통한 소득이나 자산증가보다 지가상승을 통한 자산증가가 많았고 노동력에 대한 기회비용 등에 대하여는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21> 경영성과 분석

경영성과 분석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2.53	1.16	-4.14	.00
귀농 후	2.76	1.13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16. 지속적인 농업종사 의사

농업에 대한 계속 종사 의사에 대한 귀농 전과 귀농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3-22>와 같았다. 계속 농업에 종사할 의사는 귀농 전 평균 3.72, 귀농 후 평균 3.55로 귀농 후보다 귀농 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즉 귀농 전 보다 귀농 후의 농업 종사에 대한 의지가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업종사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한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귀농이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열정이 사라지고 있었다. 영농만 가지고 소득균형을 맞추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아이들이 성장하여 도시로 진학하면서부터 소득균형이 크게 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었다. 또 귀농자들도 귀농동기, 귀농자금 등의 이유에 따라 개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3-22> 지속적인 농업 종사 의사

지속적인 농업 종사 의사	평균[1]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귀농 전	3.72	1.09	3.14	.00
귀농 후	3.55	1.25		

[1] 1: 매우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17. 귀농 초기 애로사항

귀농 초기 어려웠던 점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3-23>와 같았다. 영농자금 조달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한 사람이 150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또는 가축구입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사람이 80명(16.3%),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이 75명(15.3%)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자녀교육문제, 노동 대가에 대한 저소득, 관청의 인허가 절차의 복잡함 등이 귀농자들이 초기에 부딪히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표3-23> 귀농 초기 애로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농지 또는 가축 구입	80	16.3
영농자금 조달	**150**	**30.5**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	75	15.3
작목선택 문제	16	3.3
부모 이해부족	6	1.2
배우자의 이해 부족	23	4.7
자녀교육문제	34	4.9
지역주민과의 갈등 (텃세, 불신 등)	15	3.1
과다한 노동	13	2.6
주택구입	13	2.6
결혼문제	4	0.8
의료시설 미비	2	0.4
관청 인허가 절차의 복잡	21	4.3
노동 대가에 대한 저소득	29	5.9
대출의 까다로움	19	3.9
기타	1	0.2

18. 귀농 이후 애로사항

조사자들의 귀농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3-24>와 같았다. 영농자금조달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140명(28.5%)으로 귀농 초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고,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이 영농을 어렵게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5명(15.3%)으로 나타났고, 영농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72명(14.7%)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농지부족, 일손부족 등이 귀농자들의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표3-24> 귀농 이후 애로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일손부족	63	12.8
농지부족	64	13.0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	72	14.7
과다한 노동	26	5.3
영농자금조달	**140**	**28.5**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75	15.3
농기계 구입 및 수리	6	1.2
지역주민과의 갈등 (텃세, 불신 등)	6	1.2
대출의 까다로움	19	3.9
판로개척	14	2.9
종자(품종, 가축)구입의 애로	2	0.4
기타	4	0.8

19. 귀농 목표 달성에 대한 귀농자 자체 평가

귀농할 때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귀농자 자신의 의견을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25>와 같았다. 응답자중 276명(56.3%)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대답했고, 58명(11,8%)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대답했다. 그리

고 아직 초기라서 목표 달성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57명(32.0%)으로 나타났다.

<표3-25> 귀농 목표 달성에 대한 귀농자 자체 평가

구분	빈도	백분율
예	58	11.8
아니오	276	56.3
아직 잘 모름	157	32.0

20. 귀농 목표를 달성하게 한 요인

귀농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체 평가한 귀농자들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게 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26>와 같았다. 적정 작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66명(13.4%)으로 나타났다. 적정한 작목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이유의 상당부분이 가격의 불안정성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응답해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귀농자들의 피해가 크고, 가격 안정성에 대한 신뢰감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26> 귀농 목표를 달성하게 한 요인

구분	빈도	백분율
적정작목선택	**66**	**13.4**
충분한 영농자금	9	1.8
영농기술	39	7.9
유통·판매 기술	17	3.5
기타	27	5.5
무응답	333	67.8

21. 귀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한 요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한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27>와 같았다. 영농자금이 부족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28명(26.1%)으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0명(20.4%)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영농기술 부족, 유통·판매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27> 귀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한 요인

구분	빈도	백분율
영농기술 부족	77	15.7
영농자금 부족	**128**	**26.1**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100**	**20.4**
유통·판매 기술 미흡	26	5.3
기상재해	18	3.7
작목선정의 잘못	10	2.0
인·허가의 까다로움	12	2.4
기타	24	4.9
무응답	96	19.6

22.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표3-28>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3	6.7
만족하지 않는다	77	15.7
그저 그렇다	140	28.5
만족한다	**186**	**37.9**
매우 만족한다	55	11.2

도시생활에 비해 농촌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조사해본 결과는

위의 <표3-28>과 같았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86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40명(28.5%)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7명(15.7%)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과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더해보면 보통이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81명(77.6%)으로 나타났다.

23.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유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의 <표3-29>와 같았다.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304명(62.0%)으로 나타났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121명(24.6%)으로 나타났다.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그 이유로는 낮은 소득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55명(31.6%)으로 나타났고, 자녀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87명(17.7%)로 나타났다. 그 외에 낮은 사회적 인식, 고된 농사일, 열악한 교통·문화여건 등의 이유로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29>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자녀교육 여건	**87**	**17.7**
교통·문화여건	8	1.6
의료여건	8	1.6
낮은 소득	**155**	**31.6**
고된 농사일	16	3.3
지역 주민과의 갈등	7	1.4
낮은 사회적 인식	16	3.3
돌아가고 싶지 않다	**121**	**24.6**
기타	7	1.4
무응답	66	13.4

농림부에 따르면 1998년 상반기 4,141가구가 귀농을 했으며 이는 1997년 한 해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20-40대 연령층이 76.6%을 차지한다.

그러나 농림부(1998. 11. 20)가 발표한 '아이엠에프 이후 귀농농가 동향'에 따르면 4월 1,429가구를 기록한 뒤떨어지기 시작해 5월 800가구, 7월428가구, 10월 323가구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관계자는 "연초 각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귀농가구가 크게 늘었으나 부채문제 등으로 농촌이 워낙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직자들이 귀농을 꺼리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IMF 이후 전국적으로 귀농자가 급증한 가운데 농촌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난 귀농 실패자의 지역별 분석결과 전남이 전국 최고로 집계됐다. 농림부가 국회 김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98년 7월까지의 연도별 귀농실패자는 전남지역의 경우 97년 37명, 98년 141명, 99년 38명 등 모두 216명으로 전체 귀농실패자 793명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경북(152명, 19%), 3위는 전북(93명, 12%)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의 연도별 귀농현황은 97년 160명, 98년 1,636명, 99년 829명 등 모두 2,688명으로 전체 11,725명의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농지의 장기임대 등 구입문제와 자녀교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직장을 구하기 쉬운 수도권으로 다시 인구가 몰리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4분기(1-3월)중 인구이동 집계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17만 4000명이 주민등록을 옮긴 반면 13만명은 수도권에서 빠져나가 4만4000명의 전입초과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전입 초과 2만2000명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95년 이후 최대치다. 총 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한 사람 수의 비율)은 5.1%로 외환이기 이전인 97년 1·4분기와 같았다.

24. 귀농자금 출처

귀농을 위해 마련한 자기준비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3-30>와 같았다. 자산(주택, 땅 등)을 처분하여 마련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52명(51.3%)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을 귀농자금으로 준비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16명(23.6%)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그 외에 은행융자, 재산상속, 사채 등을 통해 귀농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30> 귀농자금 출처

구분	빈도	백분율
퇴직금	**116**	**23.6**
자산처분(주택, 땅 등)	**252**	**51.3**
사채(가족, 인척, 친구)	25	5.1
부모의 재산상속	23	4.7
은행융자	36	7.3
기타	39	7.9

25. 귀농정책자금 신청여부

조사 대상 귀농자들이 귀농정책자금을 신청했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31>과 같았다. 귀농정책자금을 신청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51명(71.5%)으로 나타났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49명(28.5%)으로 나타났다.

<표3-31> 귀농정책자금 신청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예	351	71.5
아니오	149	28.5

26. 귀농정책자금 수령여부

귀농정책자금 수령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의 <표3-32>와 같았다. 수령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21명(45.0%)으로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32> 귀농정책자금 수령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예	221	45.0
아니오	233	47.5
무응답	37	7.5

27. 귀농정책자금 사용처

귀농정책자금을 사용한 곳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다음의 <표3-33>과 같았다. 시설자금과 농기계를 구입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50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48명(9.8%)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그 외에 농지구입, 주택자금, 가축구입 등에 귀농정책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33> 귀농정책자금 사용처

구분	빈도	백분율
농지구입	35	7.1
시설자금, 농기계 구입	**150**	**30.5**
주택자금	11	2.2
운영자금	48	9.8
가축구입	11	2.2
기타	2	0.4
무응답	233	47.7

28. 귀농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이유

귀농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3-34>와 같았다. 대상자가 아니라서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6명(11.4%)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48명(9.8%)으로 나타났다. 또 담보가 없어서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36명(7.3%)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경쟁자가 많아서, 정책자금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귀농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34> 귀농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담보가 없어서	36	7.3
경쟁자가 많아서	34	6.9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48**	**9.8**
빚이라 생각해서	28	5.7
충분한 자금이 있어서	6	1.2
대상자가 아니라서	**56**	**11.4**
정책자금이 있는지 잘 몰라서	28	5.7
생산성 있는 자금이 아니라	6	1.2
기타	28	5.7
무응답	221	45.0

29. 자금의 사용내역

귀농을 위해 준비했거나 귀농정책자금을 신청하여 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의 <표3-35>와 같았다. 농지구입을 위해 준비한 자금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9명(28.3%)으로 가장 많았고, 영농시설 및 자재구입을 위해 사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25명(25.5%)으로 나타났다.

<표3-35> 자금의 사용내역

구분	빈도	백분율
농지구입	**139**	**28.3**
농기계 구입	44	9.0
영농시설 및 자재구입	**125**	**25.5**
농작물 재배 및 가축사육 비용	28	5.7
주택 구입 및 개량비용	55	11.2
생활비	16	3.3
자녀교육 및 생활비	11	2.2
운영자금	23	4.7
가축구입	27	5.5
기타	23	4.7

30.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 방법

조사대상 귀농자들의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36>과 같았다. TV · 라디오 · 신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27명(4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근 독농가 · 작목반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0명(20.4%)으로 나타났다. 산지 수집상 · 중도매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7명(15.7%)으로 나타났다.

<표3-36>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 방법

구분	빈도	백분율
TV, 라디오, 신문	**227**	**46.3**
컴퓨터 통신	28	5.7
산지 수집상, 중도매인	77	15.7
인근 독농가, 작목반	**100**	**20.4**
전문지도사	7	1.4
수집하지 않음	36	7.3
기타	16	3.3

31. 농산물을 주로 출하하는 곳

농산물을 출하하는 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37>과 같았다. 산지농협이나 농협공판장에 농산물을 출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55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산지시장이나 수집상에 농산물을 출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16명(23.6%)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 도매시장이나 물류시장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출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0명(10.2%)으로 나타났다.

<표3-37> 농산물을 주로 출하하는 곳

구분	빈도	백분율
산지시장 · 수집상	**116**	**23.6**
산지농협, 농협공판장	**155**	**31.6**
유사도매시장	27	5.5
법정도매시장, 물류센터	50	10.2
대형매장(백화점 포함)	5	1.0
직판	39	7.9
생활 협동조합(직거래)	24	4.9
기타	34	6.9
무응답	41	8.4

32. 영농 지식과 기술을 주로 획득하는 곳

영농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주로 획득한 곳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표3-38>과 같았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습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17명(23.8%)으로 가장 많았고, 주변농민으로부터 습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08명(22.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귀농교육을 통해 습득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95명(19.3%)으로 나타났다.

<표3-38> 영농 지식과 기술을 주로 획득하는 곳

구분	빈도	백분율
귀농교육	**95**	**19.3**
전문서적	68	13.8
농업기술센터	**117**	**23.8**
형제 및 친인척	33	6.7
주변농민	**108**	**22.0**
농 · 축협	5	1.0
매스컴(신문, TV 등)	15	3.1
기타	24	4.9
무응답	26	5.3

33.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분야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분야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39>와 같았다. 기술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21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작목선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76명(15.5%)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 경영·정보에 분야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68명(13.8%)으로 나타났다.

<표3-39>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분야

구분	빈도	백분율
기술	**215**	**43.8**
경영·정보	68	13.8
정책	16	3.3
작목선정	76	15.5
자녀교육	8	1.6
기타	108	22.0

34. 귀농교육을 받은 기관

귀농교육을 받은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위의 <표3-40>과 같았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86명(58.3%)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단체, 농·축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40> 귀농교육을 받은 기관

구분	빈도	백분율
농업기술센터	**286**	**58.3**
농·축협	22	4.5
YWCA 나 YMCA	3	0.6
민간단체	53	10.8
받은적 없다	100	20.4
기타	27	5.5

35. 귀농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

귀농교육에 대한 조사 대상 귀농자의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41>과 같았다. 강사의 질이 만족스럽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82명(3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34명(27.3%)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5명(20.8%)으로 나타났다.

<표3-41> 귀농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3	2.6
동의하지 않는다	15	3.1
그저 그렇다	134	27.3
동의한다	**182**	**37.1**
매우 동의한다	45	9.2
수강사실 없다	102	20.8

36. 강사 선정의 적절성

귀농교육을 담당한 강사 선정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3-42>와 같았다. 강사 선정이 적절했다고 동의하는 사람이 170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36명(27.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8명(7.7%)으로 나타났다.

<표3-42> 귀농교육 강사 선정의 적절성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3	2.6
동의하지 않는다	32	6.5
그저 그렇다	136	27.7
동의한다	**170**	**34.6**
매우 동의한다	38	7.7
수강사실 없다	102	20.8

37. 강사의 강의에 대한 이해도

강사가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43>와 같았다.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89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23명(25.1%)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매우 동의한다는 46명(9.4%)으로 나타났다.

<표3-43> 강사는 이해하기 쉽게 강의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	2.2
동의하지 않는다	20	4.1
그저 그렇다	123	25.1
동의한다	**189**	**38.5**
매우 동의한다	46	9.4
수강사실 없다	102	20.8

38. 강사의 성실성

강사가 강의를 성의껏 준비해오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44>와 같았다.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87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04명(21.2%)으로 나타났다.

<표3-44> 강사는 강의를 성의껏 준비해 온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4	2.9
동의하지 않는다	35	7.1
그저 그렇다	104	21.2
동의한다	**187**	**38.1**
매우 동의한다	49	10.0
수강사실 없다	102	20.8

39. 교육내용의 세분화 정도

교육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45>와 같았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45명(29.5%)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13명(23.0%)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3-45> 교육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9	5.9
동의하지 않는다	78	15.9
그저 그렇다	**145**	**29.5**
동의한다	113	23.0
매우 동의한다	24	4.9
수강사실 없다	102	20.8

40. 교육시기 및 기간의 적절성

교육시기 및 기간이 적절하였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46>과 같았다.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31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15명(23.4%)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3-46> 교육시기 및 기간은 적절하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9	5.9
동의하지 않는다	82	16.7
그저 그렇다	115	23.4
동의한다	**131**	**26.7**
매우 동의한다	32	6.5
수강사실 없다	102	20.8

41. 교육내용의 실용성

교육내용이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47>과 같았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49명(30.3%)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24명(25.3%)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3-47> 교육내용이 실용적이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4	4.9
동의하지 않는다	63	12.8
그저 그렇다	**149**	**30.3**
동의한다	124	25.3
매우 동의한다	29	5.9
수강사실 없다	102	20.8

42.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48>와 같았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158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10명(22.4%)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3-48> 교육내용은 매우 적절하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5	5.1
동의하지 않는다	67	13.6
그저 그렇다	**158**	**32.2**
동의한다	110	22.4
매우 동의한다	29	5.9
수강사실 없다	102	20.8

43. 추가로 영농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부분

추가로 영농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49>와 같았다. 특용(버섯)작물에 대해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103명(21.0%)으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 농업 작물에 대해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85명(17.3%)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과수, 약용작물, 채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49> 추가로 영농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분야

구분	빈도	백분율
벼농사	22	4.5
화훼	25	5.1
채소	37	7.5
과수	51	10.4
특용(버섯)작물	**103**	**21.0**
약용작물	48	9.8
한우 낙농	27	5.5
양돈	6	1.2
양계	7	1.4
양봉	17	3.5
특수가축	17	3.5
친 환경농업	**85**	**17.3**
기타	12	2.4
무응답	34	6.9

44. 귀농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바라는 기관

귀농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바라는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50>과 같았다. 관련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23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의 영농교육담당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55명(31.6%)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민간단체 위탁, 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50> 귀농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바라는 기관

구분	빈도	백분율
정부의 영농교육담당기관	**155**	**31.6**
민간단체 위탁	79	16.1
대학	14	2.9
관련연구소	**223**	**45.4**
기타	20	4.1

45. 귀농교육을 받고 싶은 대상

귀농교육을 담당해 주었으면 하는 대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51>과 같았다. 이론과 실무 경험자가 귀농교육 강사로서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28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분야 전문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63명(33.2%)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귀농성공자, 선도농가, 대학교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51> 귀농교육을 받고 싶은 대상

구분	빈도	백분율
선도농가	42	8.6
대학교수	7	1.4
해당분야 전문가	**163**	**33.2**
귀농 성공자	51	10.4
이론과 실무 경험자	228	46.5

46. 귀농당시 작목 선정기준

귀농당시 작목 선정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52>와 같았다.

이전부터 계획했던 작목을 선정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54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높을 것 같은 작목을 선정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1명(26.7%)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귀농교육 이수작목, 부모·친척 권유 작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52> 귀농 당시 작목 선정 기준

구분	빈도	백분율
소득이 높은 것 같은 작목	**131**	**26.7**
농업기술센터의 권유	13	2.6
부모·친척 권유 작목	68	13.8
이전부터 계획했던 작목	**154**	**31.4**
귀농교육 이수 작목	88	7.7
같은 작목에서 성공한 농민을 보고	49	10.0
무응답	38	7.7

47. 현재 재배하는 작목 선정기준

현재 재배하는 작목의 선정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53>과 같았다. 소득이 높을 것 같은 작목을 선정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42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전부터 계획했던 작목을 선정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17명(23.8%)으로 나타났다.

<표3-53> 현재 재배하는 작목 선정기준

구분	빈도	백분율
소득이 높을 것 같은 작목	**142**	**28.9**
농업기술센터의 권유	13	2.6
부모·친척 권유 작목	38	7.7
이전부터 계획했던 작목	**117**	**23.8**
귀농교육 이수 작목	22	4.5
같은 작목에서 성공한 농민을 보고	29	5.9
귀농 당시 재배하던 작목	57	11.6
기타	36	7.3
무응답	37	7.5

48. 현재 재배하는 작목의 계속 재배 여부

현재 재배중인 작목을 계속 재배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54>와 같았다. 계속 재배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282명(29.8%)으로 나타났고, 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이 97명(29.8%)으로 나타났다.

<표3-54> 현재 재배하는 작목의 계속 재배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현재 작목 계속 재배 희망	282	57.4
작목 전환 희망	97	29.8
아직 모르겠다	112	22.8

49. 현재 영농규모

현재 영농규모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55>와 같았다. 영농규모가 작다고 응답한 사람이 191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35명(27.5%)으로 나타났다. 너무 작다고 응답한 사람은 131명(26.7%)으로 나타났다.

<표3-55> 현재 영농규모

구분	빈도	백분율
너무 작다	131	26.7
작다	191	39.1
적절하다	135	27.5
크다	25	5.1
너무 크다	8	1.6

50. 영농규모를 늘리고 싶은 분야

앞으로 영농규모를 키우고 싶은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56>와 같았다. 특용작물분야의 규모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176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분야의 규모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96명(19.6%)으로 나타났다. 벼농사·밭농사의 규모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94명(19.1%)으로 나타났다.

<표3-56> 영농 규모를 늘리고 싶은 분야

구분	빈도	백분율
벼농사·밭농사	94	19.1
채소분야	28	5.7
과수분야	68	13.8
특용작물분야	**176**	**36.1**
축산분야	96	19.6
기타	29	5.9

51. 귀농자의 영농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귀농자들의 영농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3-57>과 같았다. 영농규모에 맞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37명(27.9%)으로 나타났고, 농산물 가격보장 및 판매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09명(22.2%)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영농기술교육, 농업기반 조성 및 농촌개발사업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57> 귀농자의 영농정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구분	빈도	백분율
영농기술교육	66	13.4
영농규모에 맞는 자금지원	**137**	**27.9**
농업기반 조성 및 농촌개발사업 확대	40	8.1
농기계·영농자재의 값싼 공급	43	8.8
농산물 가격보장 및 판매망 구축	**109**	**22.2**
실패시 추가 자금지원	17	3.5
충분한 정보제공 및 사전조사 실시	32	6.5
농가 주택마련 지원책	23	4.7
귀농 상담소 상설 운영	14	2.9
기타	10	2.0

제 4 장 귀농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분석

제 1 절 귀농에 대한 일반적 현황

귀농의 일반적 현황은 각 기관별로 통계자료에 차이가 있으며, 전국단위로 집계된 것은 많지 않다. 1990-1996년까지의 전국귀농가구수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4-1〉 1990-1996년도 전국 귀농 가구수

구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귀농 가구수	371	299	413	618	662	922	2,060
누계	371	670	1,083	1,701	2,363	3,285	5,345

〈표4-2〉 1990-1996년도 지역별 귀농가구수

구분	계	90	91	92	93	94	95	96
계	7,168	371	299	413	618	662	922	3,883
부산	11			1	1		1	8
대구	50	5	5	6	8	11	8	4
인천	48	5	4	6		5	11	1
경기	939	52	31	31	37	39	45	469
강원	573	23	15	21	45	80	88	176
충북	590	17	22	38	51	77	80	159
충남	478	21	27	28	40	34	52	104
전북	600	8	12	30	57	68	62	211
전남	613	28	26	51	69	70	101	108
경북	1,761	81	71	96	174	156	243	492
경남	1,396	130	81	101	133	119	229	294
제주	109	1	5	4	3	3	2	36

<표4-3> 1990-1996 전국귀농자의 귀농전 직업별 현황

직업별	90-96까지(A)		97(B)		증감율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A/B(%)
계	5,345	100	1,823	100	
공무원	160	3.0	46	2.5	△0.5
회사원	2,133	39.9	734	40.3	0.4
노무자	1,299	24.3	416	22.8	△1.5
자영업	1,342	25.1	490	26.9	1.8
기타	411	7.7	137	7.5	△0.2

귀농전 직업으로는 회사원이 가장 많고 다음이 노무자, 자영업자 순이었는데, 회사원은 주로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명퇴한 경우와 정년퇴임 후 전원생활을 보내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노무자와 자영업자는 도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귀농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도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귀농한 경우에는 재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귀농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따라서 귀농자간에도 귀농동기와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표4-4> 1990-1996 전국 귀농자들의 귀농후 종사분야

구분	계(%)	90	91	92	93	94	95	96
계	7,168 (100)	371	299	413	618	662	922	2,060
경종	3,538 (49.4)	150	97	150	234	256	384	1,179
원예	982(13.7)	76	63	77	105	116	138	204
과수	787(11.0)	23	36	47	80	75	88	233
축산	1,127 (15.7)	84	66	86	127	137	198	257
기타	734(10.2)	38	37	53	72	78	114	169

귀농 후 경종이 압도적이었으며 이는 귀농자들이 특별한 영농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구입 후 가장 쉽게 택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의 경우 정부의 축산농가지원정책을 믿고 따랐던 많은 농민들이 축산물의 큰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12월에 1997-1998년 사이의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주종사분야와 연령 통계 자료에서도 귀농후 종사분야는 큰 차이가 없이 경종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5> 1997-1999 귀농인의 종사분야와 연령층

( )는 귀농자 본인을 포함한 실제가족수

구 분		귀농가구수	주종사분야					연령별				
			경종	원예	과수	축산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 계		(4,301) 1,404	908	161	78	143	114	166	760	312	134	32
'97~'98까지 귀농자		(2,923) 948세대	630	95	45	97	81	132	507	189	90	30
'99 귀농	소계	(1,378) 456	278	66	33	46	33	34	253	123	44	2
	전월까지	(1,314) 435	261	64	32	45	33	32	244	118	39	2
	당월	(64) 21	17	2	1	1	0	2	9	5	5	0

귀농인의 귀농동기는 전국적인 통계자료는 없다. 농민신문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1992년 이후 284세대 835명이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농촌진흥원이 전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귀농동기는 아래 <표> 와 같다. 또 전라북도의 경우 소득작목으로는 벼농사-한우-복합영농 순이었다. 벼농사는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전라북도 귀농인의 귀농동기

귀농동기	백분율(%)
발전전망 -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 추진으로 인한 소득증대와 농촌생활환경개선 기대	61
도시생활 부적응 -사업실패 -생활고	26
부모봉양과 노후대책	11
기타 건강사유	2

제 2 절 귀농자들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실태

전라북도의 경우 1991년 동안의 통계자료를 보면 귀농교육신청자 577명 중 501명이 귀농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7> 시·도별 귀농대책 추진실적(1999.1.1- 12.31)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귀농 상담자	자금 신청접수	교육		자금 배정	대상자 확정		자금집행	
			신청자	이수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북도	1,101	436	577	501	3,340	224	3,279.4	224	3,312.9

농촌진흥청이 1998년 1월부터 9월까지 분석한 귀농상담내용은 아래 〈표〉 와 같다.

〈표4-8〉 농촌진흥청이 분석한 귀농상담내용(1998.1-1998.9)

상담내용	백분율(%)
농촌정착자금의 지원규모와 내용	9,500(50)
교육훈련	3916(20.6)
작목선택과 재배기술	3105(16.3)
농지와 주택 등 영농기반	1070(5.6)
	19,023(100)

출처: 농촌진흥청, 1998. 10. 13.

〈표4-9〉 에서 알 수 있듯이 귀농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농촌정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과 내용이었다. 그 다음이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위한 교육이었다. 귀농하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충분한 귀농자금이 없는 상태이며 또한 영농에 대하여 기술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귀농자들에 대한 재정지원실태

귀농자들에 대한 재정지원실태는 각 지자체별로 통계자료가 많지 않다. 이는 귀농자는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하여 관리인원은 적고 귀농자들의 신분변동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시·군별 귀농영농창업자금의 집행실적을 〈표〉 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4-9> 시·군별 귀농영농창업자금 집행실적(1999. 12월 31일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시군별	귀농 상담자	자금 신청접수	교육		자금 배정	대상자 확정		자금집행	
			신청자	이수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101**	**436**	**577**	**501**	**3,340**	**224**	**3,328.4**	**224**	**3,312.9**
전주시	28	11	8	8	71.6	5	60	5	60
군산시	33	105	7	7	105	6	105	6	105
익산시	39	20	28	20	185	17	185	17	185
정읍시	98	38	65	65	323	22	323	22	323
남원시	46	23	109	109	251	17	251	17	251
김제시	90	44	29	29	620	34	620	34	620
완주군	104	29	46	29	176	11	176	11	176
진안군	65	30	52	45	175	19	175	19	175
무주군	30	14	23	22	269	19	269	19	269
장수군	50	23	17	12	178	11	178	11	162.5
임실군	26	12	12	9	121.4	9	121.4	9	121.4
순창군	45	20	20	20	251	14	251	14	251
고창군	132	47	47	47	340	23	340	23	340
부안군	315	20	114	79	274	17	274	17	274

귀농의사를 밝힌 중 10명중 1명만이 귀농에 필요한 정부의 영농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 또 영농창업자금의 경우 귀농자의 농지나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영농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착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귀농인에 대해 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귀농자가 농지임차와 주거공간마련비용으로 초기에 수천만원을 투자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현재 정부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으로 연리 6.5%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2,000만원은 현실적으로 귀농초기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면 부족한게 현실이다.

제 5 장 귀농자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 1 절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정보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행 프로그램 및 정보는 <표5-1>과 같다.

<표5-1>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행 프로그램 및 정보

대분류	소분류	내 용
귀농자의 영농기술 습득과 작목 선택	영농기술습득	·주요 영농기술교육 기관 : 농촌진흥청(농촌개발연수관), 도 농업기술원(김제백구 농민교육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지도자교육원,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선진 농가 견학 : 선진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배우는 방법.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고 흥미를 유발시켜 좀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나 고생해서 터득한 기술을 선뜻 가르쳐 주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고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음. 또 연고가 없는 경우 귀농자가 쉽게 이러한 선진농가와 접촉하기도 쉽지 않음. ·선진 견학 대상처 : 정부에서 선정한 선도농어가 -농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자(도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발간)에 나오는 선도 농가, 농협에서 선정한 새농민 수상자, 농촌진흥청 산하 작물시험장 등 ·농업관련 책자나 신문, 잡지 : 귀농자 개인 스스로 연구하고 습득하는 방법. 영농기술책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소개받을 수도 있고 농업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교재, 일반서점에서 판매하는 서적 등을 구해 볼 수 있음. 초보자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등의 전문지도사의 도움(자문)을 받는 것이 좋음.

대분류	소분류	내용
귀농자의 영농기술 습득과 작목선택	작목 선택	·농업분야는 크게 과수, 채소, 축산, 특용작물, 화훼, 관광농업, 식량작물 등 7개분야로 분류 ·자신의 경영능력, 투입자본 규모, 판매, 지적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농업분야 구분 - 식량작물 : 대단위 경작지가 필요하며 쌀, 보리, 우리밀, 우리콩, 감자, 고구마 - 특용작물 : 버섯류, 느타리, 표고, 팽이버섯 - 약초류 : 인삼, 영지버섯, 더덕, 장뇌, 작약, 황기, 천마 등 - 채소분야 : 과채류 -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멜론, 가지, 고추, 호박 등 엽채류 - 상추, 쑥갓, 엔디브, 양채류 양념채소류 - 마늘, 양파 등 - 과수분야 : 사과, 배 , 포도, 복숭아, 단감, 대추 유자, 매실 등 - 축산분야 : 비육(한우), 낙농(젖소), 양계, 양돈, 사슴, 관상조류, 토종닭, 흑염소 등 - 화훼분야 : 절화, 분야, 분재, 관상수로 나누며, 품목은 장미, 카아네이션, 국화, 안개꽃, 선인장류, 백합, 양란, 서양란 등이 있음 - 관광농업 : 작물재배농자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 시설을 갖추고 농사체험과 농산물 직판장 가능 ·작물선택시 고려사항 -경영능력, 투자할 수 있는 자본규모, 판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 -작물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물이 경쟁력이 있고, 어떤 작물은 경쟁력이 없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음. -대단위 토지가 필요한 쌀 등 곡물위주의 농업을 제외하고 과수, 채소, 낙농, 양계, 화훼, 특용작물 등은 수입농산물의 영향을 비교적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분류	소분류	내용
귀농자의 영농기술 습득과 작목선택	작목선택	-시설채소와 낙농, 양계, 화훼는 초기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함. -그리고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작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산간지역은 국민휴양과 환경보전농업을 위주로 한 관광농업이 가능 하고, 준산간지역에서는 과수, 낙농, 한우가 적합하다. 평야지대는 기계화에 의한 대단위 쌀농사가 있을 수 있고, 도시근교에서는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한 집약적 농업이 적합.

대분류	소분류	내용
농지·주택 등 영농기반 마련	농지의 정의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농지 소유 자격	·농지는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군.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영농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의욕과 능력있는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신규영농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형태는 제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며, 농지소유자는 반드시 농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함
	농지 취득 방법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이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가당 5ha로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새로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두지 않고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 ·실제 농지를 취득하고자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리·동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읍.면장에게 발급신청

대분류	소분류	내용
농지·주택 등 영농 기반 마련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 절차 및 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통하여 농지취득자의 적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자의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농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군.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함 ② 발급신청 :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읍.면장에 발급 신청, 시.군.읍.면장은 확인기준 및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③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농업경영목적 취득〉 • 농업경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원부등본(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전용목적 취득〉 • 농업경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전용허가증 등의 사본 ④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나, -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농지는 소유상한 면적 이내일 것,

대분류	소분류	내용
농지·주택 등 영농기반 마련	농가주택 취득	·농가주택 취득시 지방세 면제 : 정부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또는 자력으로 건평 100㎡이내의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년간 면제 ·귀농인의 농어촌주택 취득 : 수도권정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지역과 면지역(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농어촌주택이라 함). 귀농인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농가주택 신축 및 개량자금지원 : 노후불량주택개량 및 신축자금 융자는 호당 2000만원으로 연리 5.5-6.0%로 5년거치 15년상환이고, 농가주택개량(개축)시 건축허가면제되며, 건평 100㎡이내의 농가주택신축(개축)시 건축신고로 처리된다.

대분류	소분류	내용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목 적	귀농자에 대하여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 구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정착을 촉진
	지원조건	· 대출최고한도 : 가구당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 5%(대출금리가 변동되면 변동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내용 : 영농창업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영농기반 시설 및 농기계, 비료 농약, 유류 등 영농자재 구입
	지원자격	·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99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영농소재지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구입(임차포함) 등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등 영농정착 여부를 귀농지역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확인한 자 · 영농교육을 3일 이상 이수한 55세 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지원방법	· 대상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신청 · 농업시술센터 소장이 영농교육 이수여부,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확보 사업계획성 여부를 심사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청

대분류	소분류	내용
귀농 관련 정보 제공	귀농 관련 정보 제공 기관	· 도 농업정책과 · 시군 농정과 · 시군 농업기술센터 · 기타 : 전국귀농운동본부, 농민신문 등
	시군 농업 기술 센터 귀농 상담실	· 목적 : 귀농희망자의 지식과 기술수준 등 능력에 맞는 단계별 상담 및 정보제공 · 영농초심자가 상담가능한 사항(예) - 농업통계(소득, 농업인력, 문화시설 등), 농정시책, 성공사례 - 농업인의 일반소양(건강, 농업관 등)과 식량작물, 원예, 축산 등 - 분야별 전문기술, 영농구비 조건(농지, 시설, 장비 등) · 영농경험자가 상담가능한 사항(예) - 소득분석자료, 전망, 성공사례, 문제점 등 귀농희망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자료 - 품목별 전문기술 상담 및 현지지도 - 각급 지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참여 및 선도농업인 농장 방문
	농협	· 전국 약 1,400개 읍면단위 지역농협 및 전문농협의 안내

1. 귀농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

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귀농상담실
-귀농희망자의 지식과 기술수준 등 능력에 맞는 단계별 상담 및 정보습득

-영농초심자가 상담가능한 사항(예)
- 농업통계(소득, 농업인력, 문화시설 등), 농정시책, 성공사례
- 농업인의 일반소양(건강, 농업관 등)과 식량작물, 원예, 축산 등
- 분야별 전문기술, 영농구비 조건(농지, 시설, 장비 등)

-영농경험자가 상담가능한 사항(예)
- 소득분석자료, 전망, 성공사례, 문제점 등 귀농희망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자료
- 품목별 전문기술 상담 및 현지지도
- 각급 지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참여 및 선도농업인 농장 방문

나. 농 협
-전국 약1,400개 읍면단위 지역농협 및 전문농협의 안내

다. 귀농교육프로그램
-귀농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귀농교육프로그램 실시시관
- 도 농업정책과
- 시.군 농정과
- 시.군 농업기술센터

라. 농민신문

마. 전국귀농운동본부 02-742-4611, 4612

2. 귀농자영농창업자금지원

가. 목적

귀농한자에 대하여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구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정착을 촉진

2000년도 지원예산: 4000만원(전국 100억원)

나. 지원조건

· 대출최고한도: 가구당 2000만원
· 대출금리: 5.0%(대출금리가 변동되면, 변동금리적용)
·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균등 분활상환)
· 지원내용: 영농창업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기계, 비료, 농약유류 등 영농자재구입

다. 지원자격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99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촌(영농소재지)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구입(임차포함) 등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등 영농정착 여부를 귀농지역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확인한 자

- 영농교육을 3일 이상 이수한 55세 이하인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 영농교육은 농업관련 교육기관(정부 자자체, 민간단체 포함)에서 실시한 영농교육, 또는 귀농자교육을 포함하며, 농축산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영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단 타 농업정책자금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타산업에 상근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라. 지원방법

· 대상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신청
·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영농교육 이수 여부,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확보 사업계획성 여부를 심사하여 군수에게 신청
· 군수는 융자취급기관(농협)과 협의 배정된 자금범위내에서 우선하여 대상자 선정

마. 지원시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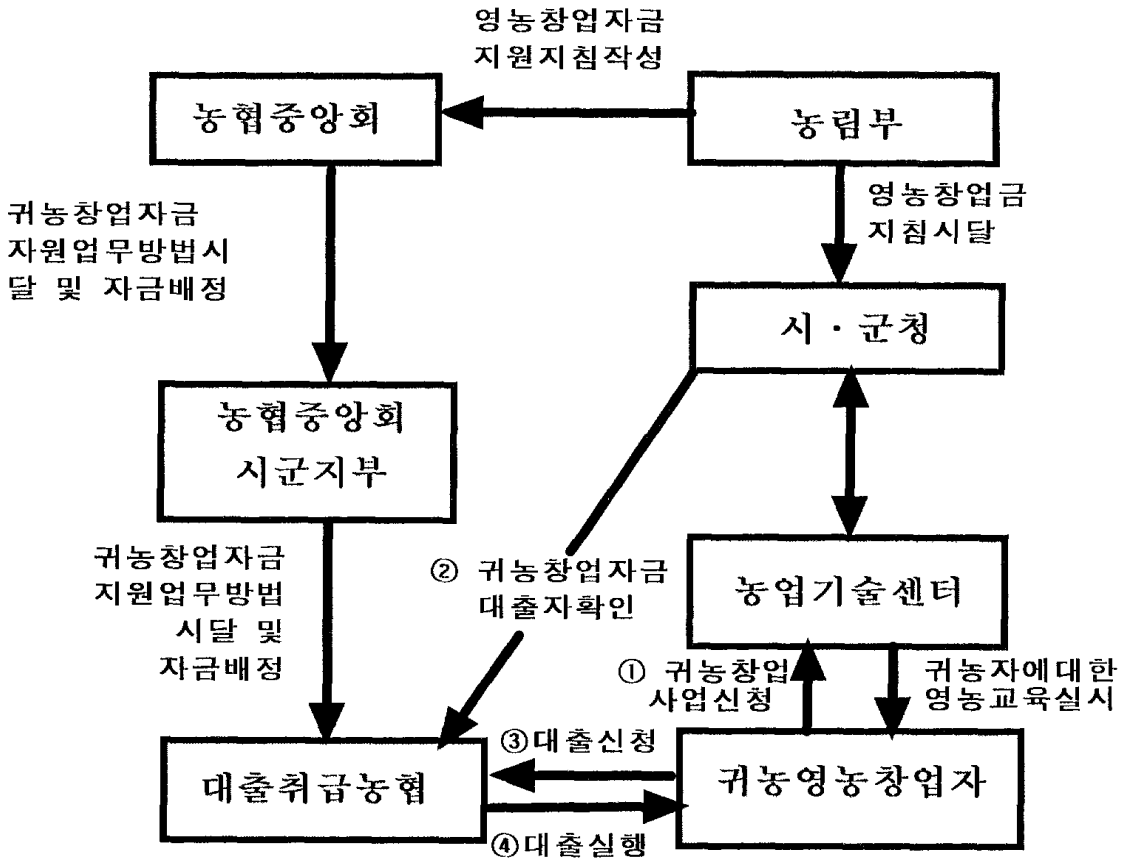
· 사업신청 및 계획서 1부.

· 영농교육이수 증명서 1부.

· 농지원부(읍, 면사무소 발급용) 1부.

· 주민등록등본(전 거주지기제) 1부.

바.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절차는 다음 <그림5- 1>과 같다.



<그림5-1>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절차도

3. 귀농자의 작목선택과 기술습득

가. 영농기술 습득

1) 각종 농업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주요 영농기술교육 기관

- 농촌진흥청(농촌개발연수관)

- 도 농업기술원(김제백구 농민교육과)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협 농업지도자교육원
-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2) 선진 농가 견학

-선진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배우는 방법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고 흥미를 유발시켜 좀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나 고생해서 터득한 기술을 선뜻 가르쳐 주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고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따를 수 있다.

-또 연고가 없는 경우 귀농자가 쉽게 이러한 선진농가와 접촉하기도 쉽지 않다.

선진 견학 대상처

-정부에서 선정한 선도농어가

-농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자(도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발간)에 나오는 선도 농가

-농협에서 선정한 새농민 수상자

-농촌진흥청 산하 작물시험장 등

3) 농업관련 책자나 신문, 잡지

귀농자 개인 스스로 연구하고 습득하는 방법이다.

영농기술책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소개받을 수도 있고 농업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교재, 일반서점에서 판매하는 서적 등을 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보자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등의 전문지도사의 도움(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4. 재정지원의 신청자격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한자(도농복합시의 농촌동 거주자 제외)로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1998년 1월 1일 이후 귀농하여 농촌(영농소재지)으로 주소지를 옮긴 자

-영농기반확보 등 영농정착한 자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 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5. 작물 선택

-농업분야는 크게 과수, 채소, 축산, 특용작물, 화훼, 관광농업,
식량작물 등 7개 분야로 분류
-자신의 경영능력, 투입자본 규모, 판매, 지적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농업분야 구분

- 식량작물 : 대단위 경작지가 필요하며 쌀, 보리, 우리밀, 우리콩, 감자, 고구마
- 특용작물 : 버섯류, 느타리, 표고, 팽이버섯
- 약초류 : 인삼, 영지버섯, 더덕, 장뇌, 작약, 황기, 천마 등
- 채소분야 : 과채류 -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멜론, 가지, 고추, 호박 등
  엽채류 - 상추, 쑥갓, 엔디브, 양채류
  양념채소류 - 마늘, 양파 등
  * 채소류는 재배방법에 따라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로 구분

- 과수분야 : 사과, 배 , 포도, 복숭아, 단감, 대추 유자, 매실 등
- 축산분야 : 비육(한우), 낙농(젖소), 양계, 양돈, 사슴, 관상조류, 토종닭, 흑염소 등
- 화훼분야 : 절화, 분야, 분재, 관상수로 나누며, 품목은 장미, 카아네이션, 국화, 안개꽃, 선인장류, 백합, 동양란, 서양란 등이 있음
- 관광농업 : 작물재배농자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 시설을 갖추고 농사체험과 농산물 직판장 가능

* 작물선택시 고려사항
-경영능력, 투자할 수 있는 자본규모, 판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

-작물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물이 경쟁력이 있고,
어떤 작물은 경쟁력이 없다고 단적으로 말 할 수는 없다

-대단위 토지가 필요한 쌀 등 곡물위주의 농업을 제외하고 과수, 채소, 낙농, 양계, 화훼, 특용작물 등은 수입농산물의 영향을 비교적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설채소와 낙농, 양계, 화훼는 초기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작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

- 산간지역은 국민휴양과 환경보전농업을 위주로 한 관광농업이 가능하고
- 준산간지역에서는 과수, 낙농, 한우가 적합하다.
- 평야지대는 기계화에 의한 대단위 쌀농사가 있을 수 있고,
- 도시근교에서는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한 집약적 농업이 적합하다.

6. 귀농자들의 농지와 주택 등 영농기반 마련

농지소유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소유토록 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가. 농지의 정의

-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 농지소유제도와 자격

- 농지는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군.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영농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의욕과 능력있는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신규영농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형태는 제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며, 농지소유자는 반드시 농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다. 농지처분사유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법인이 농지소유 자격을 상실한 경우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한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라. 농지 취득방법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이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가당 5ha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두지 않고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
- 실제 농지를 취득하고자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리·동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읍.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절차와 요건은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통하여 농지취득자의 적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자의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농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군.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발급신청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읍.면장에 발급 신청
시.군.읍.면장은 확인기준 및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③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농업경영목적 취득>

- 농업경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원부등본(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전용목적 취득>
- 농업경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전용허가증 등의 사본

④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은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농지는 소유상한 면적 이내일 것
-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이 설치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 이상
  - 이외의 농지는 : 1,000㎡
-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농지에 수목, 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 것

바. 농가주택 취득시 지방세 면제
-정부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또는 자력으로 건평 100㎡이내의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년간 면제

사. 귀농인의 농어촌주택 취득
-수도권정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지역과 면지역(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농어촌주택이라 함)
-귀농인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여 영도소득세 면제

아. 농가주택 신축 및 개량자금지원
-노후불량주택개량 및 신축자금 융자는 호당 2000만원으로 연리 5.5-6.0%로 5

년거치 15년상환
-농가주택개량(개축)시 건축허가면제
-건평 100㎡이내의 농가주택신축(개축)시 건축신고로 처리된다.

자. 정착지역 선택
-기존 농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연고가 있는곳으로 간다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새로운 귀향지를 물색한다면 선택할 작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지역별로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특산품이 존재)

- 예를 들면 안성배, 나주배, 전주 백도복숭아, 고창 수박, 영동 포도, 천안 포도, 진영 단감, 고흥 유자, 성주 참외, 구례 오이 등

차. 농협이용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읍.면)에 있는 농협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농협의 각종 사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조합원으로 가입은 출자금을 납입하고 가입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출자금은 1좌당 5,000원이며 1인당 2,500만원까지 출자 가능

7. 귀농자들에 대한 연도별 귀농정책의 적절성, 문제점 및 대안제시

가. 귀농자들의 성공정도
귀농자들의 경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귀농에 성공하였다고 하는 경우도 영농을 통하여 재산이 증가한 경우는 많지 않고, 지가상승 등을 통하여 재산이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

나. 귀농자들의 영농정착
정부정책자금을 받을 경우 땅이 있으면 6점 없으면 1점을 받아 땅이 있는 경우에 정부정책자금을 지원받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귀농자의 경우 농촌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렵다. 또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는데, 연고지에 귀농한 경우에는 보증인을 구할 수 있으나 연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 실제로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다.

정책자금은 주택이나 농지를 구입 못하고 영농자재만 구입할 수 있다. 따라

서 일부농민들은 선 집행 후 정책자금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정책자금으로 영농자재만 구입할 수 있게 하다보니, 대부분의 농촌에서 값비싼 영농자재(트랙터, 콤바인 등)가 필요이상으로 구비되어 있어, 기계활용도가 떨어지고 이자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귀농 정책자금을 받으면 부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흑염소와 같은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흑염소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은 부업으로 인정되어 할 수가 없다.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과 기간이 바쁜 영농일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교육이 난방 등의 편의상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름철은 일손이 바쁜 경우가 많다. 또 교육기간이 필요이상으로 길고 교육내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런데 교육내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참석하여야만 되어 심지어는 일손을 구하여 영농을 하고 교육에 참석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 교육을 받더라도 모두 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 귀농자들의 소득 및 부채

귀농자들의 일부는 영농후계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영농후계자로 선정돼 촉망받던 젊은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심적 부담감이 크다. 젊은 농업경영인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지원정책으로 막대한 빚만 떠안은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박홍수 회장(45)은 "각종재해 및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영농비 증가로 매년 농민들의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며 특히 젊은 농업 경영인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농촌의 앞날을 기약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초 도입된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너무 안일했다. 예를 들어 축산지원금의 경우 "심사규정이 '선시설 후지원'식이 되다보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축사를 늘리고 가축을 먼저 사들이는데 이미 많은 돈을 들여야 했다.

이춘경(42)씨도 이 당시 축산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해서 축사를 짓고 가축을 사들였다고 한다. 일정한 기준의 축사와 일정량의 사육 가축 수(소는 10마리이상)가 있어야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자연 무리를 하게됐다. 결국 쇠고기

파동으로 소값은 추락했고 사료값도 대기 힘들어 몽땅 팔아치워 버려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다.

문민정부시절 한창 농업경영인들에게 장려했던 유리온실사업도 유사한 케이스 가운데 하나. 한농연 남진백 사업부회장은 "당시 유리온실을 지으면 평당으로 따져 지원금이 나왔다"며 "4H회원들과 공동으로 2만여 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지었는데 시설을 갖추는데 35억원이 들었지만 지원금은 고작 12억원에 불과했다. 물론 부대시설을 갖추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때 유리온실을 짓고 재배했던 작물은 오이였다. 너도나도 유리온실에 같은 작물을 지배하다보니 제대로 가격을 받을 리가 없었다. 결국 3년동안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해 봤지만 시설투자에 들어간 비용의 이자도 못 건져 포기해 버렸다. 그 역시 농업후계자나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이 오히려 빚을 떠안게 된 원인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 왜냐하면 평범한 농사꾼들은 이런 제도상의 특혜(?)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빚은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농업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농업후계자 지원책이 오히려 빚을 많이 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제 2 절 귀농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따른 농촌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

귀농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따른 농촌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래 <표5-2>와 같다.

<표5-2> 귀농자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따른 농촌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

문항	응답내용	빈도
귀농의 애로사항	자금부족	32
	경험・기술 부족	13
	자녀교육의 문제	11
	농지확보의 어려움	10
	배우자의 부적응, 반대	8
	이웃과의 관계	8
	노동력의 부족	9
	주택마련의 어려움	6
	대출절차의 복잡함	6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8
	소득이 적음	4
	유통질서 미확립	2
	농기계구입자금 부족	2
	농산물 수입증가	1
	면세유가격 상승	1
정책행정분야	현실에 맞는 정책 시행	7
	일관된 정책입안과 시행	5
	수익성이 보장되는 정책 시행	4
	간소한 행정절차	3
	농자재 가격 보조, 인하	2
	사회간접시설 투자	3
	농지알선 활성화	2
	지속적인 지원	2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량 조절	1
	농촌여성관련 정책수립	1
	합리적 주택지원 정책	1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1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지원확대	1
	기존 농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	1

문항	응답내용	빈도
자금, 재정분야	자금지원의 확대	20
	간소한 자금대출 절차	6
	지속적인 자금 지원	6
	이자율 등 상환조건 개선	9
	자금의 타용도 전환 감시	3
	농기계구입자금 지원확대	4
	투명하고 융통성 있는 자금 지원	4
	농작물 피해보상제도 시행	1
	토지값 안정	1
	소농지원 확대	1
	의료보험료 인하	1
	새로운 기술 적용시 자금지원	1
경영, 기술분야	전문성 있는 강사의 확보	8
	전문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실시	10
	전문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3
	영농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2
	현장지도의 확대 실시	3
	지속적인 사후교육 필요	2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확대	1
	교육의 전체적 수요, 공급 관리	2
	산학협동의 필요	1
정보분야	신뢰할만한 농업정보의 구축, 제공	17
	정보이용의 원활화, 전용선 설치	5
	농업정보교육 실시 요망	2
	컴퓨터 지원	6
	정보이용료의 인하	1
	인터넷을 통한 전문가 접촉기회 확대	1
	TV를 이용한 정보제공	1
	작목반에 대한 지원	1
	신문구독여건 보장	1
	귀농정보제공	1

문항	응답내용	빈도
유통분야	농산물 가격보장	12
	유통구조의 개선, 정비	6
	직거래 활성화	9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5
	축산물 수매제도 활성화	2
	생산원가보장	4
	경매체계 개선	1
	계약재배의 확대	1
	농산물 등급제 도입, 실시	1
	획기적 저장기술 개발	1
	국산농산물 판매 촉진 캠페인	1
교육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내용	15
	농한기 교육 실시 요망	5
	지속적인 교육 필요	2
	현장경험 기회확대	5
	교육후 혜택 부여	1
	전산교육 실시 확대 실시	1
	귀농 및 농업관련제도에 대한 홍보, 교육 필요	1
기타	공공기관이 정보수집, 제공 기능 확대	
	차별화된 정책	
	교통, 의료, 문화적 환경 개선	
	농기계 수리	
	귀농시 적응이 쉽도록 정책적 배려	
	양질의 거름 공급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판단하기 이름	17
	귀농 후회	2
	성공	10
귀농권장에 대한 의견	귀농 권장	15
	권하고 싶지 않음	7
	여건 개선시 귀농 권장	12

제 3 절 귀농자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귀농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른 귀농자들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은 <표5-3>과 같다.

<표5-3> 귀농자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분야	내 용
정보	1. 현재 귀농에 대한 정보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함. 귀농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 현재 많은 귀농자들이 다시 도시로 유입된 경우가 많음. 귀농자들의 현 거주지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귀농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부터 정확하게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2. 각 지방자치단체와 각 귀농관련기관의 자료에도 차이가 많고 서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각 기관별로 동일한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수준과 전망도 다름. 각 기관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귀농자에게 제공하고 귀농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여야 함. 우선은 각 기관의 자료의 상호교환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를 요구하는 귀농자가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서 link가 이루어져야 함. 3. 귀농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귀농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함. 현재 관련기관의 인력으로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를 대체할 만한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존의 귀농자나 전문가와의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상에 게시판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야 함.

분야	내 용
정보	4. 도시생활자가 실직하여 귀농한 경우와 정년퇴임 후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귀농한 경우, 지역적 연고가 있어서 귀농한 경우와 연고가 없이 귀농한 경우, 영농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전혀 여건이 다르고 요구하는 정보도 차이가 많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각 귀농자의 경우에 따라서 제공하는 정보와 상담의 수준이 달라져야 함. 귀농정보제공 기관에 따라 정보의 차이가 있고,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음. 정보제공의 경우 각 정보제공기관은 모든 정보를 가치판단없이 제공하고, 귀농의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면과 애로사항, 성공사례와 더불어 실패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자가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 판단하게 하여야 함. 특히 IMF 이후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귀농을 하나의 사회현상처럼 긍정적이고 좋은면만 부각시킨 면이 없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도 시정되어야 함.

분야	내 용
자금	1. 귀농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데 지역적 연고를 가진 U턴 귀농자는 친인척을 통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지만, 지역적 연고가 없는 귀농자는 현실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고 따라서 귀농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그렇다고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자금회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따라서 가장 급한 농지구입 같은 경우에는 일정정도의 자금을 귀농자가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대보증인이 없더라도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상환이 곤란할 경우 자금상환 대신 농지를 처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도 있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현실에서는 연고지로의 U턴 귀농자가 아니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움. 2. 자금의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대부분의 농촌의 경우 농기계가 필요이상으로 공급되어 있는 실정임. 특히 일손이 부족한 경우 농기계의 가동률과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이, 필요할 때에 바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니 대부분의 농촌에서 농기계는 과다구입되어 있고, 이는 결국 농가부채가 되는 경우가 많음. 부품교체와 수리의 어려움 등으로 기계의 내구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교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활한 부품조달과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3. 현재 지원조건 중에 전업으로 창업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함. 예를 들어 흑염소를 사육하는 농민의 경우 농가내에서 흑염소를 가공하면 수입이 높아지는데도 흑염소 가공시설을 갖추면 전업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함. 따라서 원칙을 세우되 이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됨.

분야	내 용
교육	1. 귀농교육을 실시할 경우 각 교육기관의 내용을 종합하고 비교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귀농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교육을 통하여 모든 귀농자가 판단력과 현실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함. 영농경험이 있는 귀농자와 전혀 영농경험이 없는 귀농자에게 동일한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음. 귀농교육도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것보다는 귀농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귀농의사와 의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한 후, 이후 귀농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세부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음. 2. 귀농이후 이루어지는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내용과 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함. 많은 지역의 경우 난방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사하는 작목에 따라서 특정기간에는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교육내용도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말고, 세부작목별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만 참석하도록 하여야 함. 세부작목별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해당작목에 종사하는 귀농자들이 가장 한가한 기간에 교육일정을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분야가 아니거나 관심이 없는 분야에 교육참석을 요구하거나,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4. 귀농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충분한 교육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에 종사하는 귀농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선진농가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함. 5. 교육프로그램에 영농정착에 관한 교육 이외에, 효과적인 경영설계와 계획수립, 사후평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교육과 시장 외 여건에 대하여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분야	내 용
유통	1. 귀농에 성공했다고 답변한 대부분의 귀농자들이 작목을 잘 선택한 것을 이유로 들었으며 작목을 잘 선택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가격의 등락폭이 적었다는 것을 들었음. 결국 귀농의 성공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안정적인 유통망을 통한 가격의 안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성공적인 귀농은 어려움. 귀농 후 자산이 증가한 귀농자의 경우에도 영농을 통하여 자산이 증가한 경우는 드물고, 농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산증가가 대부분이었음. 2. 특히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농산물가격폭락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은 농민이 많았음. 유리온실과 축산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영농후계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민들이 가격폭락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농민들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불안정한 농산물가격이 가져오는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냄. 3. 귀농자들도 공동출하나 직거래 등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하며, 작목선택시에도 사전에 정보를 검색하고 판단하여야 하며 주위의 말만 믿고 따라하여서는 안됨. 작목선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동향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다각경영이 요구됨.

분야	내 용
기타	1. 귀농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귀농 이후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더불어 지역내의 귀농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2. 기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일부 지역의 경우 학생수를 기준으로 폐교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초등학교의 경우에 대중교통의 부족과 거리상의 문제로 등교가 어려워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국 노동력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음. 3. 일부 정부정책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고려되어야 함. 귀농자의 경우 농번기에 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농업에서 제공하는 인건비 보다 공공근로에서 제공하는 인건비가 높다 보니, 노동력을 구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제 4절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중앙 또는 시·도 단위 귀농지원센터(가칭)를 설립, 운영하여 귀농 단계에 따라 귀농지원센터의 귀농 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귀농자에 한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실패 가능성이 높아 농촌의 새로운 경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귀농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역량있는 귀농자들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귀농 지원책은 1)단순한 기준에 의한 차별화되지 않은 영농자금 지원, 2) 지원금에 대한 단기 상환, 3) 추가적 지원의 전무, 4) 영농교육 기관의 다원화에 따른 전문성 및 현장성 약화, 5) 자금 사용처의 제약에 따른 불필요한 영농자재의 구매, 6) 귀농 정착 이후 지원 중심, 7) 소액(2,000만원) 지원 및 대출 절차의 까다로움, 8) 교육의 지속성 결여, 9) Networking 기능 결여, 10) 충분한 귀농 준비에 대한 고려 미비, 11) 지역사회조직, 영농조직에의 참여 결여로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귀농을 원하는 사람 모두를 지원하고, 이들이 모두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만약에 이들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의 농촌문제는 없을 것이다. 기존의 방식으로 귀농자를 돕는다면 현재의 농촌 문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귀농자들의 영농 실패로 인한 농촌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모두를 지원해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은 귀농시켜 도시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농업도 전문경영인 시대다. 전문경영인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고, 머리도 명석하고,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경영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 인프라가 미약하다면,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농업도 마찬가지다. 전문경영인으로 농업에서 성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농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노하우는 물론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 제시되는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문농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를 가칭 정예 귀농 프로그램이라 이름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림 5-1>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5-2>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귀농 단계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귀농 결심 ↓	- 기술 및 경영정보 습득: 귀농 전 직장에 근무하면서 충분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부여,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경영, 유통, 가격정보, 작목 선택, 기 귀농자들의 성공과 실패사례 등에 대한 교육 필요 - 실업문제 해결 차원이 아닌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공 가능성, 기술력, 자본력, 청년층 중심의 차별화된 지원책 보장(성공가능성이 없는 귀농 잠재자는 지원에서 제외) - 선진 농어가 견학: 토지 규모, 자본력, 학력, 경험 등이 유사한 기존 귀농 성공자 등 귀농자 결심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이 유사한 선진 농어가 견학
농작물 선택 ↓	- 농작물 선택이 사실상 귀농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므로, 기존 귀농자들의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목을 선택함. - 경작 희망 농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유통정보, 가격정보 등 사전 교육실시 - 귀농 희망자의 경제적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작목 선택 유도
경작지 물색 ↓	- 선택한 농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 우선 고려(귀농자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는 농가에게 경제적 지원책 마련) - 귀농예정자의 자본적, 기술력,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역적 연고가 있는 지역 우선 고려 ※ 귀농지역센터의 허가를 받아 경작지 선정, 귀농 가능
영농기술습득 ↓	- 1차적 영농기술 습득: 귀농 결심단계9도시 거주 기간 중)에서 개략적인 기술을 습득할 기회부여 - 2차적 영농기술 습득: 해당분야전문가를 선정하여 지도 - 3차적 영농기술 습득: 귀농 인턴제를 도입하여 최소한 1회의 경작→수확→판매를 귀농 성공자(특히, 귀농 당시의 여러 여건이 비슷한 곳)의 농장에서 실시 - 지속적으로 영농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선도농가와 Networking -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대학, 농업기술센터, 농업계 연구소의 전문화된 인력 Pool을 운영하여 귀농지원센터에서 교육 주관

주택, 농지 구입 ↓	- 주택, 농지구입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 - 유휴지, 공유지 등 알선 충분한 농지 확보(토지 이용권을 10년간 귀농자에 부여) - 주택 사전 확보 보장
영농 계획 수립 ↓	- 필요 농기구를 장기 임대 또는 기존 농민들이 유휴 농기구 구입 후 임대 - 작목에 따라 최저 가격 보장제 실시(초기 3년간) - 귀농지원센터에서 귀농자의 실정에 맞는 영농계획을 수립하도록 협력
영농 정착	- 필요시 심사 후 자금지원(귀농 지원센터에서 심사) - 지속적인 선도농가, 해당전문가 등 현업 활용성이 높은 교육 실시 - 작목반 등 영농 조직 활동 활성화 도모 - 판로확보 등 지속적 지도 -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우, 새로운 귀농자들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 귀농지원센터(도단위)를 설치하여 도시의 귀농 잠재자의 귀농 성공여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별 지원, 귀농자를 전담하여 지도하는 귀농 도우미제도 운영

※ 귀농자 귀농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기농지원센터(가칭)에서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선정한 귀농자에 대해 1) 충분한 운영자금 장기 지원, 2) 선도 농가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한 기술 및 유통정보 습득, 3) 경작지(귀농지) 서정 허가제, 4) 주택, 농지의 확보 보장, 5) 지속적인 기술력, 유통 정보 등의 지원을 정례화하는 가칭 '귀농자 자금지원 특별법'을 제정 운영하여 위의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귀농자들의 어려움을 조사하여 귀농자들의 조기 농촌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1) 귀농자들의 귀농동기, 귀농준비, 귀농교육과 귀농정보를 조사하고, 2) 귀농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조사하고, 3) 귀농의 성패요인을 분석하여, 4) 보다 효과적인 귀농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검토를 통하여 조사도구를 작성한 후 전문가의 안면타당도를 거쳐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에 참가한 귀농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이 조사도구를 가지고 1,200부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하여 이 중 수거된 526매 중 응답자의 실수와 기타 이유로 분석이 불가능한 32매를 제외한 494매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조사대상 귀농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1) 귀농이전에 직장인이 38.1%, 자영업이 35.6%였고, (2) 교육수준은 고졸이 46.0%, 전문대 이상 학력이 25.1%였다. (3) 또 59.4%가 영농경험이 없었으며, (4) 귀농동기는 보다 나은 삶은 삶을 위한 것이 19.1%, 도시에서 실직으로 인한 귀농이 17.5%였다.

2) 귀농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1) 귀농자금마련이 30.5%, (2) 토지와 가축 마련이 16.3%, (3) 영농기술과 경험부족이 15.3%였다.

3) 귀농자들이 영농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곳은; (1) 농업기술센터가 23.8%, 이웃농민이 22.0%였고, (2) 귀농교육프로그램이 19.3%, 서적이 13.8%였다.

4) 귀농의 성공여부에 대한 귀농자의 자체 평가에 의하면 11.8%가 성공적이었다고 답변한 반면, 56.%는 실패했다고 답변했으며, 32.0%는 아직 답변하기 이

르다고 했다.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귀농의 성공요인은, (1) 적정한 작목선택이 13.4%, 영농기술이 7.9%, 유통기술이 3.5%였다. 귀농자들이 적정한 작목이라고 답변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의 폭락이 적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작목을 의미했다. 즉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이 귀농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귀농에 실패했다고 답변한 경우, (1)영농자금 부족이 28.5%,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이 15.3%, 영농기술과 경험부족이 14.7%, 농지부족이 13.0%, 노동력부족이 12.8%였다.

6) 귀농교육프로그램의 강사, 내용, 기간과 시간 등에 대하여는 교육에 참가한 귀농자들의 46.3%가 강사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으며, 시간과 기간에 대하여는 33.2%,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28.3%가 만족하고 있었다.

7) 귀농자들이 영농을 늘이고 싶은 분야는 특용작물이 21.0%, 환경농업이 17.3%였다. 또 귀농교육을 맡아주었으면 하는 귀농교육강사로서는 담당분야의 전문가가 46.5%, 현장전문가가 33.2%, 성공한 귀농자가 10.4%였다.

제 2 절 제 언

위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기초로, 귀농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한다.

1) 귀농자들의 동기, 준비, 교육과 정보수집에 대하여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귀농자들의 귀농동기나 준비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고 영농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귀농자들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3) 귀농교육에 있어서도 귀농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기간과 내용 등에 대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귀농 이후에도 선택작목에 따라서 농한기나 관심분야에 차이가 많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기간에 걸친 교육보

다는 관심분야별로 세부사항을 편한 시기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귀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이 좀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이외에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기술과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효율적인 영농을 위한 영농계획 수립과 영농평가 등에 대하여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귀농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귀농을 증진시키기 위한 좀 더 많은 조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역별로 귀농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구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귀농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참 고 문 헌

김정연, 1987, 농촌 인구의 이동과 도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2), pp. 205-223.

농촌진흥청, 1998, 귀농농가의 경영모형 길잡이, 농촌진흥청.

McGee, G., 1984, 빈곤의 증세: 동남아시아의 경우,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서울: 한길사

민상기, 1995, 귀농자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영일, 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 -귀농사례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규, 1985, 도시빈민지역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민식, 1997, 최근의 귀농동향과 지원책 모색, Info-Brief, 제94호

배성의 외 2인, 1998, 귀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변용찬 외 3인, 1991,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규선・박덕병, 1997,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산논총, 제5권.

서규선・이무근, 1984, 새마을 청소년회 생애탐색과제설정과 그 지도를 위한 이론과 고찰,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종합연구, 제4권 제1호.

이동하, 1998,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용, 1998, 귀농농가의 경영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농업경영담당관실.

이정관, 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변인 분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희섭, 1979, '한국에 있어서의 빈곤문제',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전라북도농촌진흥원, 1997, 지역농업개발연구: 전북지역 U턴 농가의 영농정착에 관한 연구, pp. 102-111.

정하석 외 4인, 1998, "U-턴(歸)農家의 定着方案에 관한 硏究," 農經・農機械論文集, 제40권 2호, pp. 16-25.

조록환, 1998, "귀농가구의 생활실태," 농촌생활과학, 통권 73호,

농촌생활연구소.
조성준, 1977, 농업고등학교 졸업생 귀농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hoi, Jin Ho, 1984, 'Urban to Rural Migration in Korea', Goidscheider C.(ed), Rural Migration in Developing Nations, Westview Press.
Choldin, H. M., 1973, Kinship Networks in the Migration Proc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70.
Connell, J. et al., 1976, Migration from Rural Areas: The Evidence from Village Studies,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Davanzo, J. and Peter M., 1981, "Return and Other Sequences of Migration in the Unites States", Demography Vol. 18, No. 1.
Findley, S., 1977, Planning for Internal Migration: A Review of Issues and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Fielding, G. J., 1974, Geography as Social Science, N.Y.: Harper and Row Pub.
Graves, N. B., 1974, "Adaptive Strategies in Urba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3.
Jansen, C., 1969, "Some Sociological Aspects of Migration", in J.4. Jackson(ed.), Migra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e, On-Jook, 1980, Urban-to-Rural Return Migration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Lee On-Jook & Kim, Kyong-dong, 1980, Migration and Adaptation to the City: Comparative Profile of Returners and Stayers in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Vol. 8.
Melville, M. B., 1978, Mexico Women Adapt to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 Vol. 12.
Moore, 1971, Mexican Americans and Cities: A Study in Migration Proc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7
Salih, K., 1981, Man and work in the informal Sector, Paper Presented to 1981 Asian Reg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Relations.
Sjoberg, G., 1969, Cities in Developing and in Industrial Societies: A

Cross Cultural Analysis, in Philip M. causer & Leo. F. Schnore(eds.), The Study of Urbaniz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Todaro, M.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No.2

Turner, V. F., 1977, Urbanization in Middle Ea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관련 인터넷 사이트

http://www.hankyong.ac.kr/hchwang/student/배선숙.htm

http://uisungatec.go.kr?u_turn/meaning.htm

http://www.nongja.co.kr

http://kukminilbo.co.kr

http://www.maf.go.kr

부 록

각 도별로 5명씩 심층면접한 내용을 아래의 표로 제시한다.

[인터뷰 내용]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기	송용인	99년 4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부인의 반대로 귀농을 1년간 미뤘음. 자녀의 교육문제 정착초기: 자금과 기술의 부족, 농지확보의 어려움, 임차의 어려움, 텃새 현재: 기후조건이 양호하지 않아 수확할 농산물이 없음. 자금회수 곤란	【배우자의 반대】 【자녀교육문제】 【자금부족】 【텃새】 【농지확보어려움】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귀농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	【지속적인 지원】
<자금・재정분야> 귀농인들에게 귀농정착자금 지급.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후에 따른 피해보상 필요. 자금대출이 용이했으면 좋겠음. 영농정착단계까지 지속적인 지원.	【귀농정착자금지급】 【농작물피해보상】 【용이한 자금대출】 【지속적인 지원】
<경영・기술분야> 농업기술센터와 연수관 지원 요망. 각 지역별 농업기술 및 경영을 전담하는 전문교육기관 필요. 국가적 차원에서 농산물 수요・공급 파악하여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기반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지원	【농업 전담 교육기관 필요】 【국가적 차원에서 수요・공급 관리】
<정보분야> 인터넷 검색시 농업관련 링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인터넷상 농업정보확보】
<유통분야>	
<교육> 농업인들(귀농자)에게 면사무소(전입신고시)라든지 기타 정부기관에서 귀농 관련제도, 농업관련제도에 대한 기초, 혜택 등에 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해 주길 바란다.	【귀농 및 농업 관련제도에 대한 홍보・교육 필요】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판단하기 이름】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친구나 친척들에게 귀농을 권하고 싶다. 단 귀농에 앞서서 지역주민들과의 융화하려는 노력과 농업실패에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귀농권장】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기	한정섭	98년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농기계 구입자금 정착초기: 고향이라서 별 애로사항은 업음. 현재: 수입농산물과 면세유가격의 폭등	【농기계구입자금】 【수입농산물】 【면세유가격상승】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농자재 가격이 너무 비쌈	【비싼 농자재가격】
<자금・재정분야> 자금 대출이 아닌 농지전용을 못하게 하고 평당 논값의 가격을 내려야 함.	【논값 안정】
<경영・기술분야> 농촌기술센타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며 현장을 지도해야 함.	【현장지도】
<정보분야> 땅도 적고 나이도 있고 해서 깊게 생각한 적은 없음.	
<유통분야> 직거래가 말만 직거래이지 실효성이 없음.	【실효성이 있는 직거래】
<교육> 농사기술 숙련 정도에 따라 실습을 할 수 있어야 함.	【현장실습】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땅을 사서 수지 계산이 맞지 않으므로 귀농을 권하고 싶지 않음.	【권하고 싶지 않음】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기	염현숙	98년 6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자금부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음. 작목선정의 어려움. 정착초기: 융자도 안되고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었음. 농기계 구입시 보조를 안해줘서 구입이 어려웠음. 부족한 영농기술. 텃새가 심했음. 현재: 일손부족, 농산물의 판매가 문제				【자금부족】【텃새】【작목선택의 어려움】【농기계구입어려움】【일손부족】【판로문제】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농산물 항목별 생산량 조정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설정해 생산량 추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농업여성들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함(탁아시설 등).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필요				【농산물 항목별 생산량 조정안 수립】【농업여성관련 정책수립】
<자금·재정분야>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자금을 지원. 자금 지원을 융통성있게 해야 함(풍·흉에 따라). 농기계 구입시 지원 요망.				【투명하고 융통성있는 자금지원】【농기계구입지원】
<경영·기술·정보분야> 농업기술센터에 고구마 작목 전문인 없음. 기술자료 요청하면 FAX로 보내주므로, 경영·기술정보가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다. 기술에 관한 것을 현장에서 가르쳐야 한다. 유기농 관련 기술 부족함. 기술에 관한 한 농민들의 요구조사나 실태파악 필요.				【해당 작목 전문인 필요】【현장기술교육】【농민들의 요구조사나 실태파악필요】
<유통분야> 직거래를 알선해 주는 기관 필요. 생산해 낸 농산물의 가격 보장. 생산해 낸 농산물을 판매망 확보				【직거래 알선기관필요】【농산물가격보장】【판매망확보】
<교육> 강의식 위주가 아닌 현장교육 및 실습위주 교육. 선진농가견학				【현장·실습위주 교육】【선진농가견학】
<기타> 농촌이 처해 있는 어려움들이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농촌문제해결】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왜 귀농을 했을까 후회를 하고 있다. 도시에 살 때보다 더 가계가 더 힘들어졌다.				【귀농 후회】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농촌이 처해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면, 농촌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더 없이 넉넉해지고, 윤택해진다.				【농촌문제해결 시 귀농 권장】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기	김근식	98년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주위의 시선. 정착초기: 부족한 기술. 불안정한 가격. 현재: 출하기간 조절의 어려움.	【텃새】【부족한 기술】【불안정한 가격】【출하기간 조절 어려움】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자금・재정분야> 자금지원・융자액 너무 적다.	【자금・융자액 확대】
<경영・기술분야> 경영・기술분야를 개별적으로 전문인력이 담당	【개별적・전문적 경영 및 기술교육】
<정보분야> 작목반・단체 등에 컴퓨터 지원해서 물가 동향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용한 정보 시시각각 제공	【컴퓨터지원】【유용정보 제공】
<유통분야> 경매 system 개선. 직거래 상설매장 및 직거래 장터. 생산원가 보장	【경매체계개선】【직거래 상설매장 및 장터】【생산원가 보장】
<교육>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필요. 귀농자들이 전문분야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금지원 시에도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자금지원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해야 한다.	【장기교육】【전문화된 교육】【교육 후 혜택마련】
<기타> 정체되어 있는 농촌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귀농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찾게 하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하길 엄청 잘했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성공】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도시 생활보다는 더 조리있게 생활할 수 있다.	【권장】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기	조용석	99년 3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작목 선택의 문제. 자료 및 교육기관 부족. 정착초기: 영농기술이나 경험 부족. 영농자금부족 현재: 대출절차 복잡함. 영농자금 부족.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	【작목선택문제】【자료 및 교육기관부족】【영농자금부족】【대출절차의 복잡함】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용두사미정책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정책입안과 시행이었으면 한다.	【일관된 정책입안과 시행】
<자금・재정분야> 한꺼번에 돈을 대출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영농자금의 확대로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지속적인 지원】【영농자금 확대지원으로 경쟁력강화】
<경영・기술분야> 귀농자들이 농업경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철저한 사후관리로 낙오 및 중도하차 하는 귀농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영농기술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품종개량. 농기계 및 시설 개발을 통해서 도시와의 빈부격차 해소해야 함.	【지속적인 사후관리】【영농기술 관련 프로그램개발】【품종개량 및 농기계시설개발】
<정보분야> 전문인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농업인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가 너무 이론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산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원활한 정보교환】【용이한 정보 제공】
<유통분야> 직거래의 유통체계. 계약 재배식이 생활화된다면 농산물의 생산가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저장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직거래 활성화】【계약 재배식강화】【획기적인 저장방법】
<교육> 강사들이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일상생활에 접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실용적인 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한지 얼마 안되어서 판단하기 어렵다.	【판단하기 이름】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친구나 친척들에게 귀농을 권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지금 농촌의 현실처럼, 불합리한 것들이 지속된다면 절대 마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점 해결되면 권장】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충북	박진형	98년 11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영농자금 조달의 어려움. 정착초기: 대출이 어렵고 영농자금 조달하기 어려움. 현재: 노동의 정도에 비해 돌아오는 소득이 적음.	【자금부족】 【적은소득】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농자재에 정확한 가격표시 하도록 유도해줄것	【농자재에 가격표시】
<자금・재정분야> 적절한 자금을 지원해줄것	【적절한 자금지원】
<경영・기술분야>	
<정보분야>	
<유통분야>	
<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아직 알 수 없다.	【판단하기이름】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충북	양우진	98년 7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대출이 까다로워 어려웠음. 정착초기: 영농자금 조달이 안돼 어려웠음. 현재: 노동에 비해 소득이 적어 어려움.				【대출의 까다로움】 【자금부족】 【 저소득】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지원】
<자금・재정분야> 새로운 농법으로 농사지으려고 하는 귀농자에게 자금지원을 해줄것.				【새로운 방법 시도할 때 적극적인 지원】
<경영・기술분야>				
<정보분야>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선을 설치해줄 것.				【전용선 설치】
<유통분야>				
<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아직 성공이나 실패라고 말할 수 없음.				【아직 판단하기 이름】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권하고 싶지 않음.				【권하고 싶지 않음】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충북	배시득	98년 5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영농기반과 자금이 부족했음. 정착초기: 현재:	【영농기금】 【영농자금】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농어촌 기반시설 및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 및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투자, 최저 생계비의 보장.	【사회간접시설 투자】【최저생계비의 보장】
<자금・재정분야> 자금지원이 형식에 얽매여 실제 귀농자 및 영농종사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농가부채 증가시킴.	【형식적인 자금 지원】
<경영・기술분야>	
<정보분야> 정책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종합적인 영농정보를 제공해야 함.	【영농정보제공】
<유통분야> 영농 종사자 개개인이 유통을 하기에는 법적, 행정적 규제와 문제가 자금, 유통망이 너무 형식적임.	【유통망의 지원】
<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권하고 싶지 않음.	【권하고 싶지 않음】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충북	남용구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정착초기: 현재: 특성화 상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농촌의 현실을 바로 알고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라 최소한의 10년 이상의 정책이 필요	【장기간의 정책】
<자금・재정분야>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음	【충분한 자금 지원】
<경영・기술분야> 누구근 기술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하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할 수가 없음	【자금과 인력의 충분한 지원】
<정보분야>	
<유통분야> 농산물의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직거래를 통해 제대로 된 값을 받도록 해야함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
<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실패라 말할 수 없지만 농촌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어려운 상황】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권하고 싶지 않다	【권장하고 싶지 않음】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충북	김상봉	98년 9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자금부족. 농지구입. 영농자금 조달. 작목선택 정착초기: 영농기술과 경험 부족. 영농자금 부족 현재: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자금부족】【작목선택】【영농기술·경험 부족】【불안정한 농산물가격】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행정 정책시행. 도·농간의 세율 차등화 정책. 건폐율을 높여야 한다.	【현실에 맞는 정책시행】【세율차등화】
<자금·재정분야> 세율조정 필요. 자금에 대한 부과세를 세금은 5%지만 농민이 지불해야 하는 것은 10%임.	【세율조정 필요】
<경영·기술분야>	
<정보분야>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정보 획득할 수 있지만, PC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데 사용료가 너무 비쌈. 전용선 확충하여 무료 또는 저렴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용이한 PC이용】【저렴한 정보이용료】【유용한 정보제공】
<유통분야> 농협이나 농민개인이 농산물 품질 개선 필요. 유통구조 개선하여 생산자에게는 높은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	【유통구조 개선】【생산자의 소득보장】
<교육> 이론적인 것을 강조하고 주입식 교육이 많아 현장이해력이 부족한 교육이 많다. 농번기때 교육이 있어 문제. 교육대상자들이 너무 많이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짐. 정외소수식의 교육 요망.	【현실적인 교육】【농한기때 교육시행】【정외소수식의 교육】
<기타> 정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차별화된 정책】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귀농 성패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판단하기 이름】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농촌에 적응을 잘하고 어느 정도 농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귀 농 권장	【권장】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충남	양금용	98년 4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영농자금조달문제. 자녀교육문제. 주택문제 정착초기: 농기계 구입 및 수리. 까다로운 영농자금 대출.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현재: 자녀교육문제, 문화·의료시설 열악.	【자금부족】 【교육·주택문제】 【농기계 구입 및 수리】【복잡한 영농자금대출】【불안정한 농산물가격】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농업관련행정기관의 일관성이 있어야 함. 행정절차의 복잡성 해소	【농업관련행정기관의 일관성】【간편한 행정절차】
<자금·재정분야> 자금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대농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적이다. 각 시·군별로 자금을 분배하고 있는데 시정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농민의 입장에서 자금지원해야 함.	【자금지원확충】 【소농지원확대】 【자금분배합리화】
<경영·기술분야>	
<정보분야> 일선기관에서는 업무 이관하는 경향이 있다. 전화상담하면 담당자들의 책임회피가 허다하다. 인터넷 등에서 농업관련자료 개방.	【인터넷 농업자료개방】【책임감있게 정보제공】
<유통분야> 축산 수매제도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축산 수매제도 활성화】
<교육> 영농교육 주로 겨울철 또는 농한기 때 실시	【농한기때 영농교육실시】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직장생활하면서도 계속 귀농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	【성공】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소신만 있으면 농촌에 와서 사는 것도 괜찮다.	【권장】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충남	양인관	99년 4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대출조건이 까다로움, 그러나, 농협에서 대출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해결함. 정착초기: 현재:	【대출조건이 까다로움】 【대출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실질적으로 귀농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별로 없는 것 같음 수익성이 보장되는 정책이 필요함.	【수익성이 보장되는 정책】
<자금・재정분야>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농협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대출조건이 까다로움】 【대출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경영・기술분야> 벼에 병이 생겨서 지도소에 연락했더니 몇 번만에 겨우 와서는 그냥 살펴보고만 가는 실정임	【농업기술을 지닌 지도요원의 확충】
<정보분야> 정보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고 있음.	【믿을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유통분야> 현재는 농협에서 도와 주고 있는 실정임.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유통 전담 기구로서의 농협】
<교육> 중3 아들이 학교 문제로 대전에 나가 있음. 고1이 되면 아내도 나가 있어야 하는데 적은 수입에 2가구 수입이 어려움.	【학비의 국고 지원】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 1년이라 아직은 잘모르는 실정임.	【판단하기 이름】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충남	노신상	98년 11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자녀 교육문제가 있었음. 정착초기: 귀농자금이 너무 적어서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했음. 현재: 영농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				【자녀교육문제】【자금부족】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귀농자들에게 도움을 줄것.				【행정절차 간소화】
<자금・재정분야> 자금지원 규모를 늘려줄것.				【충분한 자금지원】
<경영・기술분야>				
<정보분야> TV를 통해 정보를 많이 제공해줄 것. 작목반에 대한 지원 필요함.				【TV활용하여 정보제공】【작목반에 대한 지원】
<유통분야> 농협을 통한 유통망 확대 필요.				
<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초기라 아직 성공이나 실패를 말할 수 없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확신이 있음.				【아직 판단하기 이름】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현재로서는 권장하거나 반대하기 어려움 반반임.				【아직 절반임】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충남	김영삼	99년 5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과수, 채소, 시설하우스에 대한 작목선정. 정착초기: 자본금의 부족. 현재: 자본금	【작목선정】【자본금의 부족】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농업자금의 사용에 있어서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사후 지속적인 영농이 지원되야 함.	【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자금・재정분야> 농어민 후계자에게는 장기 융자가 가능하고 보조도 많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인 귀농인에게도 같은 자격을 부여 해야 함.	【농어민 후계자와 같은 자격을 부여】
<경영・기술분야> 교육기간동안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급해야 함	【교육기간동안 정부에서 생계비 지급】
<정보분야> 관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있는 교육내용은 실제와 거리가 먼 교과서적인 내용뿐임.	【실제적인 정보 공급】
<유통분야>	
<교육>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려 해도 마땅한 학원이 없고 다양한 공부를 시킬 수가 없음.	【자녀들의 학원 문제】【교육기회의 다양성 제공】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충남	황인갑	98년 11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농업기술부족. 시설자금부족 정착초기: 생박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 현재: 기술은 나름대로의 노하우을 확보				【농업기술・자금부족】【자금부족】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기존 농민들로 조직된 작목반과 법인등에 참여 하기가 쉽지 않음. 기존농민들의 배타성이 요인.				【기존농민의 배타성】
<자금・재정분야> 귀농인에게도 추가자금지원이 있어야 함				【추가자금지원】
<경영・기술분야> 농한기에 농촌진흥청에서 작목 전문적인 교육을 교육비를 받더라도 효과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내실있고 충실한 교육이 필요.				【내실있는 영농교육】
<정보분야> 작목반, 법인 단체회원들에게는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처럼 귀농인들에게도 지속적인 지원 필요.				【지속적인 지원】
<유통분야> 물류센터를 건설해서 직거래를 실현.				【직거래 실현】
<교육>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이 이론적 교육위주가 실용적인 현장적용 가능한 교육과 이론적인 교육이 필요				【실용적인 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시골생활이 좋다. 농업은 정직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와야 함.				【권함】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전북	김광화	96년 3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배우자의 반대. 정착초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 현재: 자녀교육	【배우자의 반대】 【텃새】 【자녀교육】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귀농자 자녀들의 교육문제(교통문제)해결 방안마련. 주택을 개량할 시 자금지원은 불합리하다. 공시지가 차등화 정책. 군・도 휴지(休地) 귀농자에게 알선해 주는 제도 필요	【교육・교통문제해결】 【합리적인 주택지원정책 】 【휴지(休地) 알선】
<자금・재정분야> 의료보험료 너무 비싸다. 장기저리 융자제도 필요.	【저렴한 의료보험료】 【장기저리 융자】
<경영・기술분야> 귀농자 농업경영실정에 맞는 것이 시행되어야 한다.	【실정에 맞는 농업경영기술 시행】
<정보분야> 지역정보를 네트워크화 해서 정보가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정보 네트워크화】
<유통분야> 자가소비 할 것만 생산한다.	
<교육> 실질적으로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귀농인들의 실정에 맞는 교육시행	【실정에 맞는 교육시행】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이 좋다. 귀농하길 정말 잘했다.	【성공】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귀농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겠다. 삶의 충전을 농촌에서 할 수 있다.	【적극 지원】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전북	김근희	98년 9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귀농자금 부족 정착초기: 주택구입의 어려움, 영농기술부족, 귀농한 다른 이웃과의 관계조율 현재: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은 매우 불안정하다.				【자금부족】 【주택구입의 어려움】 【영농기술부족】 【이웃과의 관계】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농업기술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였으면 한다. 또 국유 유휴지를 농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주었으면 한다.				【적극적인 행정】 【유휴지 구입】
<자금・재정분야> 농지구입자금을 좀더 쉽게 지원받았으면 한다. 또 농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농지구입자금】 【제도적 보완】
<경영・기술분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영농기술을 제공하여 주고, 농업기술센터에 충분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배치되었으면 한다.				【구체적인 영농기술 교육】 【전문가 배치】
<정보분야> 귀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귀농정보제공】
<유통분야>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농산물가격을 안정시켜 주었으면 한다.				【유통구조개선】 【농산물가격안정】
<교육>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실제적인 영농기술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구체적인 영농기술 교육】
<기타> 지역내의 휴경지나 빈주택 등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에서 수집하고 농민들에게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 수집, 제공】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경제적으로는 압박이 심하지만, 경쟁사회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귀농한 만큼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권장하고 싶다.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전북	서영석	98년 4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농지임차, 주택마련 정착초기: 자금대출, 농기계수리, 농지구입 현재: 도지를 얻어 농사를 짓는데 수입의 50%가 도지세이다.	【농지문제】 【주택마련】 【자금대출】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행정편의적 보다는 실제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예를 들면 영농교육기간 등)으로 전환되었으면 한다.	
<자금・재정분야>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또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자금부족】
<경영・기술분야> 기술교육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교육기간도 너무 길고 교육내용도 너무 포괄적이다. 하나의 교육주제로 짧은 교육을 몇차례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또 교육참여 여부를 이유로 다른 행정적 불이익이 없었으면 한다.	【교육내용】 【교육방법】
<정보분야> 귀농후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만한 창구가 없다.	【지속적인 자문】
<유통분야>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안된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주었으면 한다.	【농산물가격안정】
<교육>	
<기타>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다. 농업은 현재 일당이 20,000원인데 공공근로는 25,000원이다. 힘들고 보수가 적은 농업노동을 회피한다.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아직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전북	이수복	99년 1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영농기술부족, 일손부족 정착초기: 영농자금부족, 낮은 소득 현재: 자금부족, 낮은 소득	【영농기술부족】 【낮은소득】 【자금부족】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지역여건을 감안한 정책을 펴야 한다. 무주 지역은 중산간지 및 고랭지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업농에 대한 혜택이 쌀전업농에만 이루어지고있어 다른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융통성있는 행정】
<자금・재정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만 해주고 관리를 안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책자금 사후관리】
<경영・기술분야>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만큼의 기술을 알려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또 농민들의 영농기술현황과 현장을 잘알지 못한다.	【낮은 교육내용】
<정보분야> PC를 통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한다. 현재는 주로 농민신문에 의존하고 있다.	【PC정보검색】
<유통분야> 농산물 가격의 안정, 잦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적다.	【농산물 가격하락】
<교육> 영농교육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내용이 없다. 또 교육일정을 농한기로 변경해야 한다.	【낮은 교육내용】 【교육일정】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권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많이 힘들 것이다.	【경제적 여유】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전북	허병섭	96년 4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주택구입, 농지구입 정착초기: 자금부족 현재:	【주택구입】 【농지구입】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 · 행정분야> 정책과 행정이 중앙중심적이다. 농촌의 현실과는 괴리가 많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현장과 일치된 행정】
<자금 · 재정분야> 정책자금이 농민에게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 · 기술분야> 환경농업에 대한 기술교육을 받았으면 한다.	【환경농업】
<정보분야>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농업관련정보가 현장과 괴리된 경우가 많다.	
<유통분야>	
<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권하겠다.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전북	김종석	97년 3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정보와 자금이 부족해 어려웠음. 정착초기: 투자는 하는데 소득이 없어서 어려웠음. 현재: 일손이 부족하고 판로와 가격이 불안정해 어려움.	【자금부족】 【정보부족】 【초기소득없음】 【일손부족】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풍년이 들었을 때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줄것.	【농산물 가격지지정책】
<자금・재정분야> 소득좋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을 해줄 것.	【충분한 자금지원】
<경영・기술분야>	
<정보분야> 다양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줄것.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줄것.	【지속적인 정보제공】 【인터넷설치】
<유통분야> 농산물 판로 개척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줄것.	【판로개척】 【가격안정】
<교육> 자녀교육환경 개선해줄것.	【자녀교육환경개선】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실패했음. 영농교육과 자금부족, 판로가 없고 가격이 불안정함, 일손부족함.	【실패ㅇ】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권장하고 싶지 않음.	【권장하지 않음】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전남	조희선	91년 5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영농자금부족, 아내의 농촌적응(과도한 노동, 경험부족) 정착초기: 영농기반부족, 저소득 현재: 자녀교육문제, 교통문제, 노동력부족, 의료시설부족	【과도한 노동】 【영농자금부족】 【교육문제】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정부의 현장관리가 소홀하다. 2개면을 1명이 관리하여 현장을 잘 모른다.	【현장관리】
<자금・재정분야> 정책자금을 좀더 저리로 공급해주었으면 한다. 또 자금지원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데 연고지가 아닐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금부족】
<경영・기술분야> 영농기술교육을 좀 더 강화해주었으면 한다.	
<정보분야> 정부의 통계자료를 믿을 수 없다. 실제 현장과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부말을 믿다가 손해를 본 경우도 많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유통분야>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주었으면 한다.	【판로개척】
<교육> 농업에 대한 전문채널이나 방송매체가 없다.	【농업채널】
<기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과 작물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었으면 한다. 또 개인이 할 수 없는 현장실험도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현지연구】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작목선정을 잘했고 의욕도 있다.	【작목선정】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자본이나 기술이 충분하다면 권하겠다.	【여유자본】 【충분한 기술】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전남	강길삼	91년 1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자금이 없었음. 농지확보와 기술과 경험부족. 가족설득 문제. 고향이라 텃세는 없었음. 정착초기: 토지문제 현재: 자녀교육문제와 낮은 소득이 가장 중요. 소득이 노력에 비해 낮고 자녀양육비와 의료시설이 부족함.	【자금부족】【농지부족】【경험부족】【자녀교육】【부족한 의료시설】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풍년이 들었을 때 가격 안정의 문제, 농업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농업생산에 대한 투자	【가격안정】【농업인의 사회적인식제고】【농업생산에 대한 투자】
<자금・재정분야> 개인에 대한 보조금 제도의 폐지와 사후자금관리의 필요성.	【보조금 제도 폐지】【사후자금관리】
<경영・기술분야> 담당자들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기술력을 갖춘 지도사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도사가 필요.	【기술력을 갖춘 지도사】
<정보분야>	
<유통분야> 현재 농민은 생산과 유통을 함께 하는 입장임. 농협이 유통을 담당해주고 농민은 생산에 집중되어야 함.	【농협의 유통담당】
<교육>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함.	【현장위주의 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현재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권하고 싶음.	【권하고 싶지 않음】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전남	박흥환	88년 4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초기 4년 정도는 융자도 받지 못함.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배우자의 도시로 돌아갈 것을 권유. 정착초기: 현재: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유통과정이 없어 농산물 출하를 못함	【부족한 자금】【텃세】【배우자의 부적응】【농산물 가격 불안정】【정책의 일관성】【유통과정 미흡】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토지가격의 보조을 보조해 주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야 하며, 정책을 세우면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	【토지가격 보조】【현실에 맞는 정책】【일관되 정책집행】
<자금・재정분야> 연대 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신용담보대출을 활성화 시키고, 이율을 3%수준까지 낮추어야 하며, 실패했을 때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함.	【신용담보대출활성화】【이율인하】【지속적인 지원】
<경영・기술분야> 실력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해야 하며, 농업기술 뿐만이 아니라 질병, 유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	【실력있는 강사】【유통・질병에 대한 교육】
<정보분야>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컴퓨터를 농가에 보조금으로 설치해주어야 함	【정보화 교육】【컴퓨터 구입보조】
<유통분야> 농산물에 대한 등급제가 확실히 실시되고, 농협에서는 유통을 전담하고, 농민은 생산만 할 수 있는 체제 필요. 농산물 경매에도 하한선을 도입하고 보다 많은 냉장 창고를 지원 설립 필요	【농산물 등급제 실시】【농협 유통 전담】【농산물가격 하한선 설정】【냉장시설설치】
<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배우자와 어머니의 노력과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성공적임.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과다한 부채를 질수 있어 안함.	【안함】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전남	윤무용	99년 1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원주민과의 관계 정착초기: 영농기술부족, 자금부족 현재: 과도한 노동				【주민과의 관계】 【과도한 노동】 【자금부족】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행정처리가 너무 늦는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빨리 처리해주었으면 한다.				【신속한 행정】
<자금・재정분야>				
<경영・기술분야> 소득작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소득작목】
<정보분야> 자세한 영농기술을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이 있었으면 한다.				【자세한 영농기술】
<유통분야> 유통기관에서 국산을 적극적으로 판매해주었으면 한다. 값싼 외국농산물에 대하여 가격만 가지고는 경쟁할 수 없다.				【국산판매촉진】
<교육>				
<기타> 연고가 없을 경우 귀농을 지역주민이 크게 달가와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원주민과의 관계도 쉽지 않다.				【주민과의 관계】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전혀 권하고 싶지 않다.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전남	오종원	93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대출보증인이 없음/토지가 매우 부족/ 초등학교만 이 지역에서 다녀서 연고가 없어서 어려웠음 정착초기: 위와 상동 현재: 자녀교육의 부실/영농자금 상환기간이 너무 짧음/대출이자 과다	【보증인확보】 【토지부족】 【텃새】 【자녀교육문제】 【자금상환기간】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자금지원 할 때 투명하게 심사해서 인맥, 학맥에 의한 지원 지양	【투명한자금지원】
<자금・재정분야>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낮춰줄것	【대출금상환연장】 【싼이자대출】
<경영・기술분야>	
<정보분야>	
<유통분야>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판로 다양화 직거래장터 활성화	【판로다양화】 【직거래장터】
<교육> 현지 방문교육 해줄것	【현지방문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성공했다. 성공원인은 연고지라서 보증인을 구해 자금대출을 쉽게 받은것과 흑염소를 키운 것 그리고 포크레인, 트렉터, 콤바인 등 기계를 잘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아내의 내조도 큰 역할을 했다.	【성공】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권하고싶다. 특히 염소를 키워보라고 권하고싶다.	【귀농권장】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강원	김도봉	99년 4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농지부족. 주택구입. 영농자금 조달 정착초기: 현실과 괴리된 농촌생활. 농촌의 열악함. 농정 당국의 안이한 자세. 불투명한 수입 현재: 자금·기술 부족. 불확실한 정보. 전문적인 상담자 부재. 노동력부족. 불안정한 농산물가격. 농지부족.	【농지·자금·기술 부족】【불투명한 수입】【노동력부족】【불안정한 농산물가격】【불확실한 정보】【낮은 소득】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개발사업확대. 농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사전조사 실시. 농산물 안정정책. 토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책 개선. 도농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농촌개발(정보, 문화) 정책 필요	【농업기반 조성 및 농촌개발사업확대】【임대차에 관한 정책 개선】
<자금·재정분야> 충분한 영농자금 필요. 대출요건의 복잡함.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자금·재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충분한 자금지원】【자금대출요건 간소화】
<경영·기술분야> 현실적인 기술 보급. 일정 면적에서 산출되는 특정 작물 소득량과 같은 평균 수치를 데이터화한 지침서가 필요하다.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	【현실적인 기술보급】【농업경영·기술 지침서 필요】
<정보분야> PC보급과 무료 홈페이지 개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 전문 상담자 요망	【PC 보급】【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전문상담자 필요】
<유통분야> 컴퓨터를 통한 직거래. 유통단계 개선.	【직거래 알선】【유통단계 개선】
<교육> 컴퓨터 교육 시급. 작목별 전문 교육 시행	【컴퓨터교육】【작목별 교육시행】
<기타> 귀농한 사람들이 도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문화적, 교통, 자녀교육의 문제해결이 빨리 되어야 한다.	【교통·문화·교육문제 해결】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한 지 얼마 안되어 성공 유·무를 말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계획이다.	【판단하기 이름】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앞으로 농업여건이 향상된다면 귀농 적극 권장하겠다.	【권장】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강원	박도영	98년 2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시골생활을 하지 못한 자녀와 아내의 부적응과 아이들의 학교생활의 부적응. 정착초기: 매월 정기적인 소득으로 생활하다 1년에 한번 추수까지 기다리는 인내심과 생활환경이 달랐던 부모님과의 부대낌 속에서 고생하는 아내. 현재: 경제적으로도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며, 부모님과의 부담스런 관계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아내와 자녀의 시골생활 부적응】【소득의 기간이 김】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쌀 전업농과 축산 농가는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많음. 농토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임대해 주어야 함.	【계획수립에 어렴움】【농토의 임대】
<자금・재정분야> 확실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추가 자금이 필요.	【자금의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
<경영・기술분야> 농업기술센타에서 언제든지 친절한 경영 기술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음.	【농업기술센타의 친절한 지원 만족】
<정보분야> 지역 주민에게 할당된 농민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귀농자에게 절대 필요	【농민신문의 구독 여건 마련】
<유통분야> 중간 상인의 개입을 없애야 함	【직거래의 실현】
<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건강면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귀농이라 생각함. 그러나 부모님과의 갈등과 문화생활 취미생활이 다양하지 못함.	【만족함】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귀농자체는 권하나 고부갈등과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	【권장하나 생활 측면의 고려】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강원	권상덕	99년 3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정착초기: 영농기술 및 판로와 유통과정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변동이 심해서 상황판단의 어려움이 많았음. 현재: 그런데로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입육 완전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임.	【유통과정의 어려움】【상황판단의 어려움】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야 함.	【농산물 가격안정제】
<자금・재정분야> 종합 자금제도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조합은행에 신청을 해도 특수작물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 귀농자의 발전여부를 보고 자금을 지원해주어야 함.	【원활한 자금지원】
<경영・기술분야> 아버님의 가업승계이고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음.	
<정보분야> 인터넷과 통신을 통해 쉽게 접근하고 있음	【인터넷과 통신이용】
<유통분야> 소비자가 믿고 살수 있는 한우 전문 직매장을 개설해야 함	【한우 고기 직거래】
<교육> 현재 실시 하고 있는 귀농자 영농교육이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었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교육지원을 바람.	【영농자 교육이 많은 도움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함.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잘못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성공이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함.	【판단하기 이름】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면 권함. 자본금과 연고가 없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음	【연고와 자본금이 있으면 권함】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강원	조성진	98년 4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자금부족, 농지구입 정착초기: 자금부족, 농지구입 현재: 자금부족, 농지부족				【자금부족】 【농지구입】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전업농선정기준을 완화해주었으면 한다. 3천평이상을 가진 농민이 자격이 있는데 귀농자에게 이것은 무리다.				【기준완화】
<자금・재정분야> 자금지원이 좀더 많았으면 한다. 정책자금의 규모가 작아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금지원】
<경영・기술분야>				
<정보분야>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유통분야>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이었으면 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
<교육> 영농교육을 농한기에 실시했으면 한다. 현재는 농번기와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교육기간】
<기타> 농기계 수리가 쉽지 않다.				【농기계 수리】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본인이 원한다면 권하겠다.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강원	허원행	99년 2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부족한 자금, 농지임대, 영농에 대한 정보부족 정착초기: 새로운 영농정보습득, 농기계 임대 현재: 부족한 일손과 경험미숙으로 상황에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부족한 자금】 【농지임대】 【영농정보】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주었으면 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
<자금・재정분야> 귀농에 대한 재정지원액이 현실에 비해 너무 적다. 그리고 상환조건도 좀더 유리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지원자금】
<경영・기술분야> 농한기에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영농기술을 가르쳐주었으면 한다.	【교육프로그램】
<정보분야> 새로운 영농기술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영농기술정보】
<유통분야> 수도작의 경우 농협 출하가 9월 한달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간의 융통성을 두었으면 한다.	【유통구조개선】
<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처음부터 귀농할 의사가 있었고, 연고지로 귀농한 것이라 만족한다.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연고가 있다면 권하고 싶다.	【연고지】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북	이창섭	98년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배우자와의 불화. 정착초기: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 적은 소득. 현재: 판로문제.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일손부족. 교육문제.	【배우자와의 불화】【불안정한 농산물 가격】【판로문제】【교육문제】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귀농정착자금을 선 집행 후 지불하는 식은 불합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 필요. 농업기반 및 농촌개발사업을 확대하는 정책 필요.	【자금의 선지불 후집행】【교육문제해결】【농업기반 및 농촌개발사업확대】
<자금・재정분야> 귀농정착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 요목별로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리 사용영역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불편하다. 영농규모에 맞게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충분한 자금지원】【상환기간 연장】【지원자금사용영역 자율화】【영농규모에 맞는 자금지원】
<경영・기술분야> 전문 경영인이나 기술자가 지도해 주어야 한다.	【전문경영인이나 기술자가 교육】
<정보분야>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야별로 공고를 해서 농민의 정보획득이 용이했으면 좋겠다.	【정보흐름 원활】
<유통분야>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기는 하나, 판로가 없고, 또한 농산물 가격이 너무나 불안정하다.	【농산물 가격보장 및 판매망 구축】
<교육> 교육이 언제 있는지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교육계획이나 일정표가 잘 배포되어 계획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가 실시해야 교육참여도나 교육효과가 높을 것이다.	【교육계획 및 일정표 배포】【전문가가 교육담당】
<기타> 귀농을 한 사람도 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업 허용】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어린아이들과 함께 귀농한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 정이 든 제2의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귀농 성공】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귀농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며, 귀농 시기 또한 잘 맞춰야 할 것이며, 3-5년간 소득이 없더라고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귀농은 정말 해볼만한 것이다.	【귀농 권장】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북	김대기	98년 8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자녀교육문제/아내가 함께할 친구가 없음. 정착초기: 현재: 자금이 부족함.				【자녀교육문제】 【아내의 친구가 없음】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가격안정정책 펴줄것				【가격안정정책】
<자금・재정분야> 정책자금의 부족한 것을 해소해줄것				【충분한 자금지원】
<경영・기술분야>				
<정보분야>				
<유통분야> 특수영농(꿩, 버섯 등)을 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필요함.				【특수영농을 위한 판로개척】
<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투자하고 있는 중이라 말하기 이름.				【판단하기이름】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권하고 싶지 않음				【권하지 않음】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북	이상호	97년 6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작목선택의 어려움, 자녀의 교육문제 정착초기: 일손부족, 과다한 노동,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현재: 노동강도에 비해 수입이 너무 적다	【교육문제】 【작목선택】 【과다한 노동】 【농산물 가격】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자금・재정분야>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었으면 한다. 자금도 더 넉넉히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융자금 상환조건】
<경영・기술분야>	
<정보분야>	
<유통분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위탁판매의 경우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면 한다.	【유통구조개선】
<교육> 농촌의 경우 폐교로 인하여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 아이들을 일일이 통학시켜야 할 형편이다.	【폐교문제】
<기타> 사회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하다. 병원만 해도 너무 멀고 시설도 빈약하다.	【사회기반시설확충】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그저 그렇다.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여건이 된다면 권하고 싶다.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북	이희동	98년 3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불이 나서 집을 짓고 빚문제로 고민 정착초기: 현재:	【과다한 빚】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 · 행정분야>	
<자금 · 재정분야>정 자금의 투명성과 농사짓는 사람에게 땅을 배분하여야 함. 연대 보증인제도를 폐지해야 함.	【농사짓는 사라에게 땅을 주어야 함】【연대 보증인제도 폐지】
<경영 · 기술분야>	
<정보분야>	
<유통분야> 현재 두부를 직거래 하고 있음. 감, 자두는 농협에서 매주 금요일 가지고 나감.	【직거래】 【유통과정의 농협참여】
<교육> 자녀교육 문제는 더 좋음. 폐교되면 문제이고 교사당 학생수가 적어서 좋음.	【더 좋음】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성공을 위해 노력중.	【노력중】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연고지나 물려 받을 땅이 있으면 좋음. 2-3천만원으로는 실패하기 쉬움.	【연고와 자본이 있으면 권함.】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북	고재원	97년 4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토지 임차료가 비쌈/텃세가 심함 정착초기: 현재: 자녀교육 환경이 열악함				【비싼 토지임차료】【텃세】 【자녀교육문제】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귀농자가 노력하고 있고 어느정도 기반이 다져지면 추가자금지원 해줄것/직거래를 위해 차량을 지원해줄것				【추가자금지원】 【직거래 차량지원】
<자금・재정분야>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낮춰줄것				【싼이자대출】
<경영・기술분야> 농약값・인건비 등이 가격상승 억제				【농약값보조】 【노동력확보】
<정보분야> 정보를 많이 제공해줄것				【다양한 정보제공】
<유통분야> 유통비용 절감				【유통비용절감】
<교육>				
<기타> 농협에서 공급하는 거름의 질이 나빠 믿을 수 없음/귀농자들의 출신배경이 다양해 단합이 어려움				【양질의 거름공급】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 농산물 가격보장이 안되고 인건비 운반비 등이 너무 오른다.				【성공】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권장한다.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귀농권장】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남	최종철	99년 3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대출이 까다로움. 정착초기: 영농자금조달의 어려움/기술이 부족함. 현재: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까다로운대출】【자금부족】【기술부족】【앞날에 대한 불안감】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자금・재정분야> 기계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줄 것. 귀농자금이 너무 부족함.	【기계구입보조금지원】【충분한 자금지원】
<경영・기술분야>	
<정보분야>	
<유통분야>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많은 양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농협통한거래활성화】
<교육>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 농사일이 없는 농한기때에 집중적으로 하고 농번기에는 현장 순회교육을 해줄것.	【농한기를 통한 집중교육】【농번기에 현장순회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 초기라서 아직 판단할 수 없음.	【아직 판단하기 이름】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아직 잘 모르겠음.	【잘 모르겠음】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남	경현우	97년 12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토지 임차와 축사건설을 위한 자금이 부족했음. 정착초기: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음. 현재: 영농자금이 부족함.	【영농자금부족】 【텃새】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자금・재정분야> 귀농자들에게 자금 융자 기회 확대해줄 것	【영농자금지원 확대】
<경영・기술분야>	
<정보분야> 산란계 경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해줄것.	【경영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유통분야> 계란 유통가격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줄것.	【유통가격통일】
<교육> 소나 돼지에 대한 교육외에 산란계에 대한 교육 많이 해줄 것	【교육확대】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아직 투자중이라 성공이나 실패라고 말하기 이름.	【아직 판단하기 이름】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남	허성봉	99년 8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귀농에 대한 정보부족,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정착초기: 주택마련 현재: 주택마련	【정보부족】 【주택마련】 【행정자문】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필요한 경우 바로 자문을 해주고 행정절차를 처리해주었으면 한다.	【행정자문】
<자금・재정분야>	
<경영・기술분야>	
<정보분야> 산림법, 농지법 등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문을 해줄만한 기관이 없다. 또 농촌에서도 internet 검색을 할 수 있는 통신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	【행정자문】
<유통분야> 농협이 판로나 기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있다.	
<교육>	
<기타> 농로 등 농업시설에 대한 투자도 해주었으면 한다.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자금이 충분하다면 권하겠다.	【여유자금】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남	한상현	97년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자금이 부족해서 농지확보 어려움. 배우자의 이해부족 정착초기: 자금부족. 주택마련 현재: 자금부족	【자금부족】【배우자의 이해부족】【주택마련】【농지구입】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타지에서 귀농하는 사람에게 주택확보 및 농지구입을 용이하게 해 주는 정책 필요. 귀농정책자금을 받으면 부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등록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데 시정되어야 한다.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주택확보 및 농지구입 지원】【부업허용】【복잡한 대출절차】
<자금・재정분야> 귀농정책자금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 담보능력이 있어야 대출이 되는 것은 귀농자에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받아야만 정책자금을 주는 경우나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지원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자금 확대지원】【상환기간연장】【작목에 따른 분할상환】【정책자금 지원조건 용이】
<경영・기술분야> 기계값을 저렴하게 보급했으면 좋겠다.	【저렴한 기계보급】
<정보분야>	
<유통분야> 농민들이 가격 걱정 안하고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었으면 한다.	【생산비보장】【최저가격보장】【가격안정】
<교육>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인 확보가 시급하다.	【전문인 확보시급】
<기타> 정부에서 접종원을 설립하여 종균을 철저히 정부에서 관리해 주고 각 농가에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종균 접종원 설치 시급】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소득면에서 귀농하기를 잘했다.	【귀농성공】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농사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귀농권장】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경남	송금자	88년 11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텃새. 자녀교육. 정착초기: 영농경험부족. 과다한 노동. 건강을 해침 현재: 부족한 노동력. 과다한 인건비. 값비싼 농기계	【텃새】 【자녀교육】 【영농경험부족】 【건강】 【노동력부족】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영농자금 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	【자금지원절차 간소화】
<자금・재정분야>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정부에서 보조 해 주었으면 좋겠다.	【농기계 구입시 지원】
<경영・기술분야> 시부모님들이 오랫동안 단감농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단감을 재배하는데 경영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애로사항이 없다.	
<정보분야> 농산물 출하 장소 및 가격, 제대로 가격을 보장받기 위한 정보 제공	【농산물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유통분야> 농산물 가격 불안정하므로 국가에서 가격안정화를 해줘야 함. 농산물 가격이 너무 저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생산가격 보장 요망	【농산물 가격보장】 【생산가격보장】 【직거래활성화】
<교육> 컴퓨터 교육. 농한기때 실질적인 전문교육 실시 요망. 교육 횟수도 늘려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부여. 일년에 며칠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때 일이 있는 농민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	【컴퓨터 교육】 【전문교육시행】 【교육기간 및 횟수 증가】 【농한기때 교육실시】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 당시에는 너무나 지긋지긋한 이 곳이 이제는 정이 들었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판단 유보】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농산물 가격이 보장된다면 귀농 권장	【조건적 권장】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제주	강태흡	98년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농지 부족, 영농자금 부족, 값비싼 임차료, 장기간 임차가 어려움. 정착초기: 작목 선택,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현재: 일손부족, 농기계가격이 고가라 구입이 어려움, 농기계 수리 어려움	【농지부족】【영농자금부족】【불안정한 농산물가격】【일손부족】【비싼 농기계·수리 어려움】【임차 곤란】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정책자금에 관련된 제도·법률이 수혜 대상자 선정에 있어 너무 경직되어 있음. 정책자금 받는 절차의 까다로움. 영농규모에 맞는 자금지원. 농기계·영농자재의 값싼 공급. 정책이나 제도 등이 너무 자주 바뀜. 농한기 때 취로사업 추진 요망.	【정책자금 수혜절차 간소화】【규모에 따른 자금지원정칙】【일관된 정책시행】
<자금·재정분야> 농업자금 융자 용이성 확보 요망.(담보능력이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함) 농업도 벤처기업처럼 육성 및 투자해야 함. 지속적인 자금 지원. 영농자금 이율 5%이하로 지원. 농업정책 융자지원 사용내역 구분 없애야 한다.	【융자 용이성 확보】【농업투자확대】【지속적인 지원】【저렴한 이율】
<경영·기술분야> 전문기술자들이 농장 등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현장교육】
<정보분야> 농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	【농업관련정보 PC보급】
<유통분야> 농산물의 산지가격과 소비가격 격차가 너무나 크다. 생산자 보호책 마련. 농협에서는 수수료에만 연연. 농민입장 고려 안함. 경매인들이 가격 결정하여 농민들 우롱. 농산물 가격보장 및 판매망 구축.	【생산자가격보장】【농산물 판매망구축】
<교육> 교육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교육. 영농에 도움을 주는 교육.	【세분화된 교육】【현실성에 맞는 교육】
<기타> 꼭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융자 및 대출을 해 줘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농가에 대한 사후 관리 요망	【지원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귀농해서 성공했다'라고 섣불리 대답하기 곤란. 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을 갖고 열심히 하면 그 결과는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	【판단하기 어려움】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귀농하려는 마음이 있고 농사를 지으며 영원히 정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귀농 권하고 싶다. 농업도 전망이 좋았으면 좋겠다.	【귀농확신·지속적인 영농의사 시 권장】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제주	변덕진	96년 11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모르는 상태라 애로가 있는지도 모름. 정착초기: 축산과 감귤을 선택했으나 상황반전으로 새롭게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 과다한 노동으로 적응이 힘듬, 배우자의 부적응. 현재: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농업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힘듬. 농촌 지도사의 현장실습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작목선택】【과다한 노동】【배우자의부적응】【농산물 가격안정】【농업에 대한 자료 부족】【현장실습위주의 교육】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전업농 육성에서 토지구입자금이 배제되었는데, 농지구입자금이 전업농육성에 포함되기를 바람.	【토지구입자금지원】
<자금・재정분야> 신용보증기금에서 무담보로 제공하게 되어 있지만, 일선 농협에서 담보, 보증을 요구함. 농사 초기 투자자금이 너무 많음.	【무담보자금지원】【농협보조사업실시】
<경영・기술분야> 지도사들이 현장위주의 실습교육과 열의를 갖고 일을 처리해 주어야 함. 가격 안정이 중요.	【현장교육】
<정보분야> 농업작목선정과 재배량의 통계자료등의 열람 및 획득이 어려움.	【작목선정】【통계자료공급】
<유통분야> 제주도는 유통비 비중이 큼. 직거래 대상을 믿을 수가 없음. 그래서 상인들이 일정이상의 돈을 보증기금에 가입시켜서 농민들이 직거래상에게 돈을 떼이는 것을 보상해 주어야 함.	【보증기금】
<교육>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초기 단계이고 투자만 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수입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이 가능할 것임.	【판단유보】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노동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권할 수도 있음.	【여건에 따라 다름】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제주	이원대	98년 7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함 정착초기: 영농기술부족, 영농기술교육기관과 정보의 부족 현재: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고, 불안한 농산물가격				【자금부족】 【영농기술부족】 【정보부족】 【불안정한 농산물가격】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귀농담당자가 있어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귀농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교육 필요				【귀농프로그램】
<자금・재정분야> 귀농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쉬워졌으면 한다.				【귀농자금지원】
<경영・기술분야> 영농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영농기술 정보】
<정보분야> 영농기술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한다.				【정보공유】
<유통분야> 대부분의 이익이 중간상인에게 돌아간다.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과 판로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안정적인 판로】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
<교육> 정부가 귀농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면 한다.				【귀농정보 제공】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아직 판단은 이르다. 다만 영농기술도 늘어났고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다.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무엇보다도 귀농하려면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현실도피적인 귀농이어서는 안된다.				【본인의 의지】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제주	이명하	92년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살 집과 농사지을 땅이 없었음. 정착초기: 귀농자금이 부족했음. 현재:				【주택문제】 【토지문제】 【자금부족】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원산지와 생산과정에 대한 감시 철저히 해줄 것 지역마다 특수한 작물을 재배하게 해줄것-선정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것				【원산지표시철저】 【지역작물특화】 【생산과정감독】
<자금・재정분야> 실질적인 귀농자금 지원/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농사지을 땅과 살 집 제공/효율성 있는 영농자금 지원				【효율성있는 자금지원】
<경영・기술분야> 농업기술센터와 군청과 대학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직원이 자주 바뀌고 같은 주제로 3주체가 연구하기 때문에 농민을 귀찮게 하는 결과 초래				【전문지식을 가진 지도사필요】
<정보분야>				
<유통분야>				
<교육>				
<기타>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연구하도록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불성실한 연구기관에게 연구비를 주는 것보다 낫다.				【실제 농민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성공했다. 본인의 노력과 지도소의 적절한 지도와 원할한 유통 덕분이다.				【성공】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정착가능한 입지조건(땅, 집)과 귀농자금과 반드시 농업으로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되었을 경우에 권장				【땅, 짐, 자금, 마음준비후 권장】

일시	지역	귀농자	귀농 년 월	CODE
	제주	최경춘	98년 3월	
인터뷰 내용				약호화
<귀농의 애로사항> 귀농당시: 농지부족. 정착초기: 농지부족. 현재: 농지부족.				【농지부족】
정부와 외부기관에 바라는 점				
<정책・행정분야> 영농정착 여부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여부 결정.				
<자금・재정분야> 자금지원 규모의 융통성.				【융통성있는 자금지원】
<경영・기술분야> 산학협동을 통한 실질적 도움을 줄 것.				【산학협동】
<정보분야>				
<유통분야> 직거래 활성화/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대형매장, 대형아파트 등에 직거래 추진해 줄것.				【직거래활성화】
<교육> 교육기회 확대/선도농가・해당전문가를 통한 살아있는 교육필요.				【실질적 교육】 【교육기회확대】
<기타>				
<귀농의 성패에 대한 견해> 성공했다. 사전준비에 충실했고 판로개척에 성공했고 유기농재배한 것이 큰 힘.				【성공】
<귀농 권장에 대한 의견> 사전 준비가 되었다면 권하고 싶다.				【철저한 사전준비 후 권장】